

12

예술가의 초상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DECEMBER
vol.276


Cover Story

젊고 파워풀한 네 남자의 피아노 오케스트레이션
양상블 '클라비어'

반갑습니다 김덕수 명인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잃어버린 옥상을 찾아서 ...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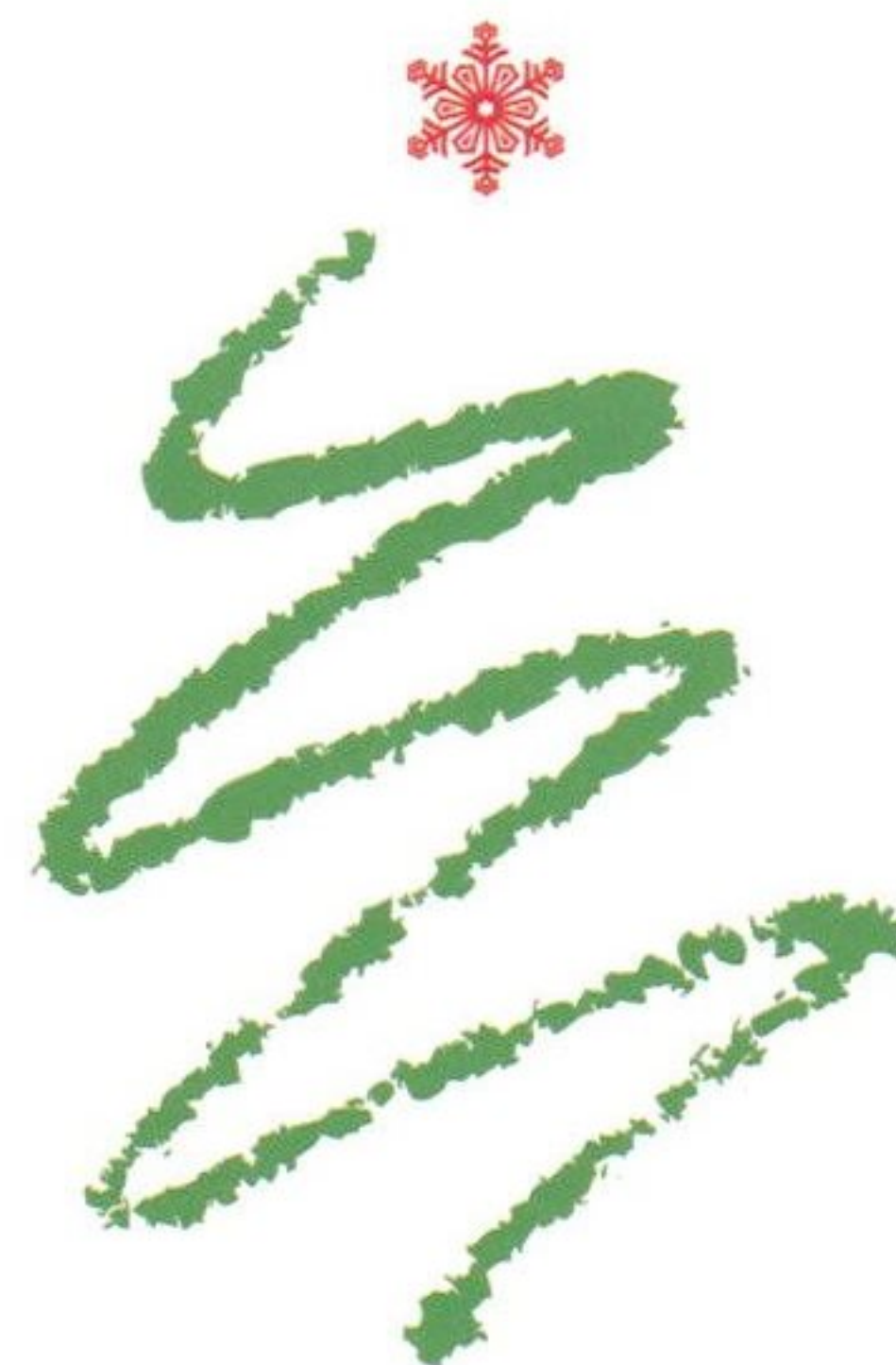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특별할인

The Czech Boys Choir BONIPUERI

보니푸에리



Happy Christmas Concert

체코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콘서트

2014. 12.13 SAT 5: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607-3100 (홍보마케팅부) 607-6057 (공연과)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티켓링크 1588-7890 티켓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Beethoven & Mozart

송년음악회

The Farewell Concert

백승태 창작관현악곡 『을숙도의 노래』

W. A. Mozart Sinfonia concertante for violin, viola and orchestra, KV364

L. V.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김해시립합창단

을숙도문화회관 상주예술단체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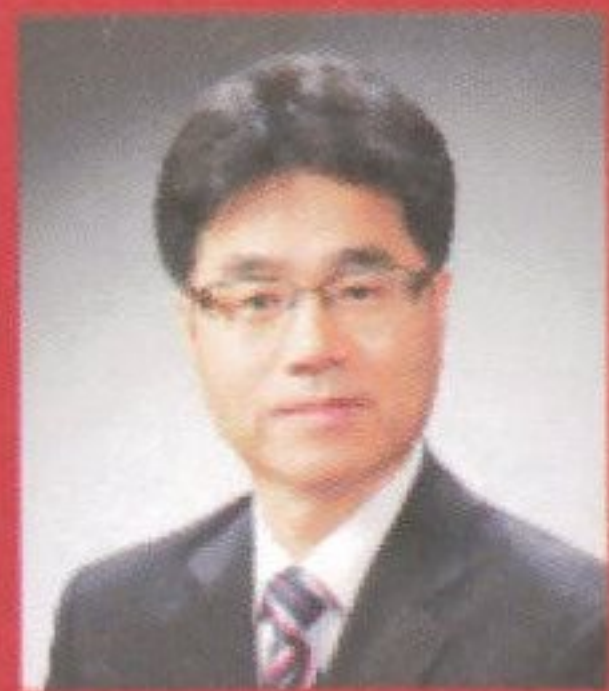
2014. 12.11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김원명



지휘 이효상



작곡 백승태



바이올린 조현미



비올라 김은진



소프라노 김경희



메조소프라노 김라희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정대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신문,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팟부산,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 전광수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 본 공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푸치니 서거 90주기 기념

4대 걸작으로 만나는 송년 오페라 갈라 축제

All That Puccini All That Opera

올댓 푸치니, 올댓 오페라

La Bohème 라보엠

Tosca 토스카

Madama Butterfly 나비부인

Turandot 투란도트

2014.12.20(토)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 마르코 발데리

출연 | (소프라노) 박현정, 오히진, 박효강, 김라희, 황윤정,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김지호, 허동권, (바리톤) 박대용

연주 |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주최·주관 |  그랜드오페라단

후원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특별협찬 |  성우하더텍

협찬 |  스타자동채(주)  DAESUNG KYOBO  교보생명  DaehanSteel  유한미네랄솔트  대동병원  성우건설주식회사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입장권 | VP석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공연안내 및 예매 | 051)853-2341 www.grandopera.or.kr 전화예매할인: 오페라단회원 10%할인, 단체 10명이상 20%할인

PARK SANG

MON CONCERT



박상민콘서트

2014. 12. 9 | 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Sun&Fun Haeundae 해운대 문화회관 주관 KM컬처

예매 인터파크 BS 부산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할인 누리회원 · 초 · 중 · 고 단체 30명이상(30%), 장애인(50%)

입장권 VIP석 70,000원 R석(1층) 60,000원 S석(1층) 50,000원

A석(2층) 30,000원 B석(2층) 20,000원



유쾌하고 가슴 따뜻한
만화방 삼남매의 사랑이야기

만화방 미숙이

2014. 12. 19 (금) 오후 7시 30분 / 12. 20 (토) 오후 5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작 이성자 | 연출/각색 신준영 | 조연출 이산의 | 무대감독 어윤호 | 음악감독 박상철 | 소품/의상 조인경 | 조명 최동혁 | 음향 김경호
출연진 이관영, 남기봉, 조주경, 김미현, 박현수, 윤선미, 윤미하, 우혜영, 김태형, 김영훈, 정우진, 정범균, 황지훈, 이현규, 김유민, 이나빛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제작 극단 해오름, 극단 향아리 | 후원 복권위원회

티켓 1층 2만원, 2층 1만원 | 예매 인터파크 부산은행전지점 | 예매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 749-7651

"이 사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 인제는가죽

2014. **12.23**(화)~**27**(토)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공연 | 평일 19:30 / 주말 · 공휴일 15:00 | 균일 10,000 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청소년 · 경로우대자 · 국가유공자 50% 할인 / 24 세이하 청년 및 대학생 30% 할인 / 예술인패스 소지 예술인 30% 할인

원작 : 김의경 / 연출 · 재구성 : 김수진 / 예술감독 : 문석봉

CAST / 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김은희, 엄지선,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임신호, 이재찬, 김성열, 정인옥, 엄지영, 채민수, 김제형, 김민정, 이연진, 정으뜸

STAFF / 드라마트루기 오리라, 조명디자인 이츠미 츠그오, 조명감독 이상봉, 무대미술 오오츠카 사토시, 무대제작 황경호, 오브제 노무라 나오코, 작곡 · 음향감독 오오누키 타카시, 안무 오오카와 타에코, 제작 시마무라 히로아스, 통역 김순영, 분장 이지원, 사진 손재영,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 김향숙, 홍보 배정환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시립극단 문의 / 부산시립극단 051)607-3151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인터파크 AUCTION 

Contents

·
·
·

2014
DECEMBER
vol.276

08



- 08 **커버스토리**
젊고 파워풀한 네 남자의 피아노 오케스트레이션
양상블 '클라비어'

Cultural Story

- 10 **공연 일정**
- 12 **반갑습니다**
신명나는 우리가락으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김덕수 명인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알랭레네 밤과 안개_전은정
- 18 **불멸의 거장_셰익스피어⑥**
셰익스피어 문제극의 세계_송홍한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잃어버린 옥상을 찾아서... - 범천동 O+A 빌딩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발효문화학교 연효재
- 24 **우리는 문화가족**
에그리나 합창단
- 26 **테마가 있는 여행**
합천 정양늪 생명길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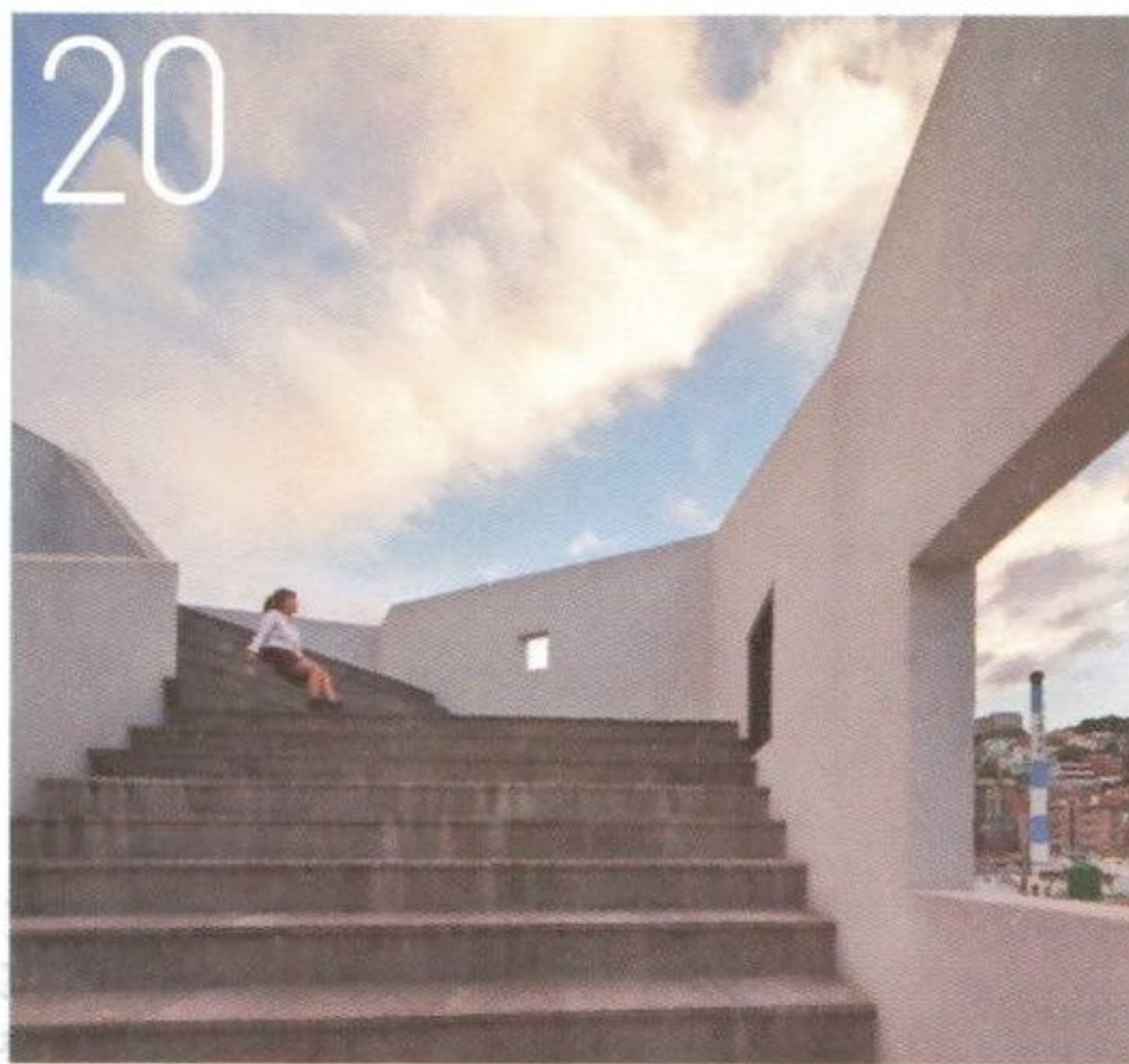
Boards Inside

- 30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 57 **생각그림 냉온_하인상**
- 58 **새로나온 음반**
- 59 **새로나온 책**

Center News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부산문화회관로**
- 6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20



23



26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12월호 통권 276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4년 11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젊고 파워풀한 네 남자의 피아노 오케스트레이션

앙상블 클라비어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따로 또 같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4명의 남성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앙상블 클라비어가 12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첫 부산 공연을 갖는다.

독일 하노버국립음대, 로스톡국립음대, 에센국립음대 등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국제피아노콩쿠르 입상과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쌓아온 젊고 파워풀한 4명의 피아니스트로 결성된 '앙상블 클라비어'는 4대의 피아노와 4명의 연주자가 만들어 내는 피아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클래식 음악을 선사한다.

젊고 파워풀한 피아노 오케스트레이션을 선사할 네명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방기수, 문재원, 김지훈, 신영주. 이들은 솔로이스트로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주들이다.

방기수는 2003년 15살의 나이로 독일로 유학, 2004년 국립하노버음대에 입학한 재원이다. 2005년 하노버의 귀족 장학재단인 Edelhofstiftung에서 최연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첫 독주회를 가진 이래 유럽 각국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2007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Steinberg 국제콩쿠르에서 2등상을 수상하면서 차세대 피아니스트로서의 자질을 입증한 방기수는 2008년 이비자 국제콩쿠르에서 Mention Especial상, 2010년 A.M.A Calabria 국제콩쿠르에서 3등을 차지했다. 이태리 코모아카데미 원장인 William Grant Nabore 교수로 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노래할 수 있는 기대되는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방기수는 현재 국립하노버음대 전문 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이다.

11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데뷔한 **문재원**은 시드니음대교수 Elizabeth Powell를 사사하고 호주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갈 기대주로 성장했다. 2005년 하노버 국립음대에 입학해 현재 Arie Vardi 교수 문하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문재원은 West Australian 심포니오케스트라, The Queensland 오케스트라, Ku-ring Gai Philharmonic, Baca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문재원은 Sydney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Delia Steinberg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Lev Vlassenko Piano Competition, AMA Calabri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Montreal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입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멤버 **김지훈**은 연세대학교를 거쳐 독일 Rostock국립음대(K.A)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김지훈은 현재 앙상블 Solist A에서 피아노 주자, 앙상블 Mit에서는 피아노와 지휘를 맡아 활동중이다.



마지막 멤버 **신영주**는 독일 트로싱엔 자르브뤼켄 전문연주자과정, 에센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재학 당시 Saarbruecken Duisburg Essen Dortmund 등 여러 도시에서 기획연주, 독주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귀국 후 국립 전남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앙상블 클라비어의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더블베이스 주자 성민제가 특별게스트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성민제는 16세에 세계 권위의 마티아스 스페르크 더블베이스 국제콩쿠르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국제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였고 독일 마르크 노이키르헨 국제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2위에 입상하는 등 세계 더블베이스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최고의 연주자이다.

앙상블 클라비어는 이번 공연에서 방기수가 작곡한 '서울 아리랑'을 비롯해 모차르트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비발디 '사계' 중 '겨울',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등 다양한 곡들을, 성민제는 아르니 에길슨의 '더블베이스 소품', 프랑스와즈 라바스의 'Poucha Dass'를 들려줄 예정이다. 대중적이면서 품격 높은 무대 위에서의 웅장함과 각기 다른 개성의 연주자들이 만들어 내는 피아노 배틀의 세계가 기대된다.

※ 공연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ULTURAL SCHEDULE

SUN

mon

TUE

7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솔오페라 단&로극장 공동제작 오페라 '토스카' 17:00 20만원 · 18만원 · 13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

중 'Affogato처럼...'-3rd Elle Sonts 2piano Concert 19:30 균일 1만원 Elle Sonts(010-6426-0968)

1 **중** 부산원드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 연주회 '행성' 19:30 초대 부산원드오케스트라(010-3376-2246)

2 **중**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 여성문화회관(320-8331~5)

소 부산시립무용단 풍류 10기-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

14 **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앙상블의 밤 17:00 초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010-2333-2544)

8 **중** 제40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베토벤교향곡 시리즈 II' 19:30 균일 1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소 BOCOnians Winter Concert 19:30 균일 1만원 BOCOnians(010-7553-5337)

9 **대**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연 11: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중 진소영 작곡발표회 '조화' 19:30 초대/진소영(010-3024-7877)

소 마림바의 향연 19:00 초대/이경준(010-4141-4669)

21 **대** 블레이크 첫 내한공연 in 부산 18:00 9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지니컨텐츠(02-568-8831)

소 소녀들의 피리아야기 19:30 초대/여은혜(010-7197-8515)

15 **대** UKO 제35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 U.K.O (010-3863-3087)

중 행복나눔 송년음악회 19:30 초대 수영로 콰이어(010-9117-2352)

소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9회 정기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김태훈(010-7543-0883)

16 **대** 2014 부산솔리스트양상블 19:30 균일 3만원/부산일보 문화사업국 (461-4436~8)

중 국악그룹 도시락 '모든것이 음악이다' 19:30 1만원 · 5천원 도시락(010-8986-6056)

소 우리소리 우리가락청 2014 해설이 있는 우리 음악이야기 19:30 균일 1만원 김현일(010-9328-9294)

22 **대** 동서대 시낭송&언어디자인 시낭송&사극 18:30 무료 김규용(010-9305-1472)

23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중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 (607-3151~2)

소 김미란 무용단 '메멘토 모리' 19:30 균일 1만원 정경은(010-6711-3922)

28 **대** 아듀! 2014 뉴아시아오페라단 송년 음악회 The Last Propose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뉴아시아오페라단(1600-6867)

소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 박강우(010-2553-0737)

29 **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4 송년음악회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30 **중** 남산놀이마당 부산이야기 '금정산 고당할미전' 16:30, 19:30 균일 1만원/(사)남산놀이마당 (516-4434, 010-2860-8565)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야외공연장 ● 국제회의장

WED

THU

FRI

SAT

3

● 제6회 이승장 클래스 색소폰 발표회 19:30 무료/이승장(010-4662-0123)

● 까를로의 피노키오 여행 10:15, 11:20
 균일 1만원(단체 5천원) 키즈샘 (070-8281-6593)

4

●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 음악회' 11: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

● 까를로의 피노키오 여행 10:15, 11:20
 균일 1만원(단체 5천원) 키즈샘 (070-8281-6593)

5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솔로페라단&로마극장 공동제작
 오페라 '토스카' 19:30 20만원·18만원·13만원·8만원·5만원·3만원/솔로페라단 (1544-9373)

● 제11회 글로리콰이어 가족음악회 19:30 균일 1만원
 글로리콰이어(010-8544-4702)

6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솔로페라단&로마극장 공동제작 오페라 '토스카' 19:30 20만원·18만원·13만원·8만원·5만원·3만원/솔로페라단(1544-9373)

● 인코리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인코리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627-8088)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 문화회관(607-6056)

10
● 부산시립무용단 사랑나눔 송년공연 10:30 무료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의 플러스 콘서트 19:30 1만원·5천원
 금성빈(010-4248-6828)

● 연말사랑나눔콘서트 19:30
 부민여성중창단(010-8553-9541)

11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양상블 클라비어' 부산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단 하달소 제4회 정기공연 19:30 초대/육영주(010-4670-7904)

●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창단 11주년 기념공연 19:30 무료
 산·바다·해(010-3273-8184)

12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양상블 클라비어' 부산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단 하달소 제4회 정기공연 19:30 초대/육영주(010-4670-7904)

●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창단 11주년 기념공연 19:30 무료
 산·바다·해(010-3273-8184)

13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체코 보니 푸리에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17:00 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 목련합창단&마린콰이어 조인트 콘서트 17:00 초대
 마린콰이어(010-6568-2611)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17
● ● 2014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19:30 5만원·4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

● 제8회 남부산 농협 청솔 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청솔합창단 (627-6001, 010-9287-6350)

● 2014 조희정의 춤 '축제' 19:30
 균일 1만원
 정경은(010-6711-3922)

18
● ● 2014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 제1163회 MBC목요음악회 '아지무스오페라단과 함께하는 명작 오페라 갈라콘서트' 19:30 1만원·5만원
 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 2014 조희정의 춤 '축제' 20:00
 균일 1만원
 정경은(010-6711-3922)

19
● ● 2014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 Greetings from Rocio 19:00
 Rocio del sol(010-7709-2850)

20
● ●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8주년 기념 제40회 정기공연 송년 오페라 갈라 콘서트 '올댓 푸치니 올댓 오페라' 19:30 7만원·5만원·3만원·2만원
 그랜드 오페라단(853-2341)

● 토요일상설무대-양상블 마즈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24
● 새앨범 발매 기념콘서트 신영옥의 Mystique 19:30 12만원·10만원·8만원·5만원
 온지프렌즈(02-2038-2267)

● ●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 (607-3151~2)

25
● ●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 (607-3151~2)

● Tea Story in Busan 16:00
 초대/윤정미(010-5751-1099)

26
● 예그리나합창단 창단연주회 19:30
 초대/예그리나 합창단 (010-8536-1148)

● ●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 (607-3151~2)

● Art Ensemble of Busan 송년음악회 19:30 2만원·1만5천원
 최창근(010-2963-6450)

27
●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4 송년 음악회 '헨델 메시아' 17: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 ●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 (607-3151~2)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31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제야음악회 22: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전시실	국제회의장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대, 중전시실 12월 1일(월)~12월 4일(목) 동아대학교 미술학과(200-1720)	제17회 대한서화예술대전 시상식(12월 6일 13:00 국제회의장)
제17회 대한서화 예술대전-대, 중전시실 12월 6일(토)~12월 8일(월) 한국서화예술협회(342-9971)	진학사 공부법 스킬코칭과정 09:30 정선주(02-2013-0645)
제32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대, 중전시실 12월 12일(금)~12월 15일(월), 12월 17일(수)~12월 20일(토) (사)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	제34회 부산미술제-대, 중전시실 12월 22일(월)~12월 27일(토) 부산미술협회(632-2400)
제24회 국제서화예술전-대, 중전시실 12월 28일(일)~12월 30일(화) 국제교류서도협회(702-2250)	



신명나는 우리가락으로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김덕수 명인

사물놀이의 대부 김덕수 명인. 그는 우리 음악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의 정신을 알려온 이 시대 최고의 예인이다. 하루도 쉬없이 공연을 펼치며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덕수 명인이 오는 12월 23일 유난히 힘들었던 2014년의 액을 씻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송년음악회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사물놀이공연으로 4-5년 전 부산무대를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부산공연을 갖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의미 있는 송년 연주라 오랜만에 협주곡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부터 전통 예술이 융성했던 부산지역은 생활 속에서 전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연장을 찾는 부산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웠다는 김덕수 선생은 송년무대 휘날레를 장식하게 될 ‘신모듬’으로 오랜만에 해후하게 될 부산시민과의 만남에 기대가 크다.

“신모듬은 팽과리와 장구, 징, 태평소만으로 공연하던 것과 다른 서양적 화성이 가미된 협주곡이라 가야금과 팽과리의 조화, 힘찬 진동으로 기존 공연과는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임다. 신명덩어리인 이 신모듬으로 덩덕쿵, 굿거리의 신명을 즐기고 국악관현악단과의 앙상블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공연을 하면서 한 시대를 살아온 김덕수 선생은 신명 나는 우리 가락으로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대전에서 태어난 그는 부친 김문학(벽구놀이의 명인)으로부터 남사당 예인의 기질과 재능을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장구를 다루었다. 5세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열린 ‘난장’에서 남사당의 새미(어른들의 어깨를 타고 올라 맨 꼭대기에서 노는 남자 어린아이)로 데뷔, 예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959년 일곱살의 나이로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받아 일찍부터 장구의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선생은 장구, 쇠가락은 양도일, 송순갑 선생 등을 사사하고, 이후에는 김소희, 정권진, 지영희 등 민속악계의 명인들을 만나면서 음악세계를 넓혔다. 지금의 국악고등학교 전신인 국악예술고에 진학해 체계적인 국악이론과 실기를 배운 김덕수 명인은 국악예고 졸업 후 전통예술공연단체의 일원으로 전 세계 50개국 순회공연을 가졌다.

열린 공간에서의 풍물연주에 대한 제약이 많아 소극장에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1978년 ‘공간사랑’에서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과 함께 팽과리, 징, 장구, 북만으로 연



주회를 기획, 처음으로 ‘사물놀이’를 선보인 선생은 이후 국내외 공연을 통해 흥분과 감동으로 관객을 열광시키며 한국의 정신을 알려왔다.

김덕수 선생은 1995년 ‘한울림예술단’을 설립해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해 왔다. 매년 150여회의 국내외 공연을 통해 클래식 오케스트라, 무용, 재즈, 팝, 락월드 뮤직, 연극 등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전통예술의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한국적인 월드 뮤직’을 다듬고 있다. 김덕수 명인은 지금도 인류 모든 지구촌에 아름다운 예술적 신명, 기운이 공감할 수 있도록 쉬없이 도전하고 있다.

지구촌에 다양한 민속공연 예술이 있지만 사실상 경제성에 우위를 두고 있어 아쉬울 때가 많다는 그는 K-Pop은 한류의 근본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뿌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지금은 지구촌 K-Culture가 될 수 있어야죠.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수천년, 수만년 이어온 우리의 근본, 본질과 뿌리, 전통을 이어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나가야 할때죠.”

글로벌시대, 세계에서 인정한 청년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모든 장르를 초월한 우리의 문화가 꽃을 피우는 시대를 만들어야한다는 김덕수 선생. 세상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속에서 당당한 우리의 유전인자를 지키며 창조하는 것이 선생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은 생활문화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의 좋은 문화를 되찾고 잊었던 부산, 경남지역의 문화를 돌아보고 아이와 친구들과 따뜻하게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 신명난 음악으로 액을 씻고 부산 청중들과 함께 새로운 해를 열고 싶다.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장면. 프랑스군 유니폼을 입은 강제수용소의 헌병.

역사와 기억에 질문을 던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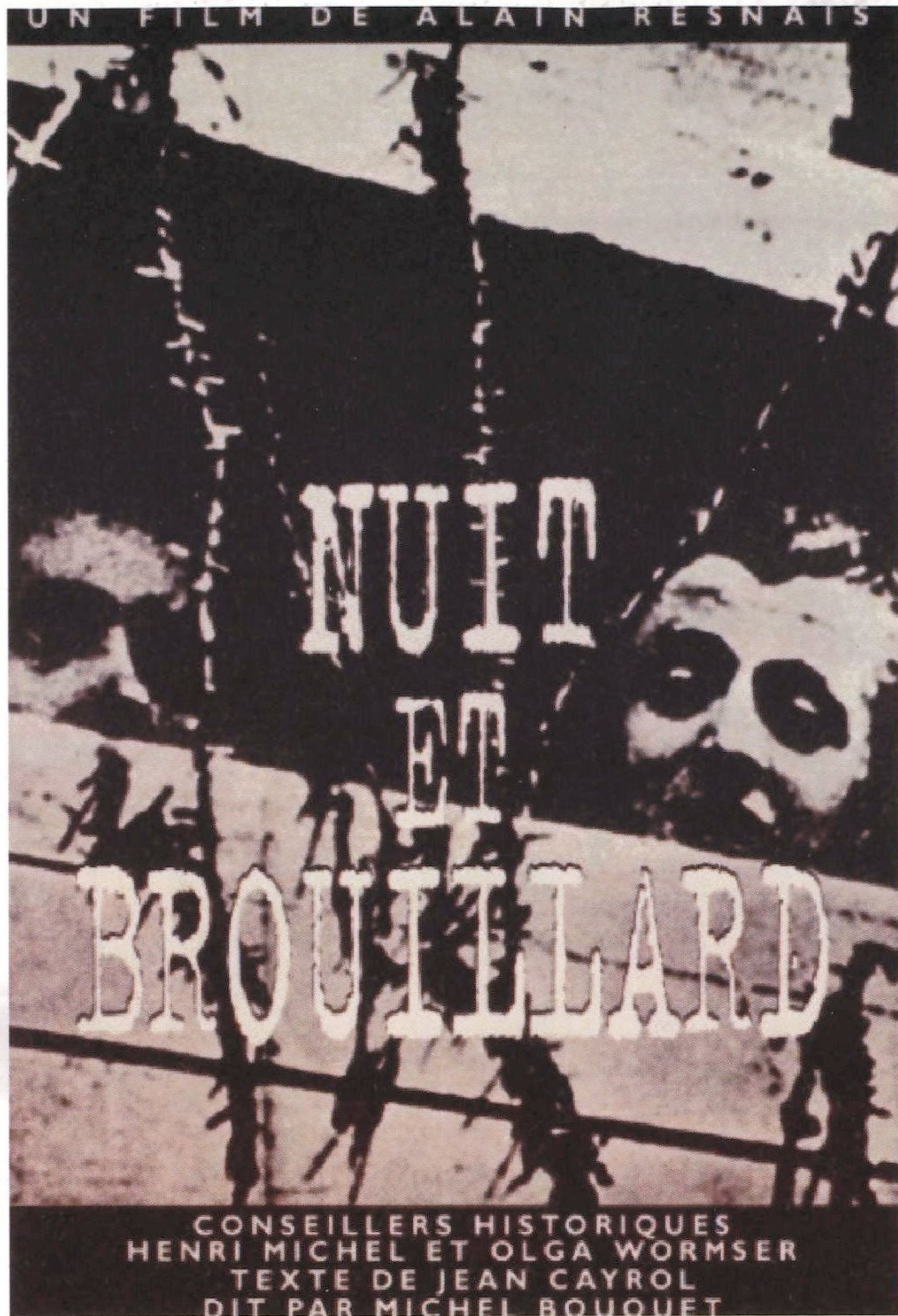
알랭 레네(Alain Resnais)

밤과 안개(Nuit et Brouillard)

올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파리에서는 종전 100주년을 맞아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두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 중의 하나인 프랑스는 역사 앞에서 늘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문화대국이라는 미명아래 전쟁의 가해자이기도 하며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는 이들을 끈질기게 반성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화두가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요즘, 우리도 전쟁의 폭력성에 유린되었던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가 있기에 새삼 먹먹해지면서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졌지만 영원히 새로운 한 영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전쟁이라는 짙은 그림자 속에 인간의 잔혹성과 그에 희생된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담은 영화 알랭 레네의 <밤과 안개(Nuit et Brouillard)>.

제목만으로는 뭔가 서정적인 노래제목일 것만 같은 이 영화는 알랭 레네가 1955년에 만든 독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다큐멘터리 제목인 '밤과 안개'는 나치의 강제수용인을 학살하기 위한 작전명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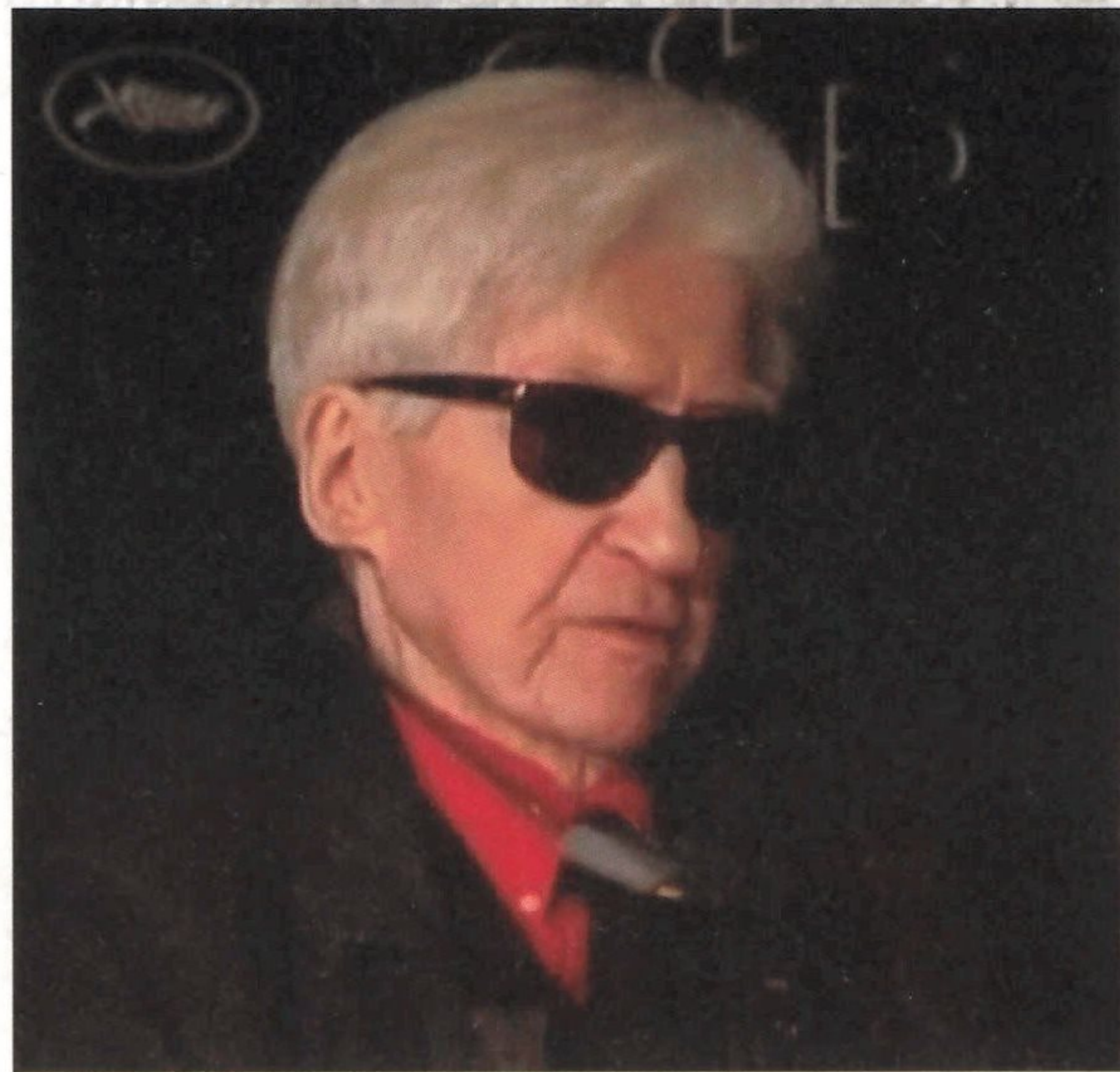
〈밤과 안개〉 영화 포스터

전쟁의 공포와 비인간적인 모습은 영화사에서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어왔지만 알랭 레네의 〈밤과 안개〉만큼 전쟁을 통한 인간의 잔인함을 민낯으로 드러내고 우리에게 망각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울리는 영화는 흔치는 않을 것이다.

올해 3월 향연 91세로 우리 곁을 떠난 알랭 레네는 배우의 꿈을 안고 영화학교를 들어갔지만 졸업 후 여러 편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차대전의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22년에 태어나 2차 세계대전 속에 청년기를 보낸 알랭 레네는 그 살육의 현장을 잊지 못한다. 우리에게겐 마그리트 뒤라스의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 〈히로시마 내 사랑〉(1959), 〈지난해 마리 앵바드에서〉(1961),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1966) 등에서 보여지는 전쟁의 혼령은 그의 초기작품에 선명하게 드러나며 이후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다.

〈밤과 안개〉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10년이 되는 1955



알랭 레네, 2012년 칸느 영화제에서
(출처 : euronews cinéma)

년, 프랑스 제 2차 세계대전 역사위원회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독일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최초의 영화이다. 알랭 레네는 역사를 정면으로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프랑스 사회에 반기를 든 것이다.

나치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시인이며 레지스탕스였던 장 카이롤(Jean Cayrol)이 시나리오와 나레이션 작업에 동참하면서 이 영화는 정제됐지만 진실된 목소리를 전하게 된다. 그들은 이 작품이 통상적인 역사물이 되기를 거부하며 지난 역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들 속에서 살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밤과 안개〉는 영화속에 보여진 나치 수용소의 프랑스인 경비대원의 모습은 검열의 가위질을 당하고 칸느영화제에 출품자격도 박탈당하는¹⁾ 수모를 겪지만 개봉 후 각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남게 된다. 이 영화는 전쟁당시의 흑백 기록화면과 사진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강제수용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 속의 그 공간을 찾아 촬영한 칼라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차편집된 과거의 고정된 흑백화면과 트래블링으로 담은 현재의 칼라화면들은 대조를 이루면서 전쟁의 흔적이 망각 속으로 잠식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며 미래형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작가는 생존자나 관련자들의 비장한 인터뷰는 배제하고 미셸 부케(Michel Bouquet)의 아주 절제된 음성의 나레이션을 통해 수용소의 생활과 그때의 실상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특히 'on(우리)²⁾'라는 시점의 나레이션과 '유대인'이라는 말 대신 '강제수용인(déporté)'이라는 호칭으로 수용소 생활을 증언하며 특정화된 한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이야기 방식은 마치 우리가 실제 그 때의,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영화는 철저하게 강제수용자의 시각으로 지난 시간을 환기시키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날의 강제수용소를 보여주는 칼라영상 또한 카메라가 그들의 시선이 되어, 마치 직접 수용소로 들어가는 듯한 시점으로 그려내면서 관객 자신이 한 사람의 수용자가 된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밤과 안개'는 32분이라는 짧은 시간속에 6여년에 걸친 나치 수용소의 만행을 응축시켜낸다. 독일 나치의 모습으로 부터 전쟁의 시작과 함께 유대인들이 수감되는 과정, 수용소 안의

일상의 모습, 그리고 학살장의 건설 과정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정교하고 선별된 당시의 자료화면으로 시대를 뛰어넘은, 폭력과 학살이 난무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때로는 번호로 매겨진 벌거벗은 강제수용인들의 사진, 기아로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시체더미 등 끔찍한 학살 현장의 자료화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현재 이 폐허 위에 남아있는 수용소 건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그 잔혹함이 더 다가오게 만든다. 이를테면 이미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진 시체소각장 벽의 굵은 손톱자국들을 따라가는 카메라를 통해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더 극명하게 느끼게 해준다. 또한 수북하게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안경들, 머리빗 그리고 여인들의 머리카락 더미는 그 어떤 살육장면 보다는 더 강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밤과 안개〉는 감성에 호소하는 우리의 어설픈 휴머니즘에 비판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 ① 평범하게만 보이는 들판의 전경에서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오면 더 이상 위협적인 전기가 흐르지는 않지만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충분한 철조망 앞에 우리의 시선은 멈추게 된다.
- ②, ③ 현재는 잔흔만 남은 숙소.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극적효과가 커진다.
- ④ 독일 나치의 인권유린의 현장.
- ⑤ Nacht und Nebel(밤과 안개), 수감복에 찍힌 낙인.
- ⑥ 지금도 남아있는 시체소각장.

끔찍한 대학살의 장면들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므로써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바로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으며 망각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어두운 밤, 강제수용인을 뺨뺨하게 태우고 안개속을 달려 오는 기차의 모습을 담은 흑백화면에 이어서 현재, 폐허 속의 한적한 기차선로 위를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나오는 나레이션은 섬뜩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오늘 날 그때와 같은 선로 위, 날이 밝고 태양이 떠오른다>.

<밤과 안개>에서 보여지는 뉴스릴 속의 나치 전범들은 주장한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감독은 나레이터를 통해 묻는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알랭 레네는 인종대학살의 역사적 대참상은 그들을 외면하고 방관했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은 있다고, 그리고 이를 망각하

게 된다면 또 다른 폭력의 희생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나레이션은 무거운 공명을 남긴다.

“이제 우리는 곧 구백만의 죽음을 잇을 것이다. 이것은 한 때에만,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싶어하는 우리, 주위를 둘러 볼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 그리고 끊임없는 절규를 듣지 않는 우리”.

반세기가 훨씬 지난 후인 지금도 우리에게 <밤과 안개>는 아직도 유효한,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다시 불러 우리의 기억을 재생산해 낸다.

1) 당시 식민지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이 장면은 '비시정권'의 나치 협력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했다.

2) 불어에서 'on'은 인간, 사람들, 우리들, 그들 등 문맥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쓰인다.

셰익스피어 문제극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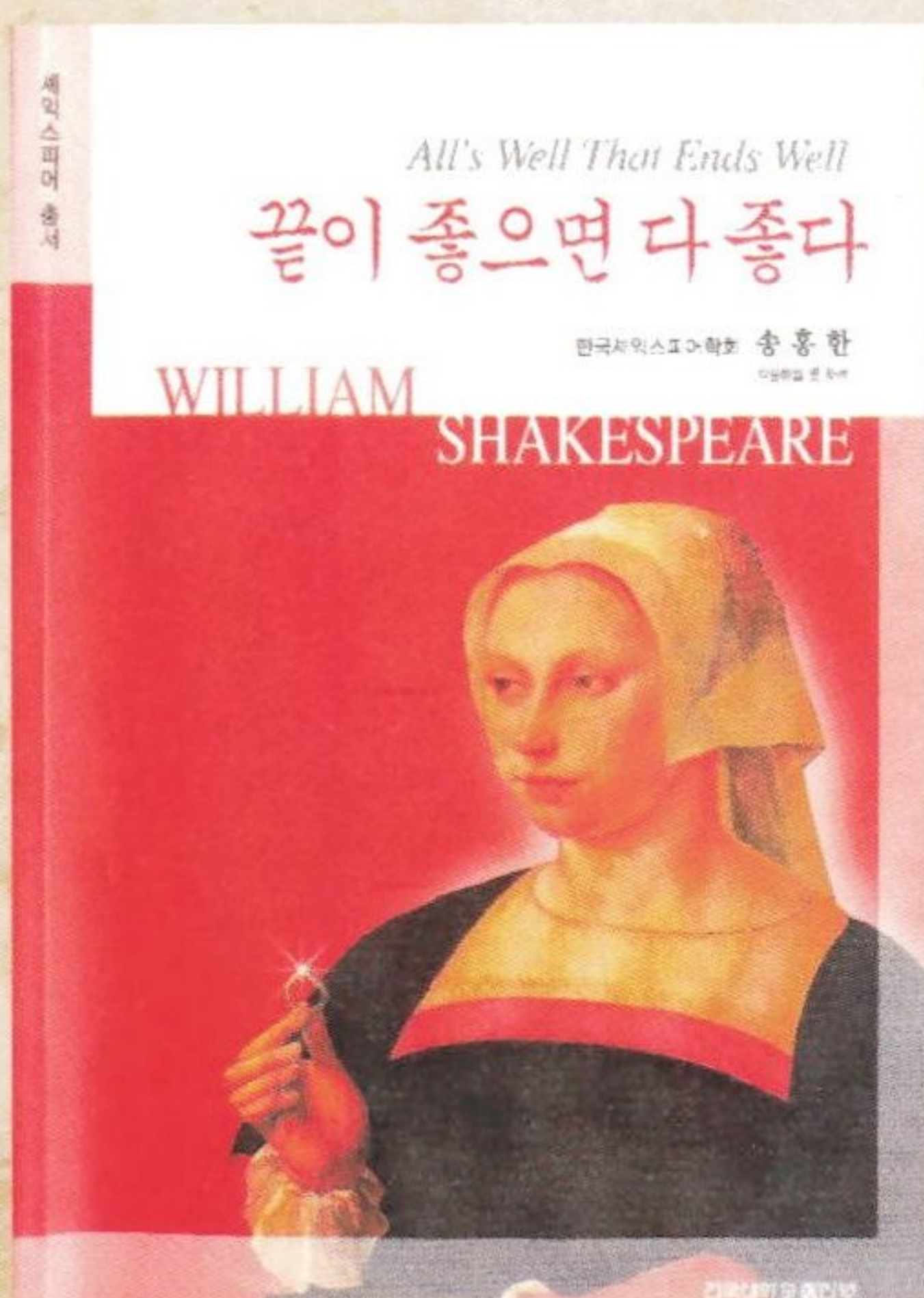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은 주로 그의 세 작품들, 즉 <끝이 좋으면 다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 <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 및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Troilus and Cressida)를 가리킨다. 물론, <겨울 이야기>(Winter's Tale), <아테네의 타이몬>(Timon of Athens),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Merchant of Venice)까지 문제극의 부류에 넣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세 작품을 문제극이라고 부른다. 문제극이란 장르의 명칭은 셰익스피어 당대의 용어가 아니라 19세기에 들어 예술계의 리얼리즘 운동의 일부로서 등장한 극의 한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시기의 문제극은 등장인물들이 사회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19세기 말, 보아스(F. S. Boas)가 문제극이라는 용어를 셰익스피어의 특정 극작품들에 적용하면서부터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이라는 장르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오늘날 <햄릿>(Hamlet)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정받는 대표적인 비극작품이지만, 보아스는 <햄릿>이 엄격한 의미의 비극인 다른 비극작품들과 문제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가 1600년, <햄릿>이 1601년, <오셀로>와 <끝이 좋으면 다 좋다>와 <자는 자로>가 같은 해인 1604년, <리어왕>과 <맥베스>가 1606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작품들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세 작품들이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릭 입센(Henrick Ibsen)의 문제극과 비슷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여 문제극으로 분류하였다. 입센의 문제극은 등장인물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어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영향을 입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극작품 역시 문제극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에서 주인공은 사회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계락을 꾸미거나 생명을 건 모험을 하는데, 작품이 끝나갈 즈음에야 갈등이 해결된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는다. 설령 주인공이 해피엔딩이라고 선언하는 경우에도 뭔가 후련하지 않은 결말이다. 문제극의 문제해결이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19세기 이전까지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은 희극과 비극의 중간쯤에 처한, 희극도 비극도 아닌 애매한 부류의 작품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첫 번째 2절판에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와 <자는 자로>는 희극으로,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는 비극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이 극작품들을 놓고 희극이냐 비극이냐 하는 장르 구분을 저울질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은 희극적인 결말로 끝나든가 적어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나 <자는 자로>는 갈등이 마지막 막(Act)에 겨우 해결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를 놓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식으로 보면 희극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해피엔딩조차 해결과정이너무 상식에서 어긋나고 다소 비윤리적으로까지 보이는 과정을 거치므로 극을 관람하는 관객이나 읽는 독자의 기분이 개운치만은 않다. 이 두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대표적인 비극작품들을 쓰고 있던 시기에 쓰였는데, 이는 희극적 관점과 비극적 관점이 작가의 정신 속에 혼재하는 시기에 쓰였음을 말해준다. 결말에 갈등이 해결되긴 하지만, 주인공들의 죄와 죄책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극들은 ‘어두운 희극’(dark comedies)이라고도 불린다.



셰익스피어 중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의 주해서 표지(송홍한 해설 및 주석)



1789년 안젤리카 카우프만이 그린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의 한 장면

초기에 주로 쓰였던 낭만희극에도 어느 정도 갈등이 있고 비극적인 요소가 극복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극은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어둡고 곱끄러운 요소들이 희극적 분위기를 짓누르고 마지막 해피엔딩마저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더구나,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의 경우는 처음부터 비극으로 분류되었을 정도로 비극성이 강하여 그 결말조차 도저히 희극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과정은 물론 결과를 놓고 보아도 갈등이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피 엔딩도 아니다. 문제극의 공통된 분위기는 마치 격투싸움에서 이기긴 이겼으나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반칙에 가까운 플레이도 하고 많은 피도 흘리고 상처까지 입은 선수의 허탈감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비극적인 현실과 단순하고 직설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 요소가 뒤엉켜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마지막에 겨우 빠져나오는 형국이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문제극, <끝이 좋으면 다 좋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망한 의사의 고아로 남겨진 헬레나는 그녀의 후견인 루실런 백작 부인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부인의 아들 버트람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어 괴로워하고 연모할 뿐이다. 아버지가 남겨준 비방으로 그녀는 왕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그 대가로 버트람과의 결혼을 허락받아 결혼까지 하지만, 버트람은 신분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대대로 물려받은 반지와 아들을 낳지 않는 한, 아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전쟁터로 도망간다. 헬레나는 버트람의 뒤를 쫓아가서 그가 유혹하고 있는 다이애나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다이애나를 대신하여 잠자리에 드는 '잠자리 속임수(bed trick)'를 통해 반지도 교환하고 임신도 한다. 마지막으로,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헬레나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버트람은 왕 앞에서 귀족 래퓨의 딸과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이애나와 헬레나가 나타나서 모든 비밀이 벗겨진다. 헬레나가 버트람이 제시했던, 그의 진정한 아내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그는 충실한 남편으로서 그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헬레나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역시 결말이 왕관이지(All's well that ends well; still the fine's the crown)”라며 자축한다. 그러나 해결 과정에서 사용된 잠자리 속임수는 관객이나 독자의 반응을 엿갈리게 한다. 헬

레나와 버트람의 부부관계는 사실상의 부부관계이므로 합법적인 행동이지만, 의도에 있어서는 헬레나에게 합법적이지만 버트람에게는 불법적이고, 양자 모두에게 부부관계이므로 죄가 되진 않지만, 버트람은 혼외정사로 알고 범한 것이니 죄를 짓는 셈이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문제해결 방식을 놓고 관객이나 독자의 반응은 엿갈릴 수밖에 없다. 헬레나는 잔 다르크 같은 사회적 혁명가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며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는 여성이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헬레나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은 장르상으로 보면, 희극이나 비극이나 로맨스 어느 장르에도 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극이다. 또한 내용상으로 보면, 주인공이 도저히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극이다. 이런 문제극의 주인공들은 사회적 혁명가는 아니지만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목적인 바를 이루어낸다는 점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러한 수용력과 도전정신과 창의성에 공감하며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의 낭만 희극에서 찾을 수 없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은 희비극적 특성을 보여주지만, 주인공들이 처한 사회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과정을 지켜보며 희로애락을 함께 한 관객이나 독자에게는 희극이 될 수 있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인제 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잃어버린 옥상을 찾아서...

- 범천동 O+A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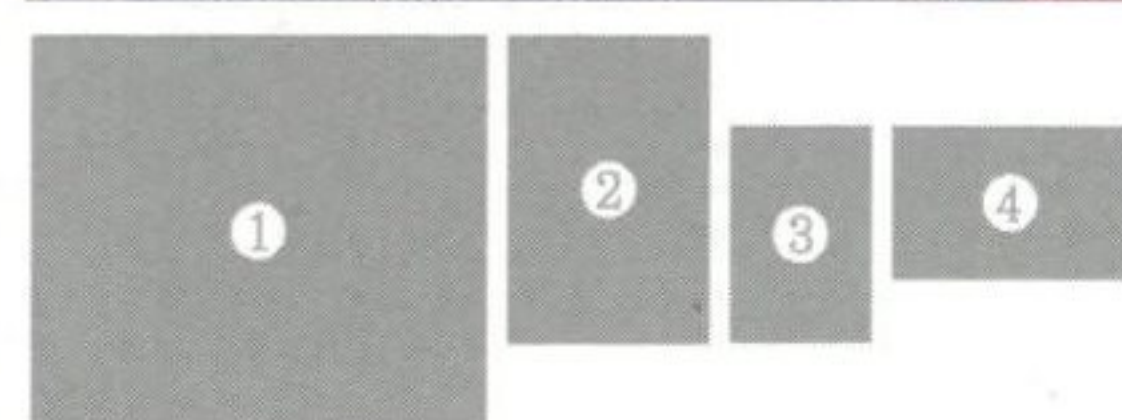
범천동은 부산진구의 남쪽 끝에, 동쪽은 전포동과 부전동, 서쪽은 가야동, 북쪽은 당감동과 전포동, 남쪽은 동구 범일동과 접해 있다. 범천동의 지명은 범내 [凡川]에서 유래한다. 범내는 증산(龜山)에 인접한 산들의 산세가 험하고 산림이 울창하여 호랑이가 서식하였는데, 이 하천 주위로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였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위로는 6·25전쟁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자연마을인 '안창마을'이, 아래로는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평화시장과 자유시장이 있다. 범천[凡川]은 문현동과 자성대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으로서 동천(東川)이라고도 하는데, 부산진성(釜山鎭城)의 지성(支城)인 자성대 쪽에서 볼 때 성의 동편으로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부산의 대표적 재래봉관이었던 '삼일극장'과 '삼성극장'은 도로의 확장과 함께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노무자의 쉼터였던 '보림극장'은 조그마한 마트로 바뀐 지 오래다. 중앙동에서 타고 올라온 중앙대로는 예전 보림극장 우측의 '범곡교차로'에서 서면으로, 가야로, 안창마을로 이어지다 산복도로를 타며 민주공원을 거쳐 대신동으로 흐른다.

건축으로 투영되는 비정형 대지

도심의 이정표 같은 범곡교차로의 한쪽에 자리한 'O+A 빌딩'은 구도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정형 대지에 지어졌다. 현대도시가 갖는 방형의 대지가 아닌, 재산의 변화와 도시 가로망의 변화에서 오는 흔적을 보여주는 대지이다. 앞으로 흐르는 교차로의 모습은 도시의 표면적 얼굴로, 사이로 흐르는 작은 도로와 골목들은 우리 삶의 이면을 보여준다. 대지의 비정형적인 형태는 건축으로 투영되며 비정형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저층부를 흐르는 노출콘크리트의 매스(건축의 덩어리)는 안정감을 더하며 1~3층을 구성하고 있고, 4, 5층 백색의 테라코트는 도시의 문화를 담듯 도시를 은유하고 있다. 1층의 카페를 왼쪽으로 두고 흐르는 계단은 단순한 수직 동선의 기능에서 확장되어 산동네의 골목을 은유하듯 대지를 따라 옥상까지 흐른다. 2, 3층의 사무실은 임대를 위한 공간으로 굳어지지 않는 평면으로 골목의 한 편에 자리한 단칸의 집과 같다.

문화의 품은 옥상

4층과 5층은 건축주의 공간이자, 작가들의 사랑방이다. 전시장이 되기도, 작업공간이 되기도,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중층으로 이루어진 4층은 5층을 다락같이 이고 있고, 5층에서 이어진 옥상은 물탱크가 올라가고, 창고가 올라 있



① 다시 찾은 옥상 마당 ©윤준환
 ② '새집에 보따리를 풀다' ©강기표
 ③ 계단에서 도심으로 ©윤준환
 ④ 전경 ©윤준환

는 기능적 옥상이 아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계단은 공연장의 좌석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의 마당이 되기도 한다. 옥상 벽체에 정사각형으로 뚫린 개구부는 범천동 정다운 산동네 전경을 담기도 하고, 문현동 초고층 빌딩을 담기도 한다. 4, 5층이 사랑방이라면 옥상은 '사랑방 앞의 마당'과도 같다. 전통 주택에서의 마당이 단순한 작업공간에서 확장되어 가족의 희로애락을 담는 마당이었던 O+A 빌딩은 도시에서 잃어버린 마당을 옥상에서 찾고 있다. 옥상에서는 야외전시도 할 수 있고, 모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공연을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옛 마당이 그러했듯이...

집들이

문화예술기획자이자 건축주인 최은석¹⁾과 설계자인 오신욱²⁾ 건축가는 지난 6월 집들이를 하였다. 새집을 단순히 보여주는 집들이(오픈 하우스)에서 벗어나, 새집을 구경하며 예술가들의 작품도 구경하는 콜라보레이션(협업)으로 기획하고, 18명의 작가들이 모여 '새집에 보따리를 풀다'³⁾라는 기획 전시를 하였다. 4, 5층이 갖고 있는 사랑방은 갤러리로 바뀌고, 옥상은 행사와 모임, 답소의 장소로 새로운 옥상 문화를 보여 주었다. 건축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집은 우리의 삶을 담고, 학교는 학교 문화를 담고, 사무소 건축은 그 기업의 문화를 담는다. O+A 빌딩과 같은 소규모 상가 건물은

대부분 임대 수익의 목적을 갖고 지어진다. 문화보다는 경제에 중점을 둔다. 건축주의 문화에 대한 해안과 이를 구체화시킨 건축가의 협업에서 나온 O+A 빌딩이 소규모 건축의 모범 답안으로 귀결되길 바란다.

1) 최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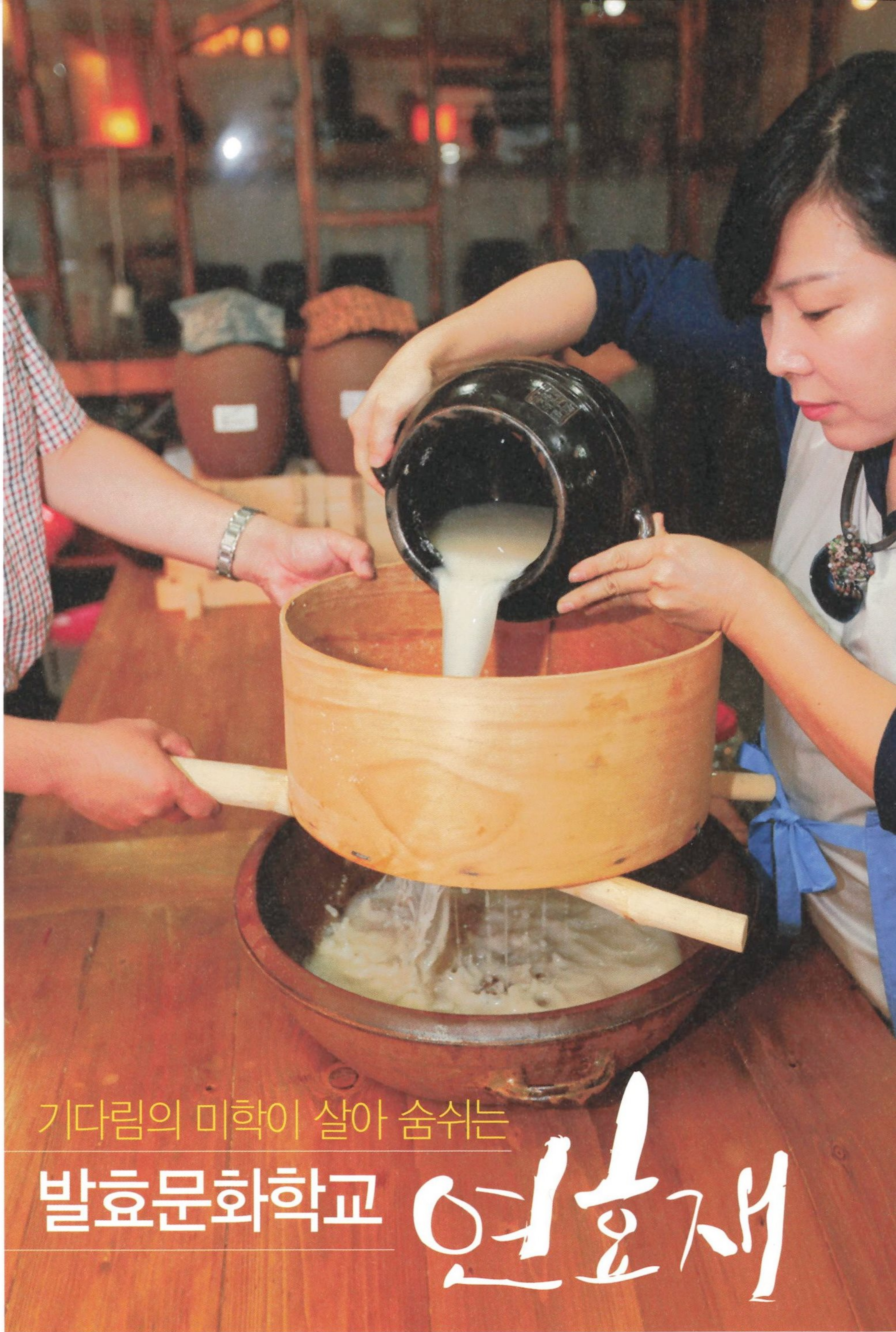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연출을, 동대학원에서 연극학을 전공하고, 현재 (주)디아텍 대표이사로 있다. 기돈크레머, 레온 플라이셔, 데이비드 헬프갓, 임동혁 등 음악가의 공연기획을, 언버벌퍼포먼스 '점프' 부산상설공연, '난타' 부산공연, '쇼태권' 등을 기획하였고, 아시아소극장네트워크(Little Asia), 박정자의 '19 그리고 80' 등 연극 기획을, UNESCO 사진전 등 전시기획을, 문화예술정보지 '예노' 창간 기획을 하였다. 해외에서는 Cebit Asia(중국, 상해), 하이테크엑스포(중국, 북경) 등을 기획하였다.

2) 오신욱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건축설계과정에서 스키마(schema)의 의미와 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건축가 노정민과 라움(Raum)을 설립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마스터플랜 현상설계에 당선되었고, S1, 청도어린이 도서관, 반쪽집, 아이누리 아트센터, 마로인 사옥, 아트스페이스 라움 등 다수의 작업을 하였다. 타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공간실험을 병행하며, 현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로, 2013년 부산 신인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3) '새집에 보따리를 풀다'의 참여 작가

김경화, 김대홍, 김민정, 김성철, 박은생, 박자현, 박재현, 방정아, 심점환, 안재국, 윤필남, 이동근, 이선경, 이육상, 이윤주, 이인미, 정지영, 하성봉



기다림의 미학이 살아 숨쉬는

발효문화학교 연효재

“

도시철도 2호선 문전역 4번 출구로 나르면 독특한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연효재/한국술과 발효테라피'. '연효재'는 우리의 전통 발효문화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문화공간이다.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 덕분에 최근에는 부산 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특히 팸투어를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발효를 통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필수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발효문화공간 '연효재'는 지금 대표로 있는 김단아 씨가 지난 2009년 문을 연 수제비누 공방에서 출발했다. 막걸리 발효성분을 이용한 수제비누를 만들다 발효의 매력에 빠지게 된 김단아 씨가 2012년 아예 발효를 테마로 한 '연효재'를 열었다. 김단아 씨의 호(號)이자 '천연 발효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연효재'는 우리의 전통 발효문화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연효재'에서는 발효 테라피 클래스를 비롯해 막걸리학교, 어린이 과학 발효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발효문화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생활에 접목시



켜 건강을 추구하는 ‘발효 테라피 클래스’는 7주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발효의 기초에서부터 효소발효, 유산발효, 알콜발효, 초산발효 등 다양한 발효과정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우리술훈련기관인 막걸리학교 부산분교로, 1년에 4차례 정도 10주 과정의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9일 부산막걸리학교 개강을 앞두고 현재 6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발효와 과학의 접목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어린이 과학 발효체험 프로그램에는 고추장과 견과류 쌈장, 천연피클, 막걸리 발효빵, 건강 초두부, 치즈, 쌀음료, 발효김치 등 발효체험을 통한 맛있는 먹거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막걸리나 식초는 발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연효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막걸리팩 같은 화장품이나 입욕제를 만드는 체험을 주로 합니다."

또, 김단아 씨는 연효재 인근에 ‘누비엔’을 운영하고 있다. ‘누비엔’은 수제공방 시절부터 만들어온 비누, 향초, 입욕제, 발

표팩 등 직접 빚은 막걸리와 천연재료에 자연발효를 더한 발효 수제 미용 전문브랜드로이다. ‘누비엔’은 상품을 담은 패키지에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 동백꽃, 해운대 파라솔, 동래학춤 등 디자인을 활용하면서 부산지역 관광상품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단아 씨는 ‘누비엔’을 프랑스의 ‘록시땅’이나 영국의 ‘리쉬’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

‘연효재’의 이런 노력들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공모전에서 연효재는 우리의 전통 발효공법을 식품에서 미용, 관광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1년 남양주시에서 열린 세계유기농대회에 참가했을 때, 방글라데시아에서 오신 분이 저희 비누를 대량 구입하시더라고요. 어디에 필요할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분이 그리시더라고요, 내가 사는 건 비누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최근 들어 관광의 목적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보거나, 맛을 보면서 문화를 체험하는, 이른바 음식과 문화가 결합된 ‘컬리너리 투어(Culinary Tour)’가 각광을 받으면서 연효재 역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김단아 씨는 전통 발효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 나아가 ‘발효’라는 테마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문의_발효문화학교 연효재 636-9355, nuvin.blog.me



시니어 세대들의 희망을 노래하는 예그리나 합창단

“ 사랑하는 우리 사이”를 뜻하는 아름다운 순 우리말 ‘예그리나’. 오는 12월 26일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예그리나합창단’은 그 이름처럼 삶과 사랑,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우리들이 ‘합창’으로 하나 되어 창단한 시니어합창단이다.

가장 어린(?) 단원인 53세 박정순 회원부터 82세 권용주 회원까지 현재 예그리나합창단 단원은 모두 51명. 대학교수에서부터 교사, 유치원 원장, 사업가, 공무원, 시인, 수필가, 사진작가, 주부들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회원들이 ‘음악’을 매개로 매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올해 창단연주회를 가지는 예그리나합창단은 지난 2011년 7월 첫발을 내딛었다. 노래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뛰어난 실력으로 창단 1년도 안돼 제8회 휘센합창페스티벌 영남지역 본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열린 제8회 휘센 합창페스티벌 전국결선대회에서는 장려상, 지난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전국환경노래대회에서는 은상을 수상했다. 전국환경노래대회는 올해 17회 대회때도 참가, 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10월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2014 전국골든에이지 합창대회에는 부산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2년 10월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전국청소년합창대회 특별출연을 시작으로 제25회 부산합창제, 제3회 독도의 날 기념축제에 참가한 예그리나합창단은 올해 10월 제1161회 MBC 목요일음악회에 초청받아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은 예그리나합창단의 연습이 있는 날이다. 단원들은 대연동 경성대학교

인근 대영빌딩 11층에 자리한 전용연습공간인 시몬홀에서 매주 화음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시몬홀은 예그리나합창단 단원들의 열정에 공감한 부단장 이영해 씨 가족이 흔쾌히 장소를 제공하면서 탄생된 공간이다.

예그리나는 비록 아마추어들이지만 실력있는 전문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초 삼고초려 끝에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오세종 씨를 지휘자로 영입, 합창단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시니어합창단인 예그리나합창단과의 만남은 저로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들이 빚어내는 화음 속에는 음악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단원들 개개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연륜이 묻어 나옵니다.”

그 결실로 첫 창단연주회가 오는 12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에서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합창무대와 단원들이 직접 연주하는 색소폰, 아코디언, 단소 연주 등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잎이나 꽃을 떨근 후에도 의연한 나무처럼 아름답고 격조있는 노년을 꿈꾸는 예그리나합창단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에는 월요사랑방을 개설, 해설이 있는 음악감상회를 비롯 인문학 강

좌, 고전음악감상회, 시 낭송회,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월요사랑방은 단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사랑받으면서 매주 30~40여명이 즐겨 찾고 있다. 또, 합창단 활동 뿐 아니라 연주회,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유적지 탐방과 명승지 답사 등 다채로운 여가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고 있다,

“노년에 음악이 있어 행복하기만 합니다. 지금의 제 삶에 있어 모든 우선순위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활동이야 말로 힐링’이라는 이영해 부단장은 예그리나합창단 온라인 카페지기로도 활동하며 합창단에 대한 무한 애정, 사랑을 전하고 있다.

현재 예그리나합창단 단무장으로 활동중인 황광주 씨.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속에서 합창 만큼은 최고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는 그는 특히 “예그리나합창단이 시니어 세대들의 희망을 노래하는 전국 최고의 시니어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예그리나합창단은 50대 이상 시니어로 노래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합창단 단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입단을 원하는 남성단원들은 언제나 환영이다.

문의_예그리나합창단 cafe.daum.net/yegrinachorus



생태계의 보고로 다시 태어난 합천 정양늪 생명길 탐방

16년만에 찾아온 수능한파의 추위가 채 가시기 전인 지난 11월 14일,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합천으로 제 104번째 테마여행을 떠났다.

11월 테마여행지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합천 정양늪. 최근 생태계의 보고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정양늪은 우포늪에 이은 생태탐방지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번 합천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김태훈 씨가 동행해 회원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한반도 고유종인 모래주사 등 현재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4가지 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 정양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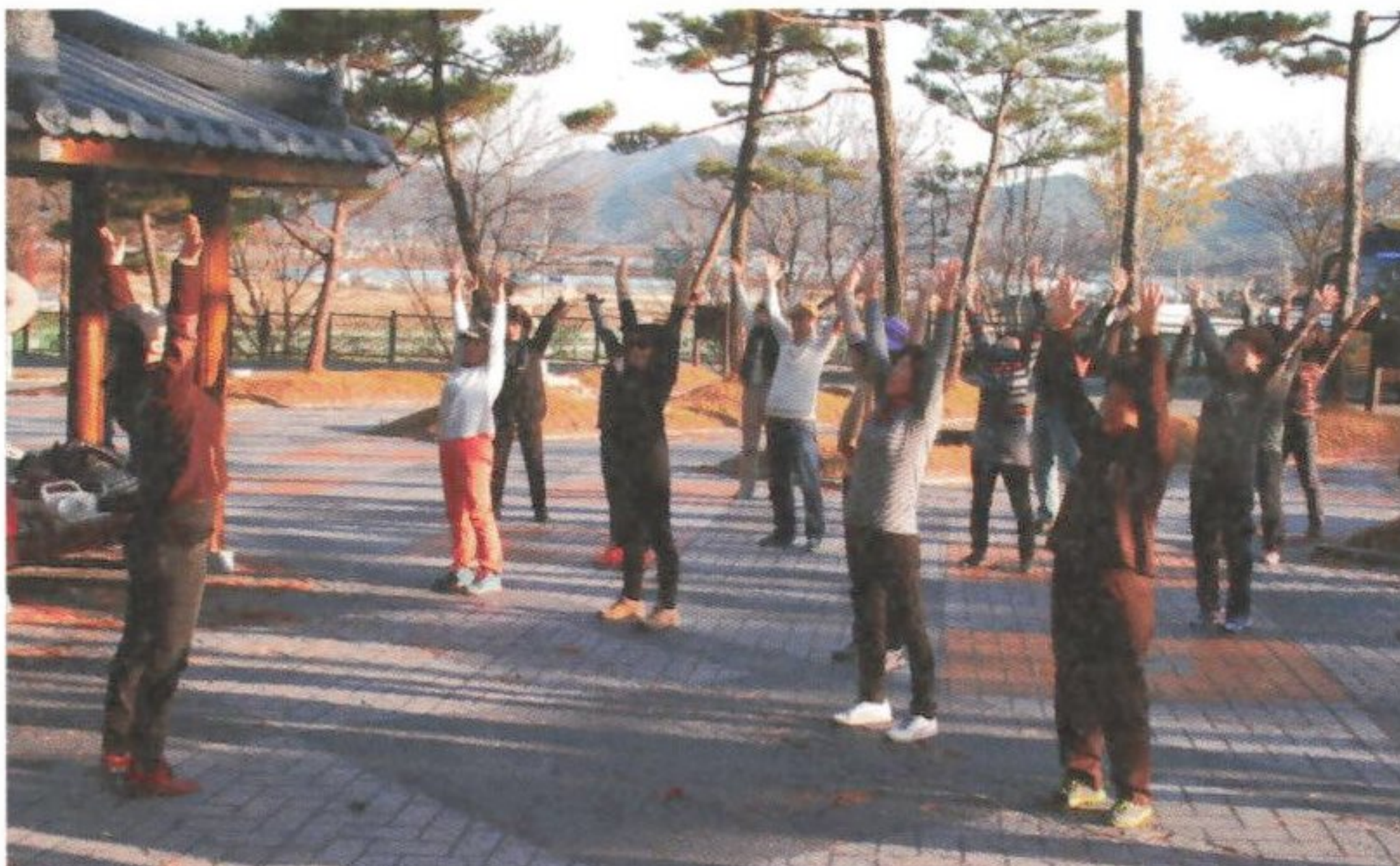
오전 8시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 버스는 2시간 30분여를 달려 첫 방문지인 정양늪에 도착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전 후빙기 후 해수면의 상승과 낙동강 본류의 퇴적으로 생겨난 정양늪은 황강 지류 아천천의 배후 습지로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동, 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최근 황강의 수량과 수위 감소로 육지화가 가속화되어 한 때 최대 100ha에 이르렀던 면적은 40여ha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인위적인 매립으로 수질악화가 가속되어 습지로서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자 합천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양늪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어주는 생명의 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3.2Km 주변 탐방로에 생명길을 조성, 나무데크와 황토흙길을 갖추면서 탐방객들은 늪 주변을 한바퀴 돌며 갖가지 생태체험과 늪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봄이면 내버들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수중데크가 탐방객을 유혹하고, 여름이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는 가시연, 수련, 어리연, 남개연, 자라풀, 물옥잠 등 수생식물들이 탐방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가을이면 갈대와 부들이 늪 주변을 감싸고 겨울이면 큰고니, 큰기러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쇠물닭 등 철새들의 날개짓이 장관을 이룬다.

“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인 말뚝가리를 비롯해 겨울철새인 큰 기러기, 참개구리와 비슷하나 등 옆선을 이루는 두 줄의 윙기가 금색으로 현저하게 돌출되어 있어 이름부쳐진 금개구리, 그리고 잉어과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종인 모래주사 등 현재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4가지 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정양늪 생명길을 걸어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모처럼 자연이 주는 여유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정양늪 탐방을 마치고 다음 일정에 앞서 진한 갈비탕으로 추위에 언 몸을 녹인 회원 가족들은 오후 첫 방문지인 교육농장 ‘하늘땅별땅’으로 자리를 옮겼다. 농촌진흥청



12월 테마여행 당첨자

기존 회원

김나연(금정구 부곡로)
 김경희(부산진구 국악로)
 김미선(영도구 비나리길)
 김순영(기장군 차성로)
 남정순(서구 구덕로)
 박광진(남구 수영로)
 이화진(수영구 연수로)
 이효정(수영구 수영로)
 조민희(남구 유엔로)
 최혜영(남구 유엔로)

신규 가입

고정희(금정구 개좌로)
 김학준(수영구 수영로)
 남영해(해운대구 마린시티)
 노민주(사상구 사상로)
 민선애(남구 흥곡로)
 박상욱(동구 범일로)
 정혜진(남구 이기대공원로)
 주은애(중구 중앙대로)
 최영수(동래구 안남로)
 하예진(북구 산성로)

에서 지정한 딸기체험 교육농장인 '하늘땅별땅'은 10년 전 귀농한 젊은 부부가 친환경 농법으로 딸기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딸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원들이 체험한 프로그램은 딸기비누와 딸기화분 만들기. 왁자지껄 체험 한시간만에 모양도 색상도 이쁜 천연비누와 싱싱한 딸기모종을 옮겨심은 딸기화분이 만들어졌다. '딸기'로 즉흥 2행시도 짓고 상품으로 탐스럽게 익은 호박도 선물로 받았다.

합천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합천의 역사를 배워볼 수 있는 합천박물관. 합천박물관 본관인 다라문화실과 다라역사실에서는 가야시대 소국(小國)인 다라국의 지배자 모역으로 알려진 옥전고분군의 출토유물을 만날 수 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용봉문 양고리자루큰칼과 금제귀걸이를 비롯해 각종 장신구 등 다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 35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때마침 기획전시실에서는 합천박물관 개관 10주년, 옥전고분군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30년 만의 해후, 옥전(玉田)'이 열리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발굴조사가 끝난 후 경상대학교 수장고에 보관된 채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굽다리접시, 항아리, 그릇받침 등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그릇 종류와 목걸이, 금제 귀걸이 등 장신구류 등 옥전고분군 출토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박물관을 모두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 박물관 앞 광장에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씨의 지도로 강강술래 춤사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회원들은 추위에 움츠렸던 몸을 우리 춤 체조로 간단히 풀 후 두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한바탕 강강술래를 펼쳤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늦가을 정취로 가득했던 합천 여행은 오랫동안 정기회원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후원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Culture Life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0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 58 새로 나온 음반
- 59 새로 나온 책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탈리아 로마 오페라극장, 솔오페라단 공동제작 오페라 푸치니 '토스카'



이탈리아 로마 오페라극장과 솔오페라단이 공동 제작한 푸치니 3대 걸작 오페라 '토스카'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지는 세 남녀의 사랑과 질투, 죽음을 그린 '토스카'는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리앙 사르두가 1800년대 격변하는 로마의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쓴 희곡 '라 토스카'를 푸치니가 오페라로 만든 작품이다. 극의 짜임새와 음악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끊임없이 긴장감을 끌고 가는 이 작품은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라 불린다.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함께 '오묘한 조화'와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유명 아리아는 극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1900년 1월 14일 푸치니가 토스카를 초연했던 로마오페라극장과 솔오페라단에 의해 재탄생된 화제작으로 음악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데안 사빅, 연출가 잔도메니코 바카리, 예술감독 디노 데 팔마와의 앙상블, 독창적인 무대 디자이너 파올로 톰마씨, 전통을 자랑하는 로마극장의 수석 디자이너 안나 비아조티의 의상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작품의 역사적인 배경 뿐만 아니라 극적인 사실감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로마의 명소인 성 안드레아 성당, 파르네제궁, 산타안젤로성의 건축 양식과 벽화, 조각상 등 그 당시의 배경을 그대로 옮겨내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주역 토스카로는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주요 레퍼토리를 모두 섭렵하며 매력을 뽐내는 매혹적인 소프라노 루이젤라 데 피에트로와 부산이 낳은 보석같은 소프라노 김 유섬이 더블 캐스팅되어 개성 넘치는 토스카를 선보이고, 토스카의 사랑을 받는 카바라도시에는 2003년 보체 푸치니 'Chiara Fontana'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

면서 G.Meyerbeer의 오페라 '위그노의 교도들'과 '장미기사'로 데뷔한 이래 비평가와 음악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테너 레오나르도 그라메냐(Leonardo Gramagna),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테너 김지호가 열연한다. 연적인 스카르피아에는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 티토 곱비 국제콩쿠르,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으로 '최고의 신인 바리톤상'을 수상한 엘리아 파비안,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 연기로 관중을 압도하는 한국 최고의 바리톤 박대용이 열연한다. 그외 안젤로티에는 세계적인 극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상급 베이스 스테파노 리날디 밀리아니, 사그레스타노에는 손과 목소리로 모두 연주하는 주목할 만한 차세대 베이스 주자 마테오 다폴리토가, 스폴레타에는 세계 주요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부적인 테너 눈찌오 파찌니가 열연한다.

일 시 | 12월 5일-7일 금-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5: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0만원, S석 18만원, A석 13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D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솔오페라단 공연 기획팀 1544-9373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 최정상의 소년합창단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최정상 소년합창단인 체코의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2월 13일 부산을 찾는다.

1982년 창단된 보니푸에리(Boni Pueri) 소년합창단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2,5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친 정상급 합창단이다. 세계 굴지의 음악사인 EM, BMG, Supraphon 등과 20여장의 컴필레이션 음반 작업을 함께 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보니푸에리는 세계 유수의 음악축제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전 세계에 보니푸에리의 이름과 체코를 알려왔다. 보니푸에리는 특히 로마 교황청이 체코 정부와의 교류 20주년을 기념하여 판테온에서 가진 행사에 체코의 문화를 대표하는 연주단체로 초청되어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을 가져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외에도 보니푸에리는 '호세 카레라스(Jose Carreras), 그레미상 수상자인 '바비 맥퍼린(Bobby McFerrin)'과의 협연, 다수 TV, 라디오 방송출연을 통해 유럽 최정상 소년합창단으로 입지를 굳혀왔다. 보니푸에리는 라틴어로 '착한 소년들(Good boys)'이라는 뜻.

한국에서는 2002년 전주 소리축제의 초청을 받아 첫 내한공연을 가진 보니푸에리는 2010년 KBS 감동대상에 초청받아 수상자들에게 축하무대를 선보였고, 이것을 인연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부산, 안동 등 전국 투어를 통해 보석 같은 소년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성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공연 당시 'KBS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통해 유명해진 '넬라 판타지아'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고전음악부터 오페라, 유럽민요, 캐롤, 한국가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안무를 소화하고 있는 보니푸에리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도 그 동안 선보여온 순수한 보이

스와 탄탄한 가창력, 재치 있는 안무와 연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1부에서는 클래식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드보르작의 글로리아 등 소년합창단의 매력을 담은 아름다운 정통합창곡, 2부에서는 체코,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등 민속음악들을, 3부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크리스마스 캐럴들과 뮤지컬 음악을 들려준다. 클래식테마에서는 신성함과 장엄함을 느끼게 하는 성가복, 동유럽 국가의 민요를 부를 때에는 체코의 전통의상을 입어 분위기를 한층 띄우며, 마지막 캐롤 및 뮤지컬 음악을 노래할 때에는 깔끔한 정장으로 소년들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 감독/야로슬라브 슬레이스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시 |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지휘 리 신차오



소프라노 이윤경



메조소프라노 르네 레이피어



테너 정상혁



베이스 리 아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 한마음 한뜻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하는 2014년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가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2014년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연말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선사한다. 1824년 5월 7일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초연당시 이미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이 등 뒤에서 일어나는 청중의 환성과 박수를 느끼지 못해 알토 독창자 카롤리네 웅어의 주의로 정면을 향한 채 한층 높아지는 갈채에도 곱처럼 무뚝뚝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제4악장은 특히 사랑과 평화, 환희를 중심 주제로 한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여 박애의 정신과 화합의 메시지를 깊은 감동으로 전한다.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안동시립합창단과 솔리스트로 소프라노 이윤경, 메조소프라노 르네 레이피어, 테너 정상혁, 베이스 리 아오가 출연, 합창의 감동을 전한다.

소프라노 이윤경은 고태국 성악콩쿠르 대상을 비롯해 이탈리아 벨리니 성악콩쿠르 1위없는 2위, 이탈리아 De Nardis 콩쿠르 입상, 일본-이탈리아 성악콩쿠르 요미우리 신문사상, 이탈리아 음악협회 특별상 등을 수상하고 다양한 무대활동을 이어왔다. 미국 메조소프라노들의 계보를 잇는 라이징 스타 르네 레이피어는 2011년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스테파노역으로 LA 오페라에 데뷔하였다. 2012년 팜스프링스 오페라 길드 컴페티션과 2013년 제임스 콜리어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보컬 컴페티션에 입상한 르네 레이피어는 같은 해에 열린 서울국제음악콩쿠르 파이널에 오르기도 하였다.

한국 스피노테너의 계보를 이을 라이징 스타 테너 정상혁은 성대 결절이라는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오페라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신예 테너이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영아티스트 최종 예선에 노미네이트 되는 영예를 안으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12월 예술의전당 콘서트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의 트리케 역할과 렌스키 커버를 맡아 서울무대에 데뷔할 예정이다.

오페랄리아 도밍고 콩쿠르 1위에 빛나는 세계 정상급의 베이스 바리톤 리 아오는 올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 최종우승자 6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 시 | 12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창단 30주년 기념

국립부산국악원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교류음악회



지휘 김철호



예술감독 권성택



사물놀이 김덕수



피리 이종대



통소 동선본

2014년 창단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2월 23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과 교류음악회를 갖는다.

전통음악의 산실인 국립부산국악원과 창작음악을 모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우리 음악으로 상생하며 소통하는 이번 무대는 1부에서는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연주, 2부에서는 김철호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진행된다.

2014년 송년음악회를 겸하는 만큼 그동안 국악관현악단 연주회에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명인, 피리 명인 이종대, 북청민속예술보존회 회원 등 국악계 최고의 연주인들이 부산을 찾는다.

1부 무대는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관현악 '어부가'로 연다. 김지영이 작곡한 어부는 구름과 대금, 춤이 어우러지는 창작곡으로 바다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제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국악관현악과의 협주곡으로 재창작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와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가 국악관현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협주곡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와 관현악'. 가야금은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기악단 부수석 김혜련이, 대금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대금 수석 김상연이 협연한다.

2부 무대는 박범훈이 편곡한 북청사자놀음과 국악관현악으로 연다. 1967년 3월 31일 중요무형문화제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 일대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대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놀던 민속놀이이다. 실향민 2세로서 40여년 이상 전통마당놀이에서 연희해온 동선본을 비롯해 김백광, 김충환, 최브림(이상 통소), 동선백, 동원식, 김광현, 김성희(이상 사자), 김경숙, 이서현, 장효선(이상 민요)이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북청사자놀음을 선보인다.

북청사자놀음에 이은 무대는 피리의 명인 이종대가 협연하는 이강덕 곡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이곡은 경기, 강원, 영남 일대의 산간지역에서 불리어지던 토속 농요가락인, 메나리조를 주제로 현대적 감각으로 작곡되어진 곡이다. 2014년 송년 무대의 마지막 무대는 사물놀이의 명인 김덕수와 한울림예술단이 함께 하는 박범훈곡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으로 장식한다. '신모듬'은 원초적인 생명력과 움직임의 표출하는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변화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가락과 결합시킨 곡으로 신명을 더해준다.

일 시 |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2014년 한해 '안네의 일기' '철로' 등 화제작을 선보인 부산시립극단이 12월 23일 천재화가 이중섭의 예술세계와 그의 부인 마사코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으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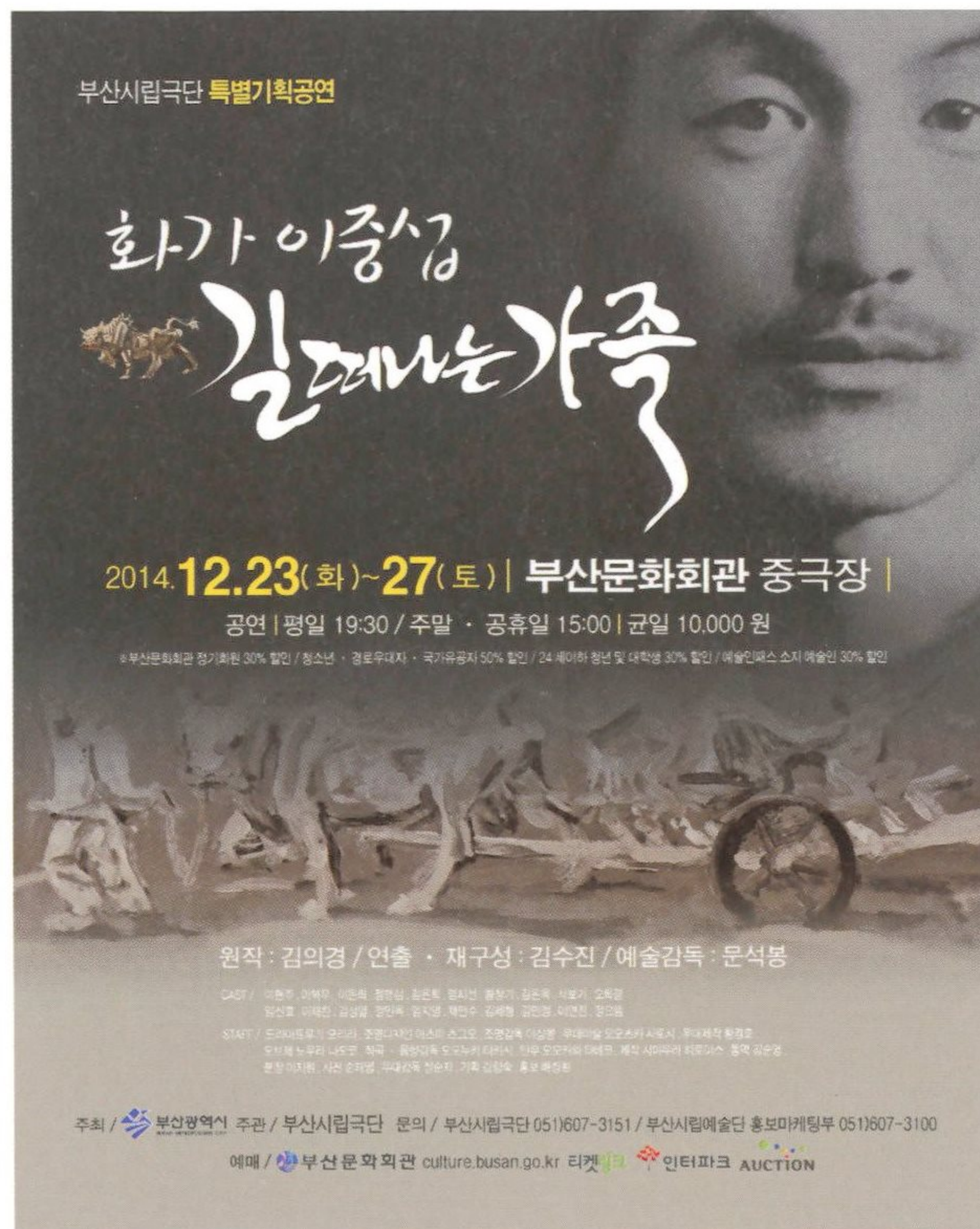
한국 연극계의 산 증인인 김의경 선생의 동명 희곡인 '길 떠나는 가족'을 재일교포 2세인 김수진이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구성으로 재탄생시킨 이 작품은 담뱃갑 속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를 비롯하여 독창적인 화법으로 한국미술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이중섭의 순수한 예술혼과 아내 마사코와의 운명적 사랑이 연출가 김수진의 손끝에서 다시한번 그려진다.

'한국의 고흐'로 불리는 '황소', '소'의 작가 이중섭은 고흐처럼 뛰어난 실력과 창의적 작품세계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예술에의 목마름 속에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국적마저 버리고 이중섭을 찾아 혈혈단신으로 찾아온 이남덕(마사코)의 지순한 사랑과 가난을 이기지 못해 다시한번 생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그들의 아픈 현실 속에서 그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예술적 집념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연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에서는 마사코와의 사랑이 시작된 동경 유학생생활, 전쟁통 속에 일본을 떠나 이중섭을 찾아 원산행을 택한 마사코와의 결혼생활, 어머니와 가족들을 북에두고 부산과 제주도를 떠돌았던 피난시절과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 등이 차례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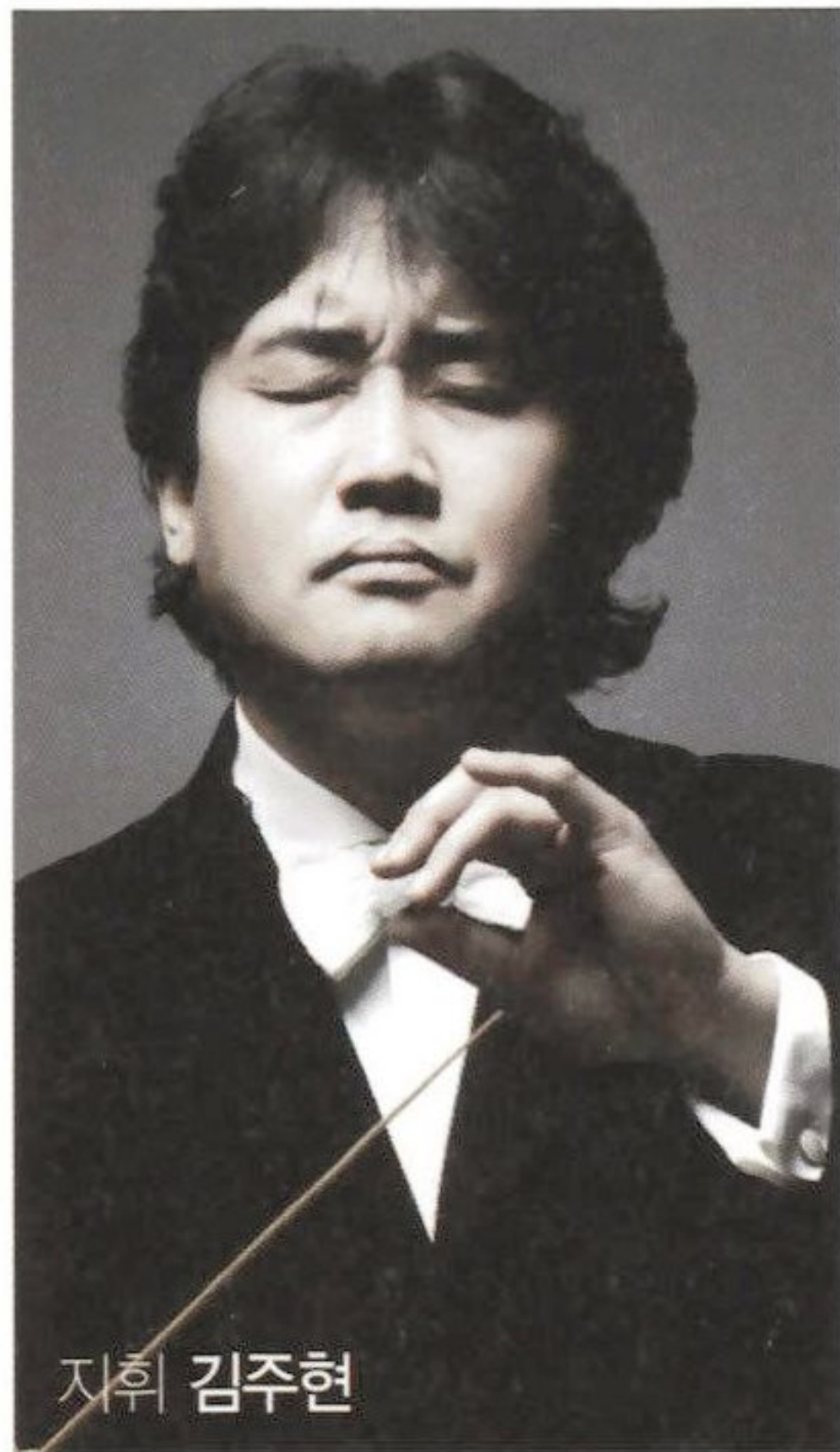
연출을 맡은 김수진은 재일교포 2세로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당시 일본 연극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가라주계의 문하생으로 연극계에 입문한 김수진은 수많은 작품활동을 하다가 뜻을 같이하는 연극인들과 함께 '신주쿠 양산박'을 창단한 일본 연극계의 대표적 인물이다. 한일관계 개선과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위해 이번 작품의 연출을 흔쾌히 수락한 김수진은 일본의 극단 분과자(文化座)와 함께 동일 제목의 공연을 동경에서 제작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혁우가 이중섭으로, 김은희, 오희경이 마사코로 호흡을 맞춘다.



일 시 | 2014. 12월 23일-27일 화-토요일
평일 오후 7:30, 토·공휴일 오후 3: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청소년 전화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5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제야음악회



지휘 김주현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신동원



바이올린 박지윤



레인메이커

2015년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4년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김주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2014년 제야음악회는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는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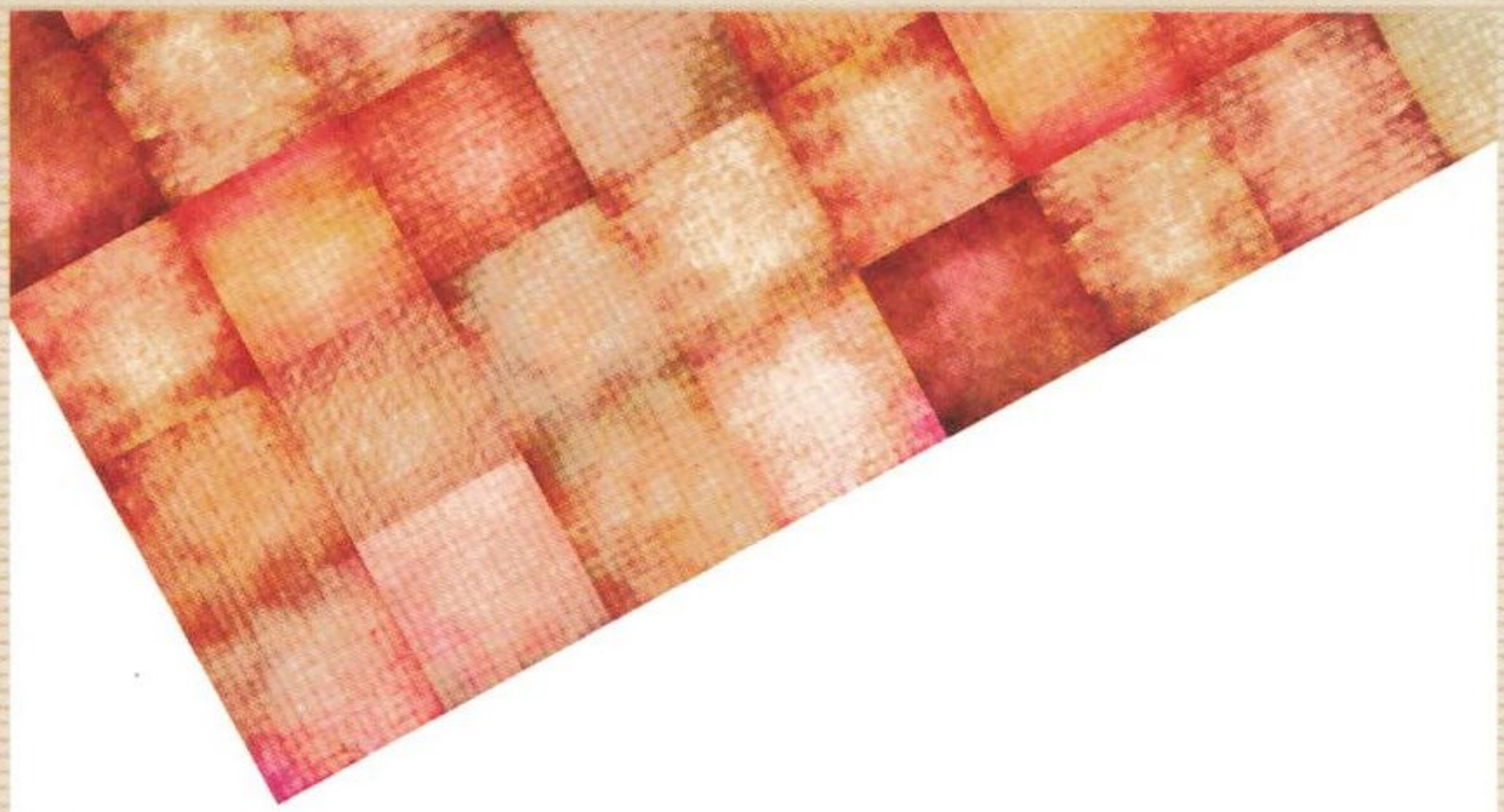
올해는 1부에서는 소프라노 김순영과 테너 신동원의 아름답고 감미로운 이중창으로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2부에서는 밝고 경쾌한 축전 선율과 열정적인 바이올린 연주로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노래한다. 또 휴식시간 로비에서는 록, 클래식,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해 온 관록 있는 재즈밴드 레인메이커의 경쾌한 연주와 와인과 다과를 즐기며 2015년을 기원하는 소망엽서 적기 이벤트로 2014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

2014 제야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김주현은 로마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극장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도나토 렌젠티 등 대 지휘자의 문하에서 지휘법을 습득하고 정명훈의 추천으로 국립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수습지휘자로 수학했다. 김주현은 2009년 국립오페라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임명된 후 일본, 중국 등지에서 시즌공연 및 연간 50여회의 공연을 지휘하여 음악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2014년 마지막을 함께 할 소프라노 김순영은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대전시향, 수원시향, 창원시향, 코리안 심포니, 프라임 필하모닉, 서울 바로크 합주단 등과의 협연 무대, 오페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 등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리치아 알바네제-푸치니 콩쿠르, 카루소 콩쿠르, 자르자리 콩쿠르, 팜비치 오페라 콩쿠르 등 세계적인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신동원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세계적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크리스토퍼 에센바흐와 함께 공연함과 동시에 미국 산타페에서 오페라 '투란도트'의 '칼라프'역으로 데뷔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부 무대에서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은 18세에 티보 바르가 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을 석권하며 화제를 모은 실력파로 2005 롱티보콩쿠르, 2009 퀸엘리자베스콩쿠르 입상으로 우아하고 성숙한 음악성을 겸비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 받고 있다.

일 시 |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0: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꼬레아오페라단 10주년 기념공연

도니제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음악평론가 박진홍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안상철 단장이 이끄는 꼬레아 오페라단의 10주년 공연으로 도니제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가 무대에 올랐다. 필자는 5일 저녁 공연을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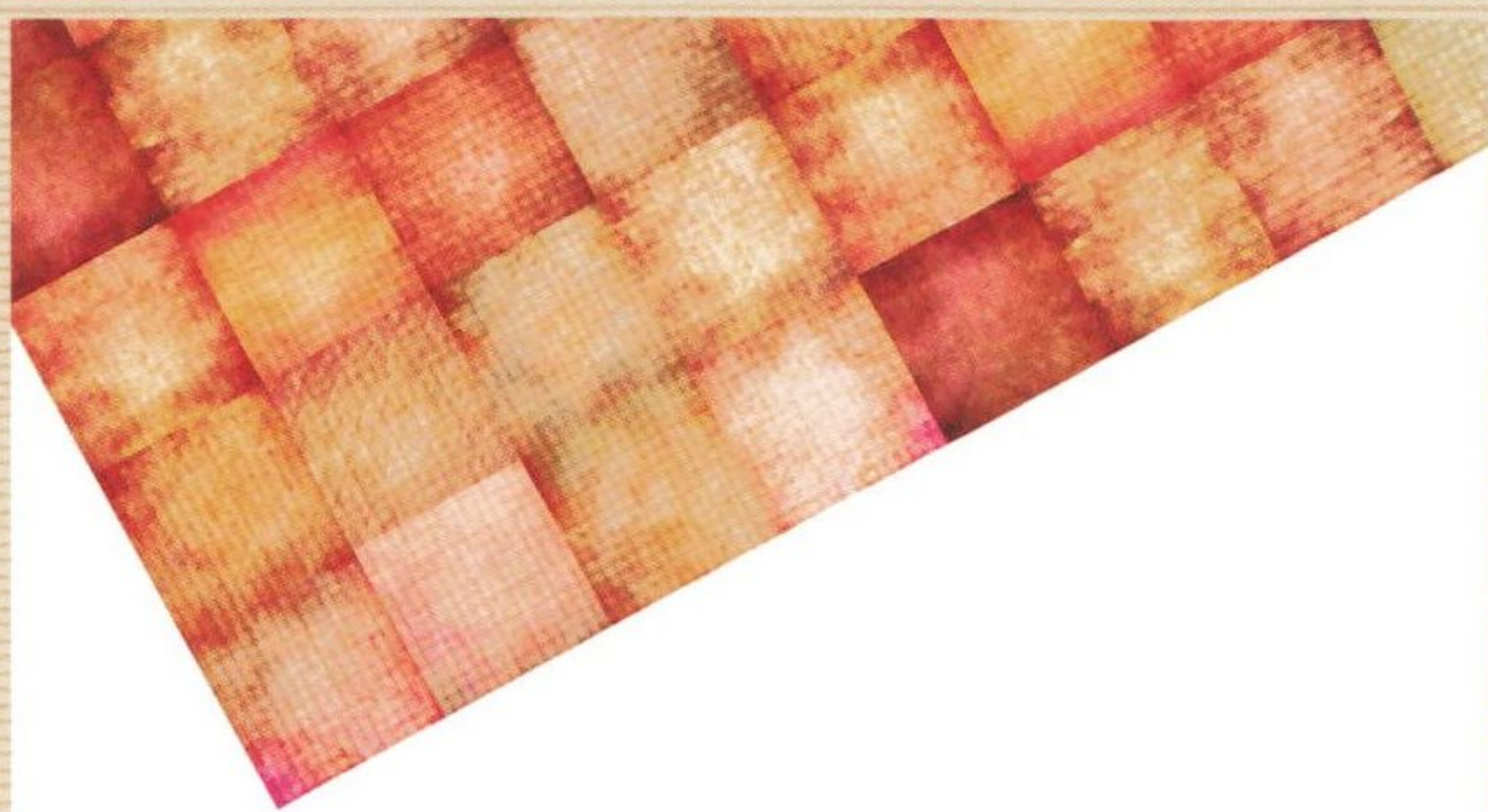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 소설가이며 극작가였던 월터 스코트(1771-1832)가 당시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쓴 원작 소설을 도니제티가 오페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람메르무어의 영주 엔리코(김종화)는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고 권력을 되찾을 목적으로 여동생 루치아(왕기현)를 정치적 실세이자 재력가인 아르투로(김재관)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루치아는 이미 원수의 아들로 적대시되는 에드가르도(김성진)와 미래를 약속했다. 엔리코는 갖은 방법으로 루치아를 회유하고자 하였으나 루치아가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편지를 위조하여 에드가르도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꾸며냈다. 이 소식에 격분한 루치아는 아르투로와의 결혼을 승낙하게 된다. 얼마 후, 결혼 파티가 열리고 이곳에 에드가르도가 나타난다. 루치아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에드가르도는 그녀가 준 반지를 바닥에 던지며 루치아를 비난한다. 모든 것이 오빠 엔리코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루치아는 아르투로와의 첫 날밤, 그를 칼로 찔러 죽인 뒤 잠옷 차림으로 파티에 나타난다. 사랑을 잃은 슬픔과 자신을 속인 세상에 분노하며 미쳐버린 루치아는 그 유명한 'Il dolce suono mi colpi di sua voce(그분의 다정한 음성이 들린다)'를 노래하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파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에드가르도는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품고 있던 칼로 자결하며 막이 내린다.

이날 연주에서 각 배역을 맡은 연주자들은 이미 왕성한 활동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수들로 탄탄한 가창력과 인물에 완벽히 걸맞는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200여 년 전의 람메르무어로 이끌었다. 그리고 오창록이 지휘를 맡은 부산콘서트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풍부한 음량과 섬세한 표현으로 가수들의 노래를 돋보이게 했고, 극의 분위기를 살려 주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루치아의 마지막 아리아였다. 남편을 찔러 죽인 칼을 든 채 피 묻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르는 이 곡을 일명 광란의 아리아라 부른다. 길이가 길고 높은 난이도를 가진 것 뿐만 아니라 사랑과 분노로 미쳐 버린 여주인공의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에 여간 어려운 곡이 아니다. 이날 루치아 역을 맡은 왕기현은 복잡한 극중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완성도 높은 테크닉과 감성으로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관객들은 완벽하게 루치아로 변신한 왕기현의 연기와 노래에 빠져들었고 그녀의 긴 마지막 독백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공연은 무대의 구성이 짜임새 있게 잘 배치되었으며 움직임 또한 매우 유연하여 극의 흐름이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마지막 루치아의 아리아에서는 스팟 라이트를 따라 하늘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붉은 꽃잎들이 하얀 드레스 위에 묻은 아픔의 상처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으며 화려함을 더했다.

언제나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것은 일상에 활력을 얻는 즐거움이자 기쁨이다. 200여 년 전의 람메르무어로 여행을 떠났던 이번 공연 역시 그런 시간이었다. 오페라 한 편의 제작에는 많은 연주자와 스텝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의 준비 기간과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음악애호가의 한 사람으로서 꼬레아 오페라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아무쪼록 기업들의 풍부한 지원을 비롯한 재원이 확보되어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들을 많은 부산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4 부산비엔날레

세상 속에 거주하기

2014.9.20~11.22

서양화가 박미경



2014 부산비엔날레는 '세상 속에 거주하기'를 주제로 30개국 160명의 작가와 38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본 전시와 특별전, 학술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2014 부산비엔날레 전시를 총괄하는 올리비에 케플랭(Olivier Kaepelin) 전시감독은 프랑스 출신으로 각종 미술 전시를 기획 총괄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프랑스 마그 재단 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본 전시가 열리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세상 속에 거주하기'라는 주제로 설치, 영상, 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본 전시 작품들과는 달리 바다의 특성을 살린 해운대 특별전 '아시안 큐레토리얼展'에는 중국작가 왕마이(Wang Mai)의 '부산 해협(Busan Strait)'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고려제강 수영공장에서 열린 '아시안 큐레토리얼展'에서는 공장을 개조한 빈티지한 전시공간으로 각국의 신진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 되었다.

리버플비엔날레의 부집행위원장 및 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한 바 있는 독립 큐레이터 폴 도벨라는 포럼 비엔날레 내부에서 보는 혁신과제 및 전략에서 '비엔날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미술의 역사를 의식하지 않고 '미술에 대한' 것이 아닌, 지금은 다양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비엔날레에서 그 의미와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미술 관련 단체와 공공 기관, 교육, 국제 파트너 쉽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진 리버플비엔날레는 시민들이 도시를 자각하는 방법까지 바꿀 수 있었다. 이는 비엔날레의 공공성과 시민참여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이에 미술평론가 하계훈은 한국의 비엔날레는 재정적 문제와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지역주민으로부터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대미술 전시와 같은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관심과 안목의 변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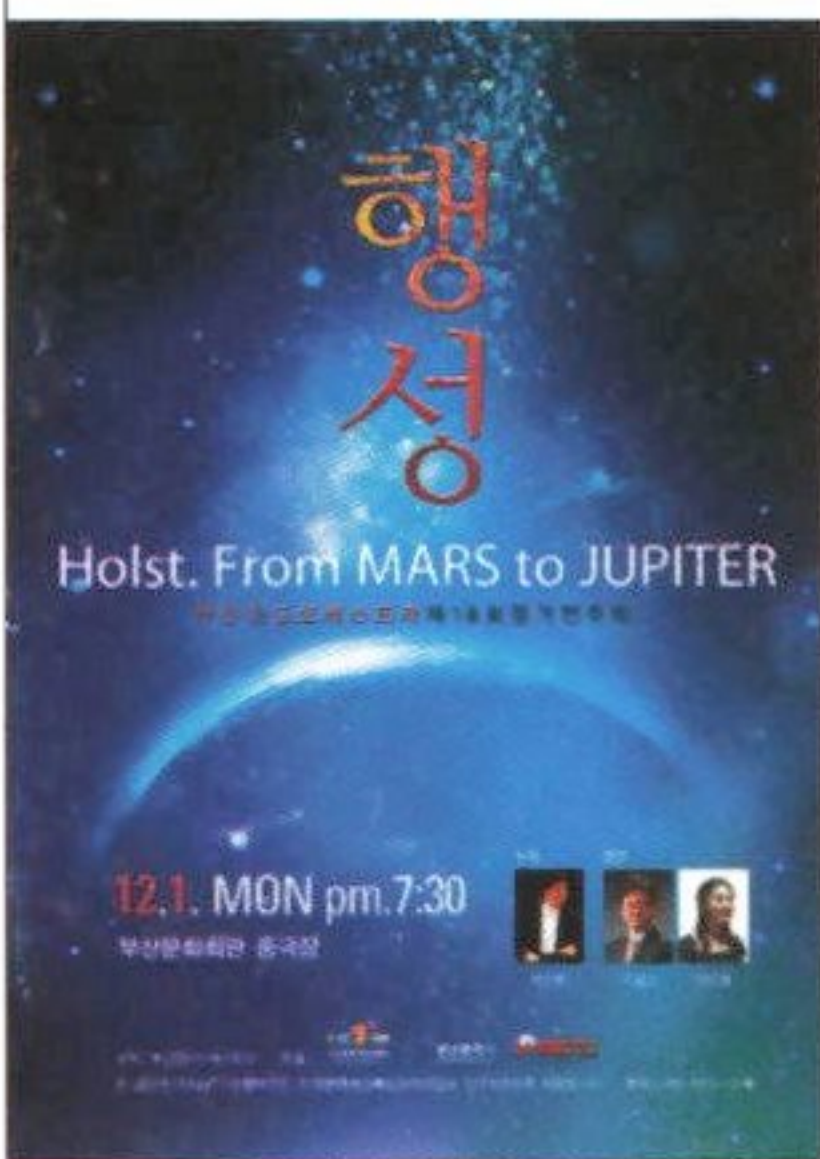
비엔날레는 단순히 작품하나를 출품하는 것이 아니다. 그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는 도시와 그 나라의 문화와 교류하는 것이다. '비엔날레'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질적인 개인과 민족, 사회가 교류하며 또 하나의 역사와 분위기를 수용하면서 정지된 침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비엔날레라는 새로운 장소와 시간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세상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올리비에 케플랭의 전시기획인 '세상에 거주하기'란 능동적인 태도이자 생명력의 표시, 즉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세계에 대해 반응하려는 의지로 보였으며 이러한 에너지와 유동성이 부산을 특징짓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변치 않는 바다와 전지구화 속에서 무한히 팽창하고 있는 21세기 도시로써 가장 현대적인 기술 혁신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교차하고 있다.

모든 예술작품의 목표는 고유한 사유와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동요를 거치며 가능한 가장 순수하며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메시지를 남기게 될 우리 문명에 대한 증거로서 시간 속에, 정신 속에 남을 것이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윈드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행성'

일 시 | 12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윈드오케스트라 010-3376-2246



1996년 부산과 경남의 신예 및 중견 관악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윈드오케스트라의 제18회 정기연주회. 창단연주회 당시 가수 이승철과의 협연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을 시도한 부산윈드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관악곡을 선사해 왔다.

프로그램

That's Entertainment March, 내 영혼 바람 되어, Fly me to the moon
베버/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3악장
홀스트/행성 작품 32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협연/김재승(클라리넷), 권순유(소프라노)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여성문화회관에 전화 320-8331~5

1994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과 문화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온 여성문화회관 미루샘여성합창단의 제18회 정기연주회.

미루샘여성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아시아게임 기념행사공연, 부산-후쿠오카 교류음악회 등 공연활동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산유화, 목련화, 초롱꽃잎에, 한국민요 연곡 제5번, 맘미아, 댄싱퀸, 보리수 등 수곡
• 지휘/한정현 • 반주/최승희
• 찬조출연/남성중창단 프리모 칸탄테 박선영(오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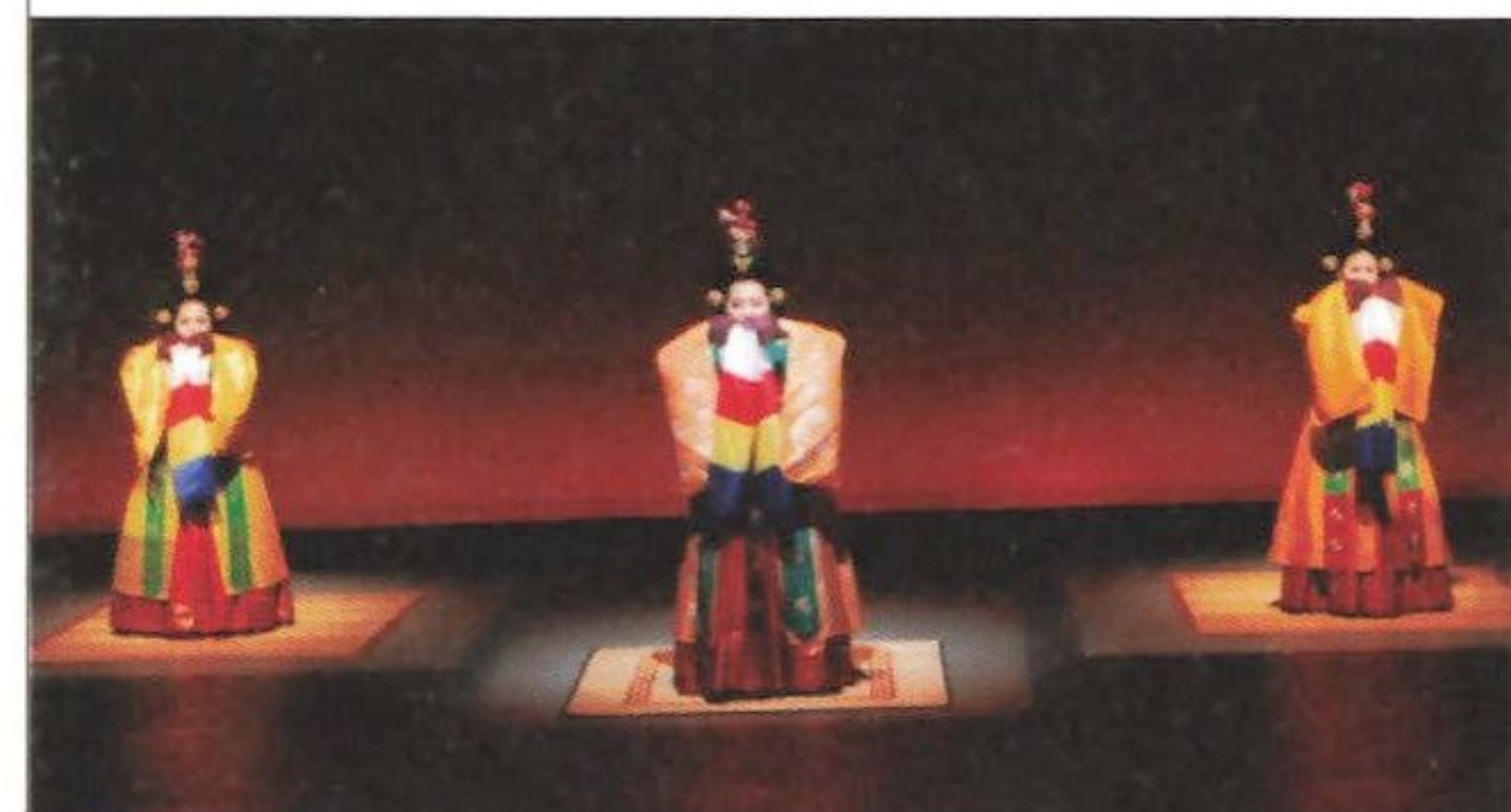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2014 풍류(風流) 10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일 시 | 12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

시민무용교실을 통하여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수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2014 풍류(風流)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프로그램

화전태(춤/김귀자, 류혜숙, 윤정하, 최현숙, 박순희, 전성숙, 김숙희, 이경선, 임연금, 조여진)
살풀이춤(춤/유매자, 유선애, 이명희, 이숙자, 이채영, 박옥순, 이명자, 조공심, 하순연, 한길랑, 감성희, 김명숙, 박선희) 등
• 예술감독/홍경희 • 무용지도/오숙례, 이현숙
• 특별출연/박상용(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허태성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부산색소폰동호회 제6회 이승장 클래스 색소폰 발표회

일 시 | 12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승장 010-4662-0123

부산, 경남지역의 색소폰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부산색소폰동호회의 제6회 정기연주회.

이승장이 지도하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성고등학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광복점 제자들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김동진/목련화
영화음악/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문리버 박병혁(편곡)/Let it Be, 꽃밭에서, 포크송메들리 등 수곡
• 지휘/이승장 • 사회/이해리



제1회 글로리라이어 가족음악회

일 시 | 12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글로리라이어 010-8544-4702



1982년 6월 창단 이래 그동안 23회의 정기연주회와 10회의 가족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온 글로리라이어 제11회 가족음악회.

글로리라이어는 2006년부터 진행된 정기연주회를 청소년 범죄예방 및 소년 소녀 가장돕기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한 연주회로 기획, 공연 수익금 전액을 기탁하여왔다.

'겨울날의 동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가족음악회는 마치 한편의 동화책을 읽는 듯 한 분위기의 연주회를 기획,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눈다.

• 지휘/이정철
• 반주/박성미, 박민경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6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627-8088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의 제20회 정기연주회.

2001년 '부산아마추어스트링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연 2회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음악의 깊이를 더해왔다.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김정민이 지휘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황제디토의 자비 서곡
베버/무도회에의 권유
영화음악/영화 레미제라블 중 'I Dreamed A dream', 겨울왕국 중 'Let it Go'
모차르트/현악4중주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베토벤/교향곡 제8번
• 지휘/김정민
• 협연/황지영

Program Guide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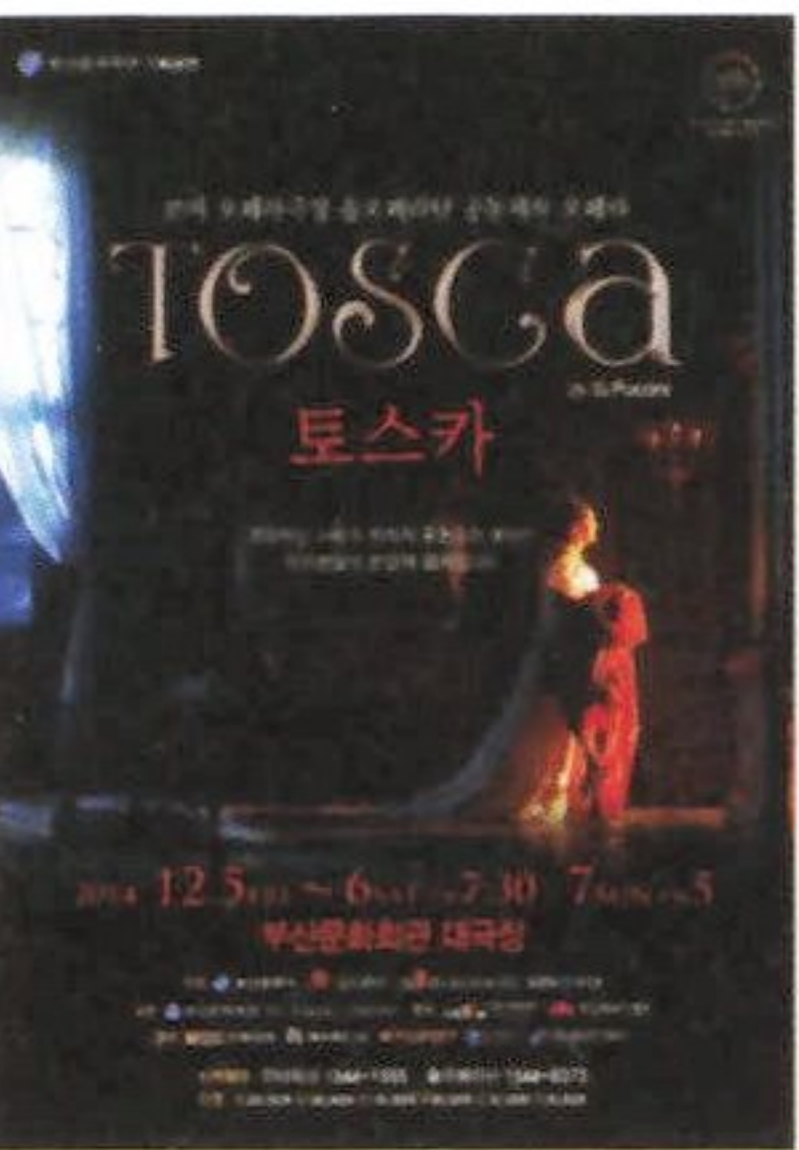
이탈리아 로마 오페라극장 · 솔로페라 공동제작 오페라 푸치니 '토스카'

일 시 | 12월 5일-7일 금-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0만원, S석 18만원, A석 13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D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솔로페라단 공연 기획팀(1544-9373)



이탈리아 로마 오페라극장과 솔로페라단이 공동 제작한 푸치니 3대 걸작 오페라 '토스카' 부산공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지는 세 남녀의 사랑과 질투, 죽음을 그린 '토스카'는 극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아리아들로 전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켜온

대작이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비극으로 치달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함께 '묘한 조화'와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유명 아리아는 극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1900년 1월 14일 푸치니의 토스카가 초연된 로마오페라극장에 의해 재탄생된 화제작으로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와 연출가의 앙상블, 환상적인 무대와 전통을 자랑하는 로마극장의 수석 디자이너 안나 비아쥬티의 의상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역 토스카로는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주요 레퍼토리를 모두 섭렵하며 매력을 뽐내는 매력적인 소프라노 루이젤라 데 피에트로와 부산이 낳은 보석같은 소프라노 김유성이 더블 캐스팅 되어 개성넘치는 토스카를 선보이고, 토스카의 사랑을 받는 카바라도 시에는 비평가와 음악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테너 레오나르도 그라메나,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사랑받고 있는 테너 김지호, 악역 스키타피아에는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 티토 곱비 국제콩쿠르,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엘리아 파비안,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 연기로 관중을 압도하는 한국 최고의 바리톤 박대용 등이 열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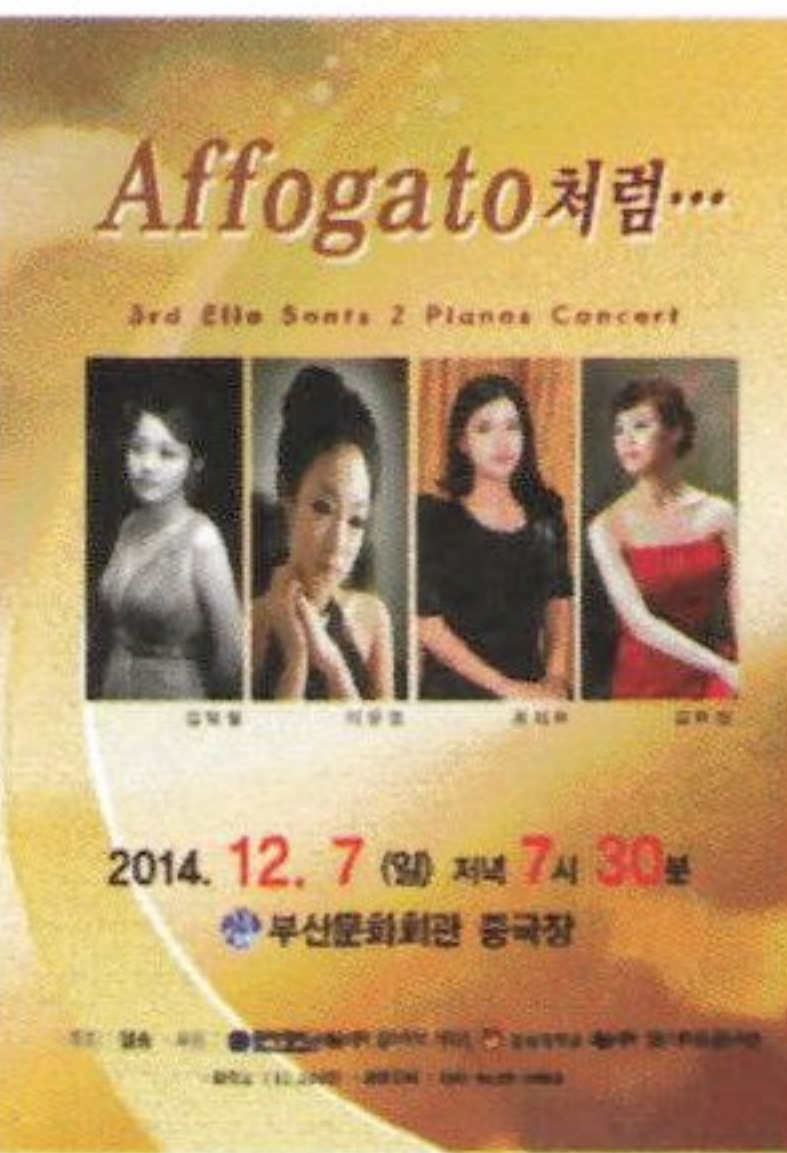
- 지휘/데안 사빅
- 연출/잔도메니코 바카리
- 예술감독/디노 데 팔마
- 출연/소프라노 루이젤라 데 피에트로, 소프라노 김유성, 테너 레오나르도 그라메나, 테너 김지호, 바리톤 엘리아 파비안,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스테파노 리날디 밀리아니, 베이스 마테오 다폴리토, 테너 눈피오 파찌니 외

엘송 제3회 정기연주회 Affogato처럼

일 시 | 12월 7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엘송 010-6426-0968



동아대학교 피아노 전공자들로 구성된 엘송이 들려주는 제3회 정기연주회. 김유림&이문영, 최지미&김미정가 연주하는 2Pianos 4Hands, 2Pianos 8Hands 등 다양한 연주구성으로 달콤한 휴식같은 피아노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중 '백건'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중 제2곡 올림다단조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 스페타나/나의 조국 중 제2곡 몰다우강 마단조 등 수곡
- 연주/김유림, 이문영, 최지미, 김미정

제40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YG콘서트 - 베토벤교향곡시리즈

일 시 | 12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부산의 클래식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 연주자와 지휘자 육성 프로젝트로 기획한 YG콘서트 두 번째 무대 베토벤교향곡시리즈. 지난 4월, 베토벤 교향곡 1번과 2번 전곡 연주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다니엘S김(김상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뮤직캠프오케스트라 부지휘자)의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와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한다. '황제'는 YG콘서트의 협연자 공모에서 선정된 피아니스트 정은정(동의대, 신라대 외래교수)이 YG콘서트 첫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5번 작품73 '황제'
베토벤/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67 '운명'
- 지휘/Daniel S Kim(김상철)
 - 협연/정은정(피아노)

BOCOOnians Winter Concert

일 시 | 12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BOCOOnians 010-7553-5337



보스턴 콘서바토리 동문으로 그동안 다양한 교류 무대를 가져온 피아니스트 김승현, 소프라노 장명화, 소프라노 최경원, 피아니스트 허소희로 구성된 BOCOOnians가 들려주는 Winter Concert.

단체명 'BOCOOnians'는 Boston Conservatory(보스턴 콘서바토리)와 nians(사람들)의 합성어로 동문간의 결속을 다지며 음악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프로그램

- 리스트/'3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중 '탄식' 슈만/동방의 그림 작품66 김효근/눈 이수인/고향의 노래 모차르트/오페라 '코지판 투테' 중 'Come Scoglio' 등 수곡
- 연주/김승현, 장명화, 최경원, 허소희

마림바의 향연

일 시 | 12월 9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경준 010-4141-5337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우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마림바의 향연. 경성대학교 재학중인 박지혜,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1등, 부산음악교육연구회 콩쿠르 1등 부산예고 황중현, 부산예고 입학 예정인 안세웅, 부산음악교육연구회 1등상을 수상한 상당초 조현호가 음악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온 지난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 로사우로/마림바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제1번 바흐/모음곡 제1번, 제3번
케이코 아베/Tambourin Paraphrase for solo marimba 등 수곡
- 반주/이주연



프로그램
가이드

진소영 작곡 발표회 '조화(調和)'

일 시 | 12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진소영 010-3024-7877

...

부산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 현재 동아대학교 강의전담전임교수, 부산작곡가협회 부회장, 향사회 이사, 창작합창 21 이사, An-ti Stimmung, 창작가곡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진소영 작곡 발표회 '조화(調和)'.

어긋나거나 부딪침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려짐을 모토로 하여 수학과 음악의 조화,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 성악과 문학과 음악과의 조화 등을 시도하여 음악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작곡한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피아노 솔로를 위한 Verhaltnis(관계, 비율)

거문고 2대와 북을 위한 '조화'

바이올린, 2대의 첼로, 피아노를 위한 흥타령

가곡/아련한 그리움, 끝없이 강물이 흐르네

합창곡/그를 꿈꾼 밤, 가는 길 등 수곡

- 연주/Henri Banamy(피아노), 송다솔(거문고), 김수민(거문고), 하정희(북), 서은아(바이올린), 문주원(첼로), 서성은(첼로), 박정희(피아노), 김현숙(소프라노)

- 합창/동아콘서트 콰이어(지휘/김명규, 반주/신주옥)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의 Plus concert

일 시 |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성빈 010-4248-6828

...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여러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귀국한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의 첫 번째 기획공연 'Plus concert'.

'화합' '하모니'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클래식 연주자의 이색적이고도 아름다운 화합의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Tchaikovsky Serenade Melancolique Op 26 + Jazz

Czardas by Vittorio Monti for Violin +가야금

T.A Vitali Chaconne in g minor for violin and Piano + 현대무용

Camille Saint Saens '죽음의 무도' +샌드 드로잉 윤이상 76-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를 위한<투게더>(1990) + 창작 무언극 등 수곡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양상블 클라비어

일 시 |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

따로 또 같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4명의 남성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양상블 클라비어 부산 초청 공연. 양상블 클라비어는 독일 하노버국립음대, 로스톡국립음대, 에센국립음대 등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방기수, 문재원, 김지훈, 신영주로 결성되어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16세에 세계적 권위의 마티아스 스페르커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국제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한 성인제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방기수/서울 아리랑

모차르트/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비발디/사계 중 '겨울'

리스트/헝가리 광시곡 제2번

아르니 에길슨/더블베이스 소품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방기수/베토벤 안티바이러스 등 수곡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창단 11주년 기념 공연 '회상'

일 시 |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문 의 |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010-3273-81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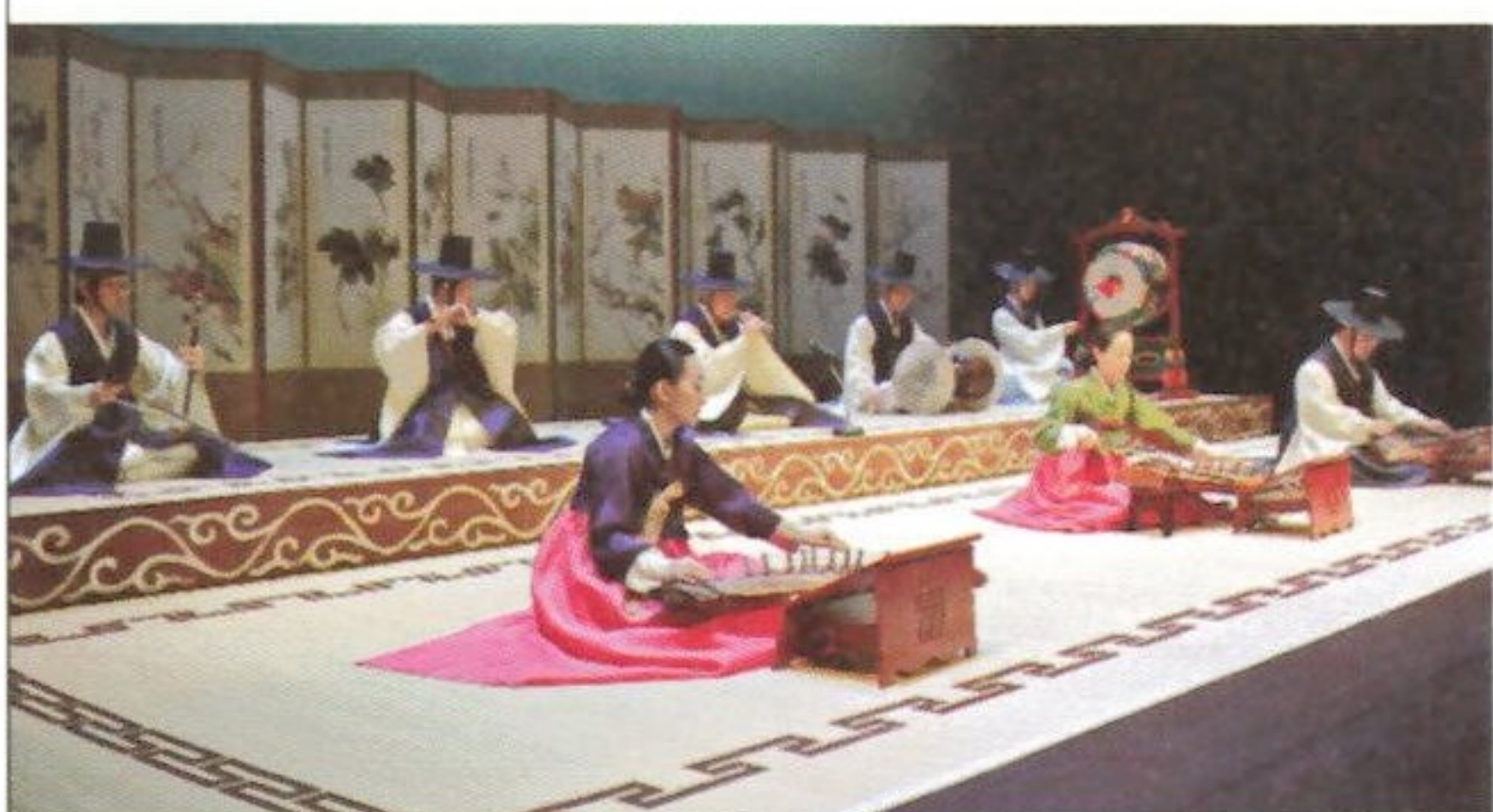
전통음악의 저변확대와 국악실내악의 활성화에 기여해온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의 창단 11주년 기념 공연.

'산·바다·해'는 그동안 전통음악의 보급과 현대화 작업, 젊은 작곡가 발굴, 서양음악과의 교류 등을 통해 새로운 주법을 개발하고 우리음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국악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프로그램|

수제천, 육자배기(현악), 대풍류, 푸살시나위 경기민요(노래/이은혜)

- 연주/송강수(장구), 한영길(대금), 김경수(피리), 방병원(해금), 오상훈(거문고), 윤경선(가야금), 홍영혜(아쟁)



여성문화회관 풍물 예술단 하담소 제 4회 정기공연 하늘을 닮은 소리 이야기

일 시 |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육영주 010-4670-7904

...

여성문화회관 강습을 통해 우리 가락을 익힌 주부들로 구성된 하담소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그동안 부산지역 요양병원과 양로원, 장애인 학교와 나눔의 집 등 봉사 연주활동, 풍물강습을 통한 학습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선반 설장구, 영남 북춤, 팽과리 합주, 모듬북, 한량무, 화선무(창작)

- 총연출 및 제작/최의철
- 특별출연/태평소 김용성, 이바디 예술단원 김경화, 황세민, 전상오
- 찬조출연/여성문화회관 무용예술단(지도/이현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 최정상 소년합창단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 시 |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최정상의 소년합창단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1982년 창단된 보니푸에리(Boni Pueri) 소년합창단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2,5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친 정상급 합창단으로 세계 굴지의 음악사인 EM, BMG, Supraphon 등과 20여장의 컴필레이션 음반 작업을 함께 하면서 세계 유수의 음악축제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전 세계에 보니푸에리의 이름과 체코를 알렸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1부에서는 클래식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드보르작의 글로리아 등 소년합창단의 아름다운 정통합창곡, 2부에서는 체코,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등 민속 곡들을, 3부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크리스마스 캐럴들과 뮤지컬 음악을 들려준다.

- 감독/야로슬라브 슬레이스

Program Guide >>

목련합창단 & 마린콰이어 조인트콘서트

일 시 |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마린콰이어 010-6568-2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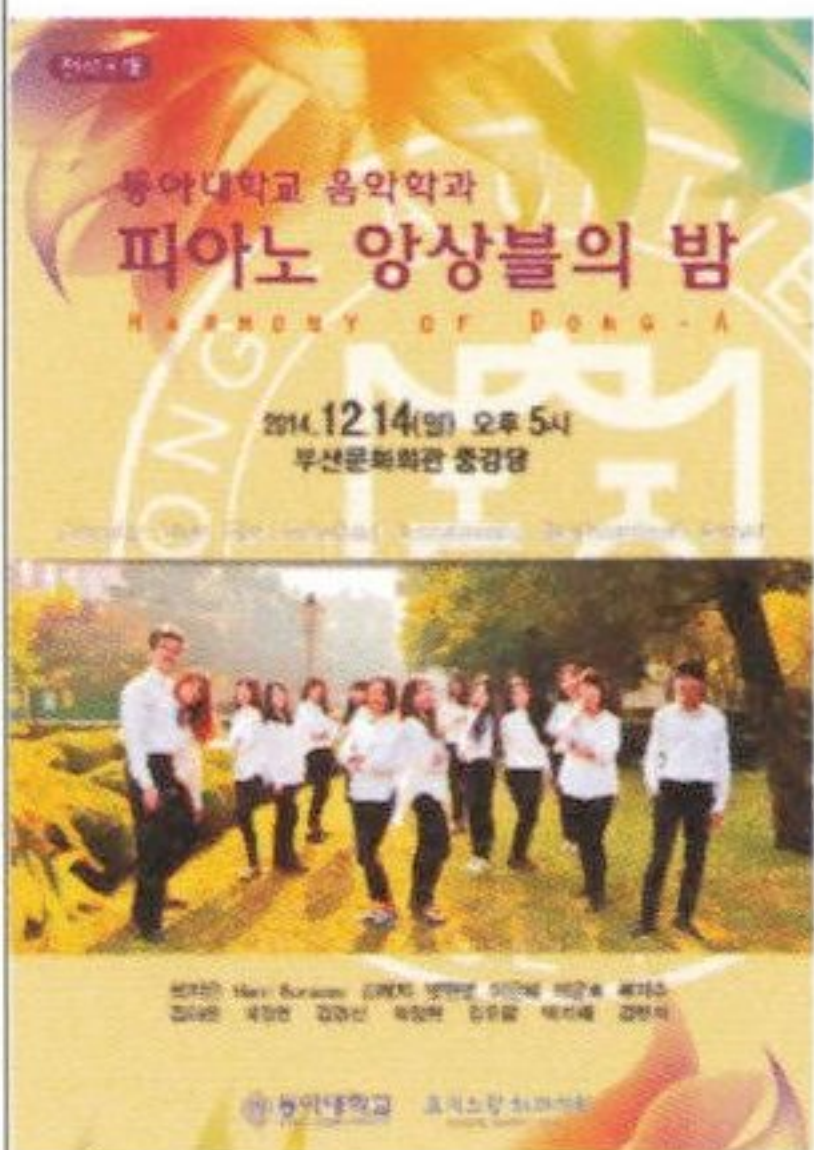
3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목련합창단과 2014년 새롭게 창단된 마린콰이어가 함께 하는 조인트콘서트.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속해 있는 목련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25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콰이어로 그동안 16회의 정기연주회와 부산합창제,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부산의 대표적인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해운대구 마린시티내에 연습실을 두고 있는 마린콰이어는 연령층을 탈피한 화합의 코드로 급부상하는 합창단으로 이번 창단 조인트 콘서트를 통해 향상된 연주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며 목련합창단과 함께 서로 공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들국화, 진달래 꽃, 산유화, 아름다운 나라(이상 목련합창단) Nella Fantasia, Yesterday, 기도, 친구여, 거위의 꿈, 보리밭, 경북궁 타령(이상 마린콰이어) 등 수곡
 •목련합창단 지휘/오동주 •피아노/강다현
 •마린콰이어 지휘/유형광 •피아노/김경미
 •특별출연/Ensemble LIETO TRIO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앙상블의 밤

일 시 |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아대학교 010-2333-2544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인 피아니스트 최지은, 헨리 보나미와 피아노과 1, 2학년 학생 12명이 함께하는 피아노 앙상블의 밤. 최지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국 피바디음대, 텍사스주립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 프랑스 파리 고등 국립음악원,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한 헨리 보나미는 동아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넷, 아렌스키, 라흐마니노프, 슈베르트 등의 피아노 앙상블을 들려준다.

UKO (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35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일 시 |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자유석)
 문 의 | United Korean Orchestra 010-3863-3087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사랑나눔 무대를 열어온 부산 최초의 자선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의 제35회 사랑나눔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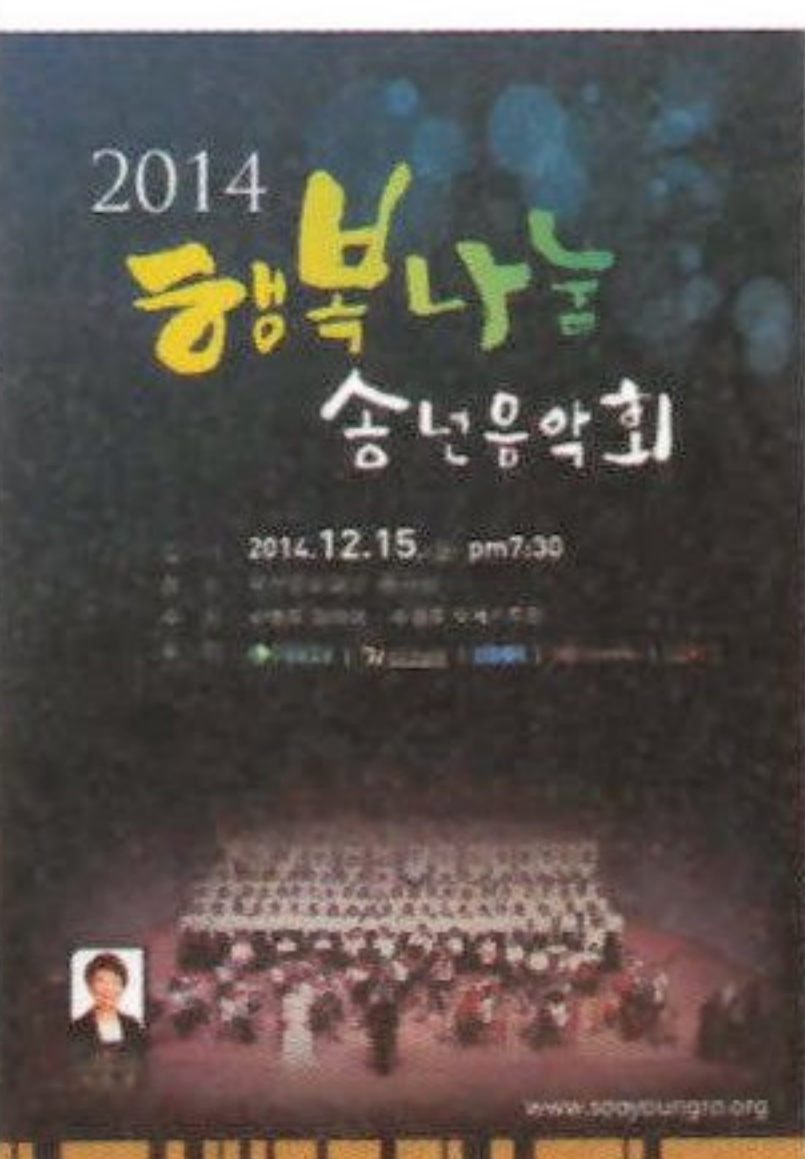
프로그램

로시니/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베버/클라리넷 소협주곡
 영화음악/캐리비안의 해적:블랙 펄의 저주,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 수곡
 •지휘/금난새 •피아노/김민정
 •클라리넷/백양지



2014 행복나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수영로콰이어 010-9117-2352



2014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수영로콰이어와 수영로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행복나눔 송년음악회. 수영로교회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박미경의 지휘로 남성중창, 여성중창, 합창, 오르간과 피아노 2중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헨델/메시아 중 서곡
 비발디/사계 중 겨울
 남성중창/실버벨, 세상을 사는 지혜
 합창/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메리크리스마스 인 러브, 영광 영광 등 수곡
 •지휘/박미경
 •바이올린/홍은지(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바리톤/이승우 •피아노/최미정, 이예주
 •오르간/양승혜(대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19회 정기연주회 'Christmas & Jazz'

일 시 |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태훈 010-7543-0883

1996년 '엘랑 클라리넷 사중주단(Elan Clarinet Quartet)'으로 출발, 2001년부터 '부산클라리넷콰르텟'으로 활동을 이어온 부산클라리넷콰르텟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대구, 제주, 통영, 김해 등 국내와 일본의 오사카, 고베, 교토, 시가현 등 해외 활동으로 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을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쿠르티스/A Klezmer Wedding
 거쉬윈/Gershwin Suite 등 수곡
 •연주/김태훈(리더/동의대, 부경대 외래교수), 권병욱, 강경한, 이성관
 •협연/츠츠미 마유미(클라리넷), 노승진(오카리나)
 •특별출연/송희철(드럼), 윤민우(더블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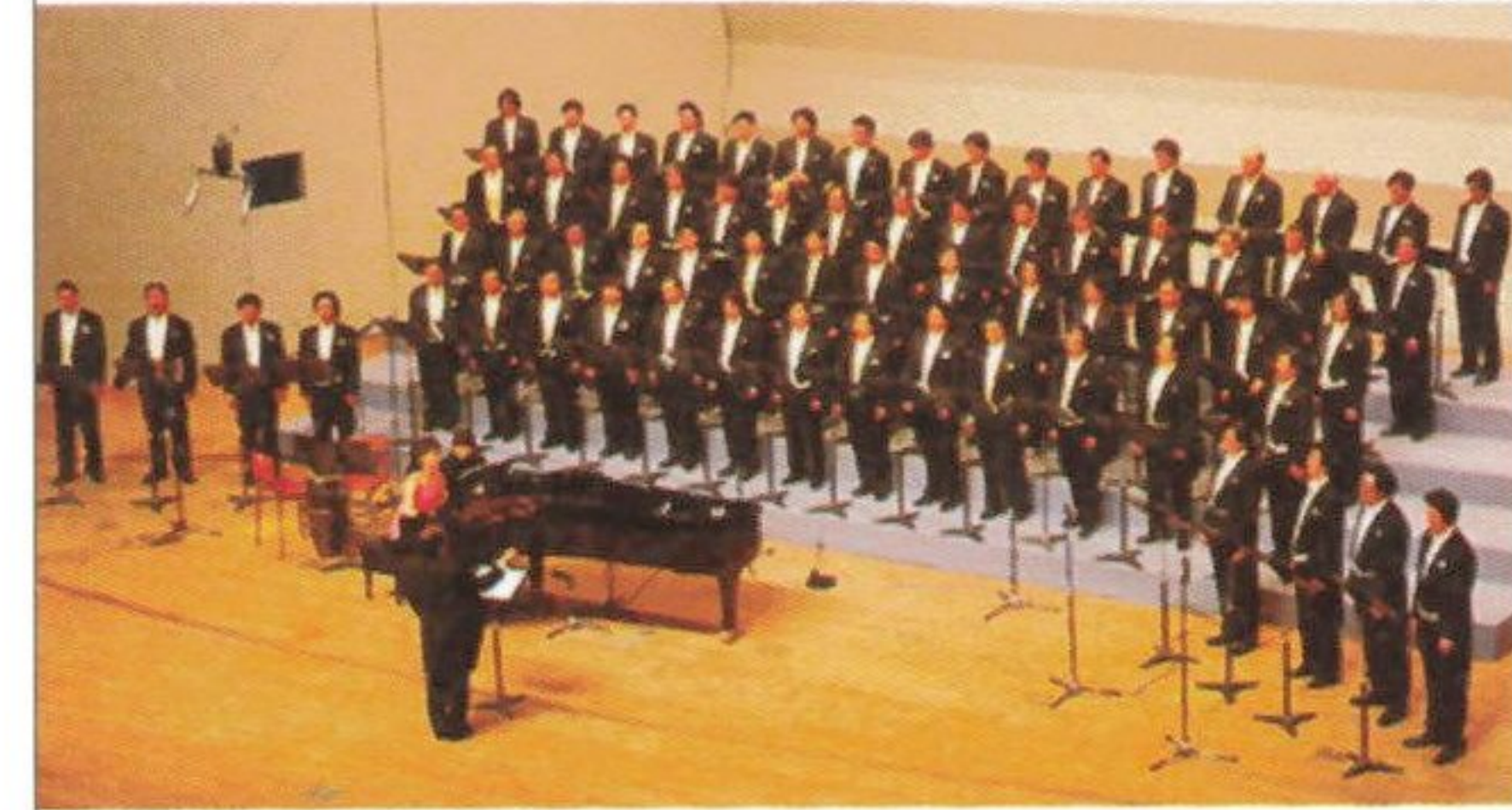
2014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일 시 |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부산일보 문화사업국 461-4436~8

부산, 경남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5여명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14년 무대.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과 오페라 합창곡, 성가, 민요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남성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Sanctus(거룩)
 임채일/아버지 빈들
 브람스/헝가리 무곡
 오페라합창(최석태 편곡)/O Mio Babbino Caro, Lascia Ch'io Pianga,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수곡
 •지휘/오세중 •회장/이득수



프로그램
가이드

2014년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부산문화의 송년음악회 '클래식과 가요의 만남'.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클래식과 흥겨운 대중음악으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종진을 비롯해 부산이 낳은 보석같은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등 부산을 대표하는 최정상급의 연주자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부산 출신의 젊은 가수 태성, '괜찮아요'라는 서정적인 노래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수 이창휘, 지난해 송년음악회에서 멋진 가창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나도 모르게', '창공'의 주인공 유가화가 출연,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어우러진 훈훈한 무대로 한해를 마무리한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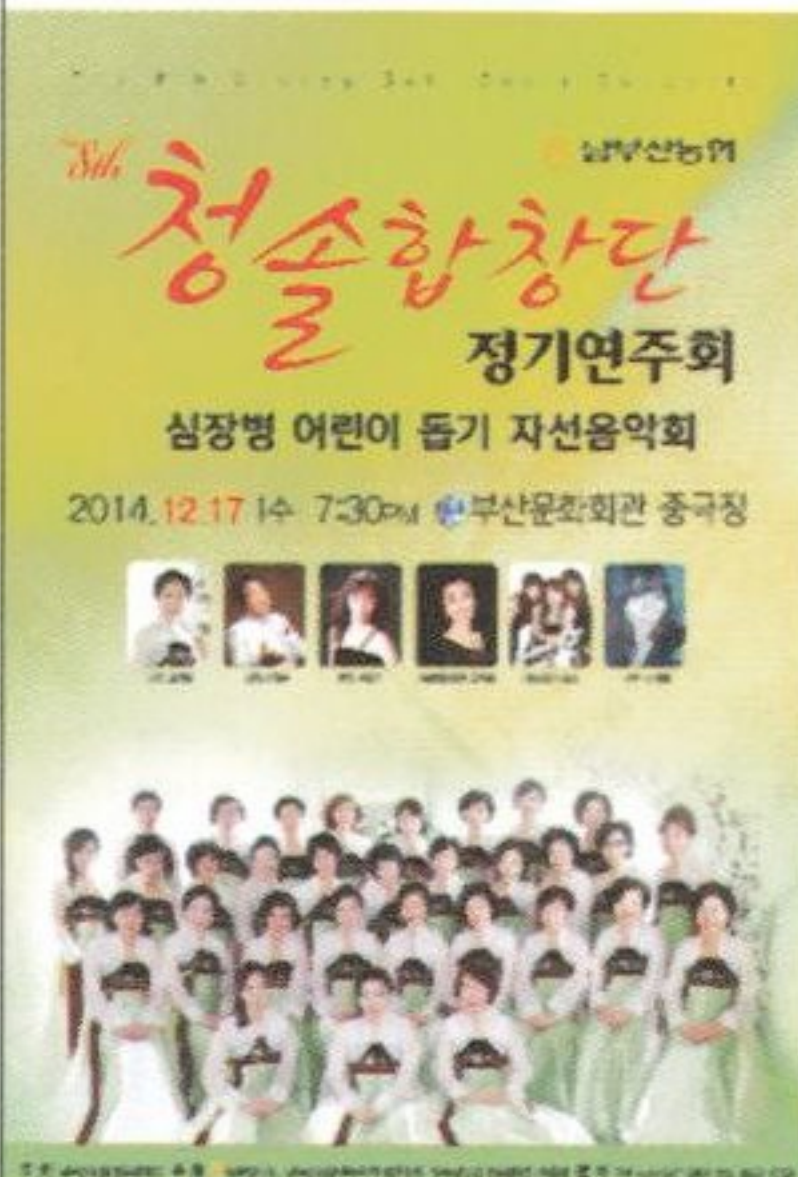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 한마음 한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하는 2014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2014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연말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을 선사한다.

- 지휘/리 신차오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안동시립합창단
- 소프라노/이윤경
- 메조소프라노/르네 레이피어
- 테너/정상혁
- 베이스/리 아오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

일 시 |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청솔합창단 627-6001, 010-9287-6350



남부산농협 주부대학 수료생들로 구성된 청솔합창단의 제8회 정기연주회. 청솔합창단은 1987년 창단 이후 부산시 어머니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2회, 2002년 세계합창올림픽 은메달, 2004년 독일 브레멘합창올림픽 은메달, 휘센합창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 프로그램**
- 이수인/나가자
 - 박지훈/도라지꽃
 - 이기경(편곡)/두껍아
 - 박정선/어디까지 왔니
 - 캐롤/화이트크리스마스, 징글벨 등 수곡
 - 단장/고선희
 - 반주/손혜진
 - 안무/김경아
 - 지휘/강학운
 - 특별출연/하연화, 쉬즈

제1163회 MBC목요일음악회 아지무스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송년갈라콘서트

일 시 |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아지무스오페라단 070-7522-4649

아지무스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송년갈라콘서트로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성악가와 아지무스 드림싱어즈가 오페라와 뮤지컬에 나오는 주옥같은 아리아와 대중적인 팝과 가요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Tonight
 - Meine Lippen sie kussen, Largo al factotum della citta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허미경 왕기현, 테너 김현욱, 바리톤 최강지
 - 피아노/강지원
 - 특별출연/아지무스 드림싱어즈 다문화천사코러스



조희정의 춤 '축제'

일 시 |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18일 목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정경은 010-6711-3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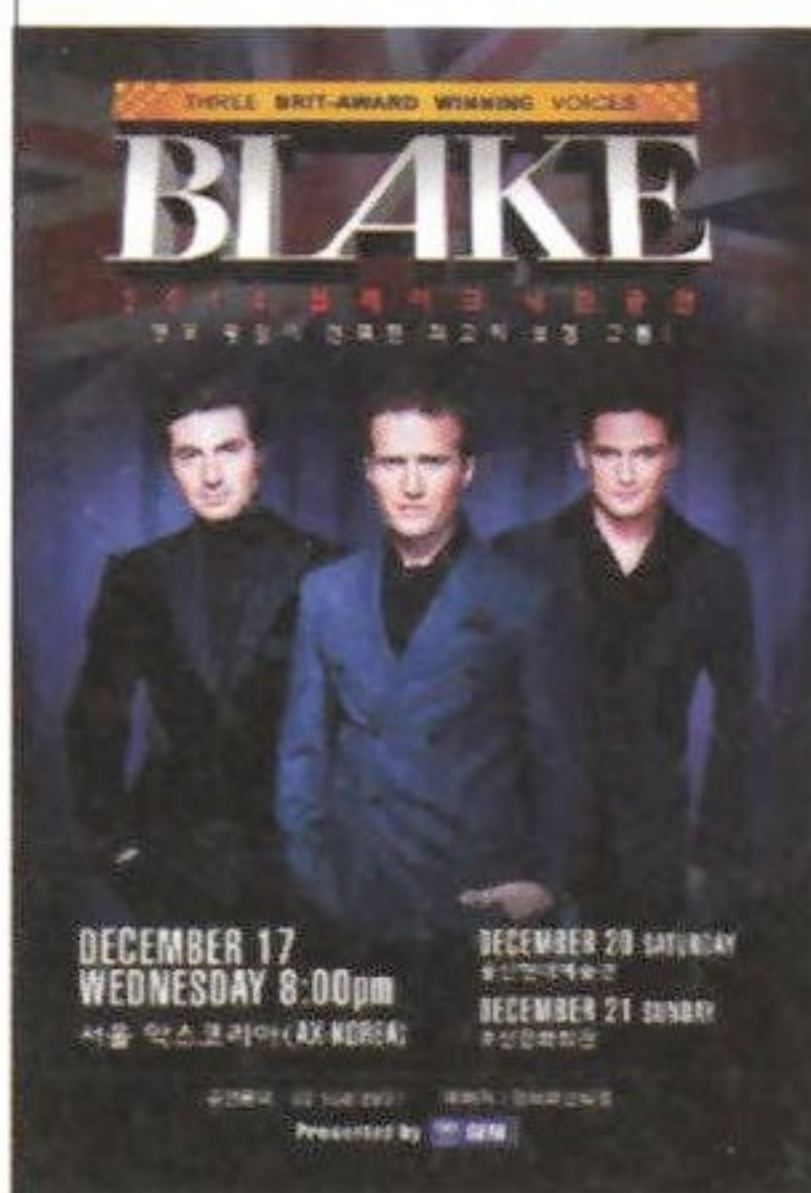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댄스페스티벌 'Feet 2000', 부산현대무용단, 부산무용협회 젊고 푸른 춤꾼, 국제현대무용제, 서울무용제, 국립무용단 특별공연, 목포우수미당 극제전 등 다양한 무대에서 개성 넘치는 춤언어를 선보여온 판 댄스시어터 공동대표 조희정의 2014 춤 '축제'. '축제'는 카프카의 '변신'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의 심리와 신체적 변화, 환경, 그의 움직임을 춤화시켜 소설에서 느꼈던 감정들, 몸에서 느껴지는 진동들을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 안무/조희정
- 출연/허중원, 박은지, 이혜수, 허성준



팝페라그룹 블레이크 첫 내한공연

일 시 |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VIP 9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 지니콘텐츠 02-568-8831



2010년 버킹엄 궁전에서 'All of Me'를 연주하며 수백만의 시청자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영국 팝페라그룹 블레이크(BLAKE) 첫 내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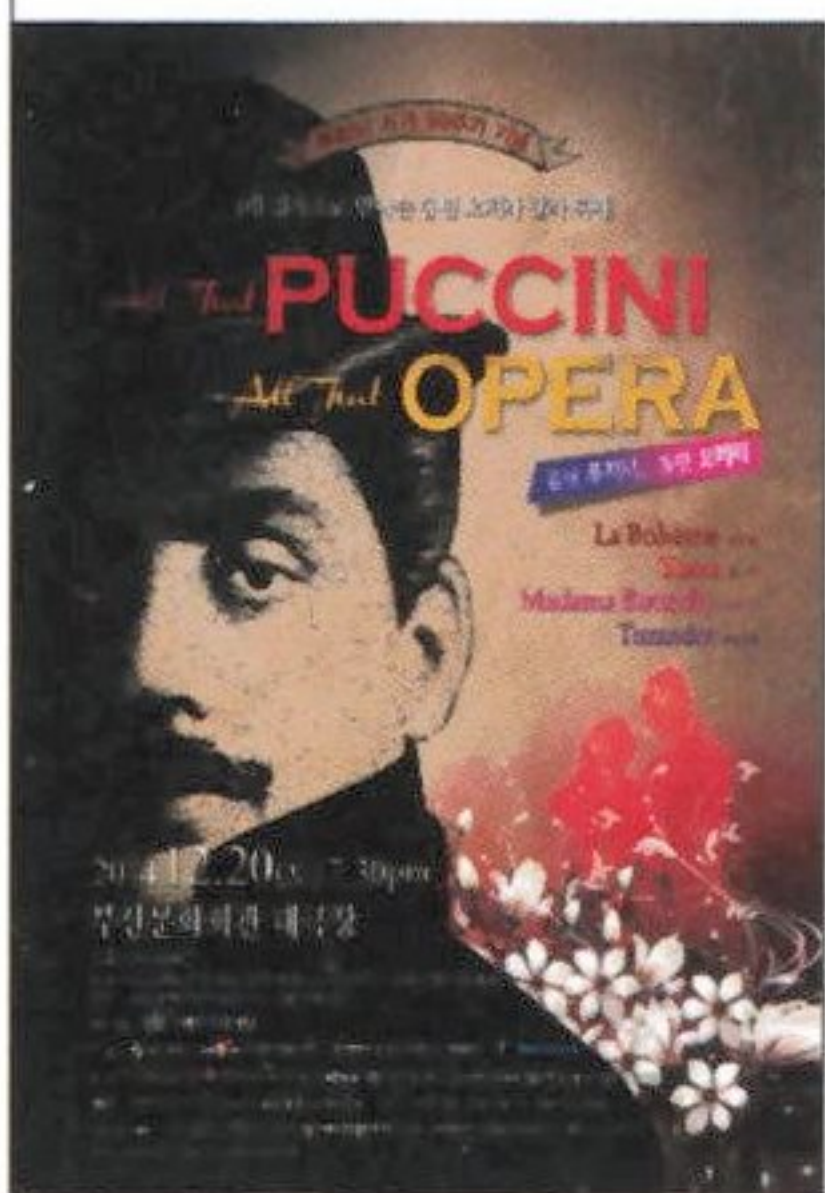
영국 왕실 행사에서 최우선적으로 선택될 정도의 수준급 기량과 세련미를 자랑하는 팝페라그룹 '블레이크'는 윌리엄 왕자 결혼식 공식 축하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더욱 더 전 세계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블레이크'는 'Brit Award'에서 세 번이나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 백만장 이상의 앨범 매진 기록, 500번 세계 투어 라이브 콘서트, 15개국 150회 라이브 쇼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2013년 영국, 스칸디나비아, 호주, 중국, 캐나다, 미국, 모나코 등 세계 투어를 마치고 2014년 12월 역사적인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번 내한무대에서는 팝과 클래식을 믹싱한 조화로운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8주년 기념 제 40회 정기공연 푸치니 서거 90주기 기념 '올댓 푸치니 올댓 오페라'

일 시 |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 의 |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



푸치니(G. Puccini) 서거 90주기를 기념하여 그랜드오페라단이 특별히 준비한 푸치니 오페라 송년 갈라 콘서트 '올댓 푸치니, 올댓 오페라'.

푸치니의 4대 걸작 '라 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투란도트'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푸치니 오페라를 대표하는 여주인공 네 명 각기 다른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푸치니가 추구한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다.

- 지휘/마르코 발데리
- 단장/안지환(신라대학교 교수)
- 오케스트라/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
- 합창/스칼라오페라합창단
- 출연/소프라노 박현정, 오희진, 박효강, 김라희, 황윤정,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김지호, 허동권, 바리톤 박대용

소녀들의 피리이야기

일 시 |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여은혜 010-7197-8515

...

플루티스트 여은혜와 그의 제자들이 그동안의 음악 수업을 돌아보며 솔로, 듀오, 트리오 등 다양한 연주형태의 플루트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Devienne flute concerto, Mercadante flute concerto, Cimarosa flute concerto, Amazing Grace, You raise me up 등 수곡

- 연주/여은혜, 황은수, 황인우, 정민재, 신용인, 신혜림, 신혜원, 권진숙, 장지윤 외

동서대 시낭송&언어디자인 시낭송&시극

일 시 | 12월 22일 월요일 오후 6: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규용 010-9305-1472

...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시낭송&언어디자인 수강생들이 가족과 그리움, 사랑을 주제로 시낭송과 시극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어머니와 사랑,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 아버지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창단 30주년 기념 국립부산국악원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교류음악회

일 시 |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 30주년 기념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과 교류음악회'.

1부에서는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연주, 2부에서는 김철호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는 전통음악의 산실인 국립부산국악원과 창작음악을 모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우리 음악으로 상생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프로그램

- 김지영/국악관현악 '어부가'
- 박영란/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
- 계성원(편곡)/서용석류 태평소시나위와 관현악
- 박범훈(편곡)/북청사자놀이음과 국악관현악
- 이강덕/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 지휘/권성택(1부), 김철호(2부)
- 협연/김혜련(가야금), 김상연(대금), 이종대(부산대학교 교수), 동선본, 김덕수 외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일 시 | 12월 23일-27일 화-토요일 평일 오후 7:30, 토 · 공휴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청소년 전화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51~2

...

2014년 한해 '안네의 일기' '철로' 등 화제작을 선보인 부산시립극단이 준비한 2014년 마지막 작품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한국 연극계의 산 증인인 김의경 선생의 동명 희곡인 '길 떠나는 가족'을 재일교포2세인 '신주쿠 양산박'의 김수진이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구성으로 재탄생시킨 이 작품은 담뱃갑속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를 비롯하여 독창적인 화법으로 한국미술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이중섭의 순수한 예술혼과 아내 마사코와의 운명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원작/김의경
- 연출 · 재구성/김수진
- 예술감독/문석봉
- 드라마트루기/오리라
- 조명디자인 이츠미 츠고오
- 조명감독/이상봉
- 무대미술/오오츠카 사토시
- 작곡 · 음향감독 오오누키 타카시
- 안무/오오카와 타에코
- 출연/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염지선, 황창기, 김은희,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외

김미란 무용단 웰 다잉(well Dying) 프로그램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일 시 |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문 의 | 김미란무용단 010-6711-3922

...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란 무용단의 2014년 무대.

'죽음'을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용어로 설명한 월호 스님의 최근 신간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에서 비롯된 웰다잉 프로그램을 춤으로 이끌어낸 김미란 무용단 웰 다잉(well Dying) 프로그램 '메멘토 모리'는 인생을 멋지게 내려놓는 방법으로 수많은 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무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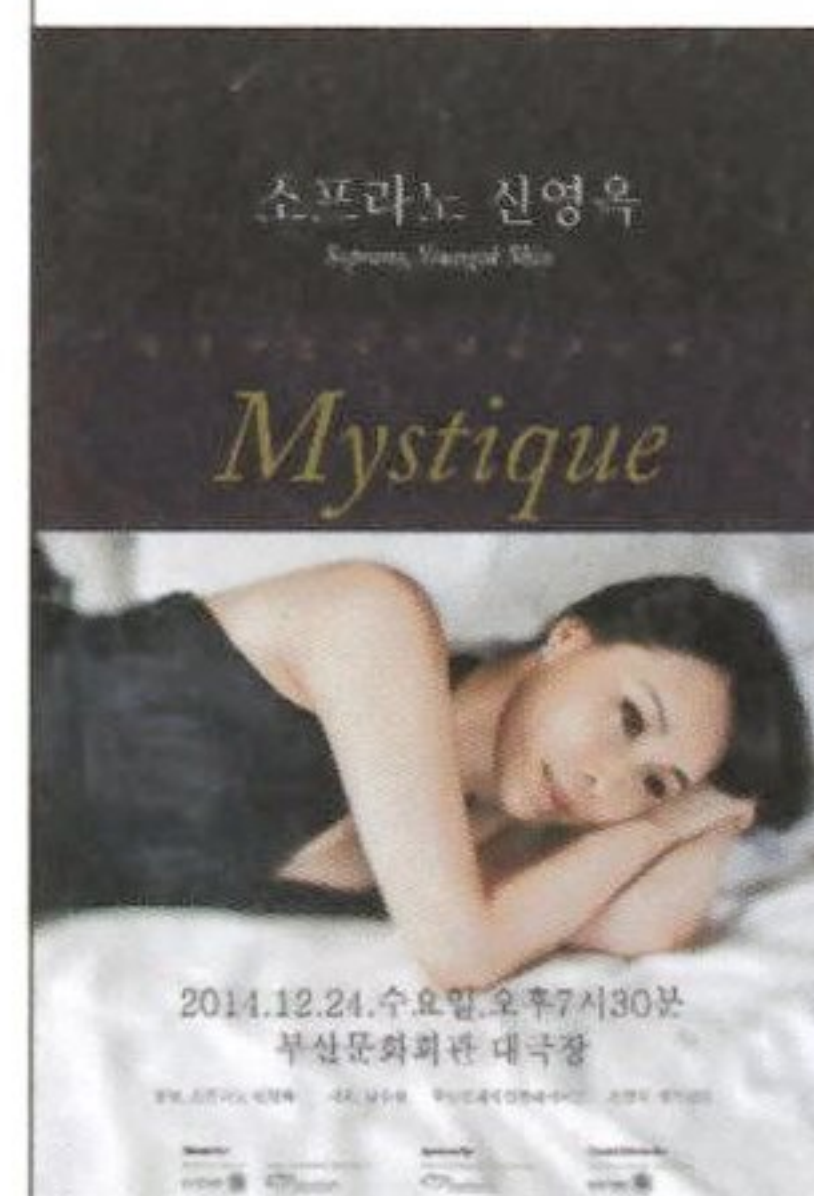
- 안무/김미란
- 출연/박찬영, 허종원, 김수현, 박광호, 이창규, 전해련, 최의옥, 김미란



2014 새 음반발매 기념 신영옥의 MYSTIQUE

일 시 |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 S석 10만원
A석 8만원 · B석 5만원
문 의 | 온지프렌즈 02-2038-2267

...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세계 무대에 한국을 알린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리릭 콜로라투라 신영옥의 음반 발매 기념 독창회.

이번 콘서트에서는 신영옥이 오페라로 세계무대에 각인 시킨 주요 아리아와 새 음반 수록곡, 크리스마스 시즌 송을 선곡, 그 동안

클래식을 어렵게 느껴왔던 일반 음악 팬들도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스파이더맨, 고스트라이더 등의 영화 음악감독으로 할리우드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남수진이 지휘를 맡아 한국콥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며,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이 함께하는 전성식 재즈밴드가 더욱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헨델/오페라 '세르세' 중 'Lascia ch'io pianga' 드볼작/오페라 '루살카' 중 'Song to the moon' 등

프로그램
가이드

예그리나 합창단 창단연주회

일 시 |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황광주 010-8536-1148

2011년 아모르 합창단으로 출발, 2013년 예그리나 합창단으로 새롭게 창단된 아마추어 시니어합창단 '예그리나 합창단' 창단연주회.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교사 등 교육자 출신과 전·현직 중소기업 경영인, 공무원, 시인, 수필가, 사진작가, 농부,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하나로 어우러져 절제와 배려로 화음을 만들어가는 예그리나 합창단은 지난해 전용 연습장 '시몬.홀'을 개관하고 연습에 매진해왔다.

프로그램

백학, 꿈길에서, 스와니 강, 가곡 임이 오시는지, 뱃노래 등 수곡
• 지휘/오세종
• 반주/이현숙



Art Ensemble Of Busan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문의 | Art Ensemble Of Busan 010-2963-6450

2010년 부산예술대학교 최창근 교수가 은사인 최성준 교수의 도움을 받아 부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재즈 뮤지션과 각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결성한 Art Ensemble Of Busan이 들려주는 송년음악회. Art Ensemble Of Busan은 현재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의 후원을 받는 BS문화그룹 문화 예술단으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the opener, message from art, caravan,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I can't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 등 수곡
• 단장/최성준 • 음악감독/최창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3회 정기연주회 2014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일 시 |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2014년 한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무리하기 하는 2014년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이번 송년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반주로 부산시립합창단 남성합창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헨델 메시아에 도전한다. '메시아'는 헨델의 작품들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곡으로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적 유산의 하나로 꼽힌다.

프로그램

김동수/창작곡 시리즈 VI '주는 그리스도' 알렐루야
박정선/각설이 타령
베버/사냥꾼의 합창 - 베버
구노/병사들의 합창 - 구노
헨델/메시아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기장군해송여성합창단(지휘/권영기)
부산시립합창단 남성합창
부산시립교향악단

아듀! 2014 뉴아시아오페라단 송년음악회 The Last Propose

일 시 | 12월 28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 뉴아시아오페라단 1600-6867

2008년 부산소극장오페라양상블로 창단, 지난해 뉴아시아 오페라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도약한 뉴아시아오페라단의 2014년 송년음악회. 뉴아시아오페라단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아시아의 여러나라들과 다양한 공연, 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서곡, 투우사의 노래, 하버네라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라돈나 모빌레 푸치니/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뮤지컬/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명성왕후 중 '나 가거든' 등 수곡
• 지휘/윤상운
• 연주/인코리안 오케스트라
• 사회&해설/김윤선
• 출연/소프라노 김유섬, 김현숙, 그레이스 조, 박나리, 왕기현, 이지은, 메조소프라노 장은, 하윤지, 테너 김지호, 홍지형, 바리톤 권영기, 김기환, 박기국, 윤오건, 제상철

부산 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단장 박강우 010-2553-0737

2007년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의사와 치과 의사로 구성된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이 들려주는 제9회 정기연주회. 음악과 클라리넷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숨쉬고 있는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은 매주 1회 합주 모임을 가지며 음악을 통한 자기개발과 단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병원 입원 환우나 사회 약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왔다.

프로그램

사운드 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비틀즈 클래식, 이문세 모음곡, 랫잇고, 인더무드 등 수곡
• 지휘/김태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4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대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 2014년 송년음악회. 리스트의 음악성을 대표하는 '헝가리 환상곡',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인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드보르작 최고의 교향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8번 교향곡으로 기쁨과 환희, 회상이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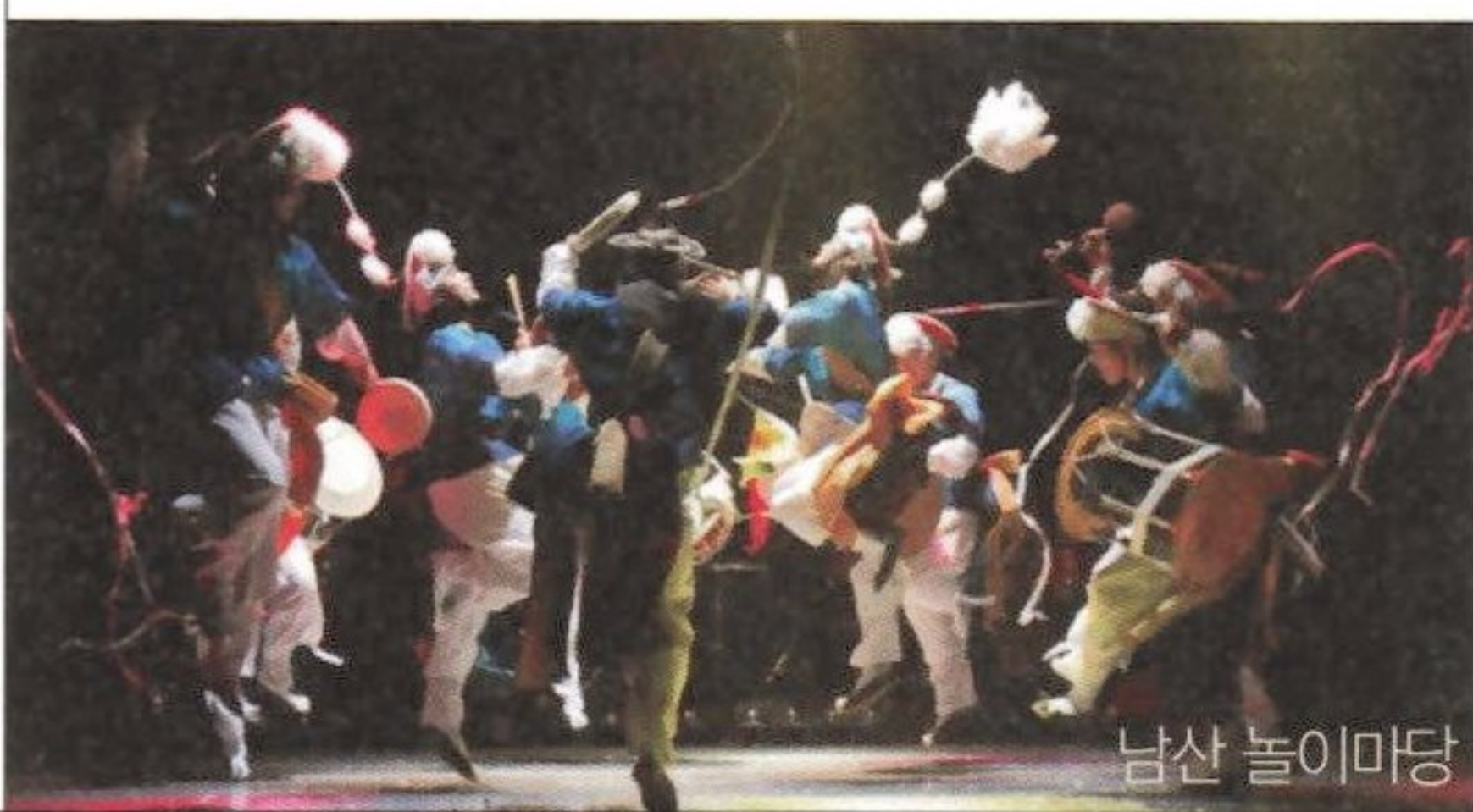
로시니/세비아의 이발사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중 제1악장
리스트/헝가리 환상곡
드보르작/교향곡 제8번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이에서(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김선영(피아니스트)

부산이야기 금정산 고당할미전

일 시 |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516-4434

예술작품을 통해 부산만의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에서 의욕적으로 기획한 부산이야기 '금정산 고당할미전'.

부산의 대표적 영산인 금정산의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제작한 이번 무대는 금샘이 상징하는 무한한 사랑과 고당할미가 살아 생전과 죽은 후에도 이루고자 한 무한한 사랑이 전해지는 설화를 지역 예술가들이 클래식과 국악간의 장르를 넘어서는 융합공연으로 선보인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제야음악회

일 시 |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0: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2014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5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4년 제야음악회.

김주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2014년 제야음악회는 1부에서는 소프라노 김순영과 테너 신동원의 아름답고 감미로운 이중창으로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 주고 2부에서는 밝고 경쾌한 축전 선율과 열정적인 바이올린 연주로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노래한다. 2013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특별상(피플투피플)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순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리치아 알바네제-푸치니 콩쿠르, 카루소 콩쿠르, 자르자리 콩쿠르, 팜비치 오페라 콩쿠르 등 세계적인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신동원, 18세의 나이로 티보 바르가 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을 석권하며 화제를 모은 박지윤이 협연한다.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12월 6일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태평무(춤/황선희)
 농(弄)(춤/김주령 · 수석단원)
 입춤(춤/최의옥)
 경고춤(춤/정진희, 김미란)
 부채산조(춤/윤은하 · 수석단원)
 진도북춤(춤/강모세, 김윤호, 황동하, 장영진)
 • 구성 · 안무/홍경희(예술감독)



12월 20일 양상블 마즈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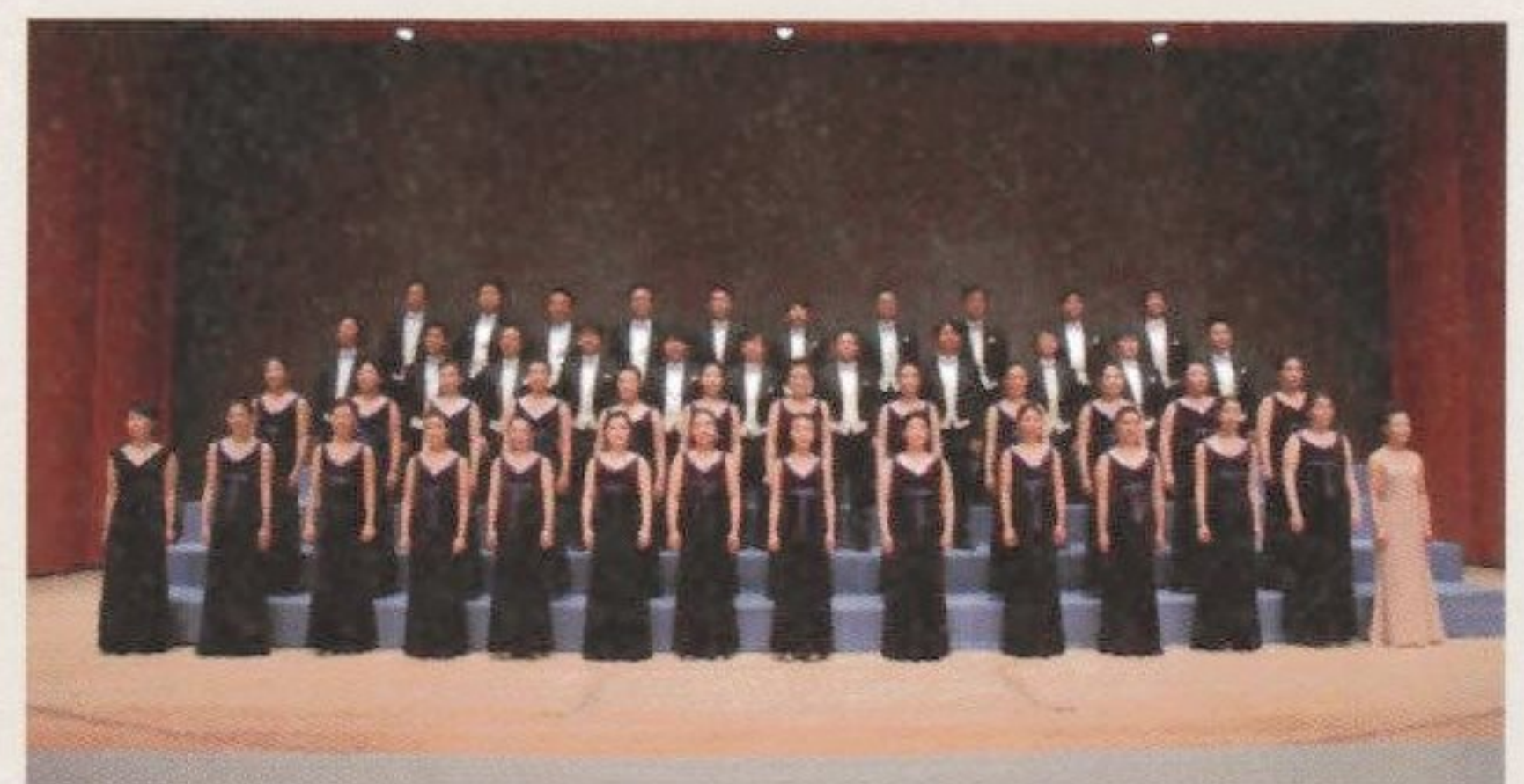
프로그램
 드볼작/5개의 바기텔 작품 47
 모차르트/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 1악장
 쇼스타코비치/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모음곡 5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피아졸라/아디오스 노니노 등 수곡
 • 연주/1st. Violin 정운화, 2nd. Violin 김가희, vla. 김미주, pf. 곽수련



12월 13일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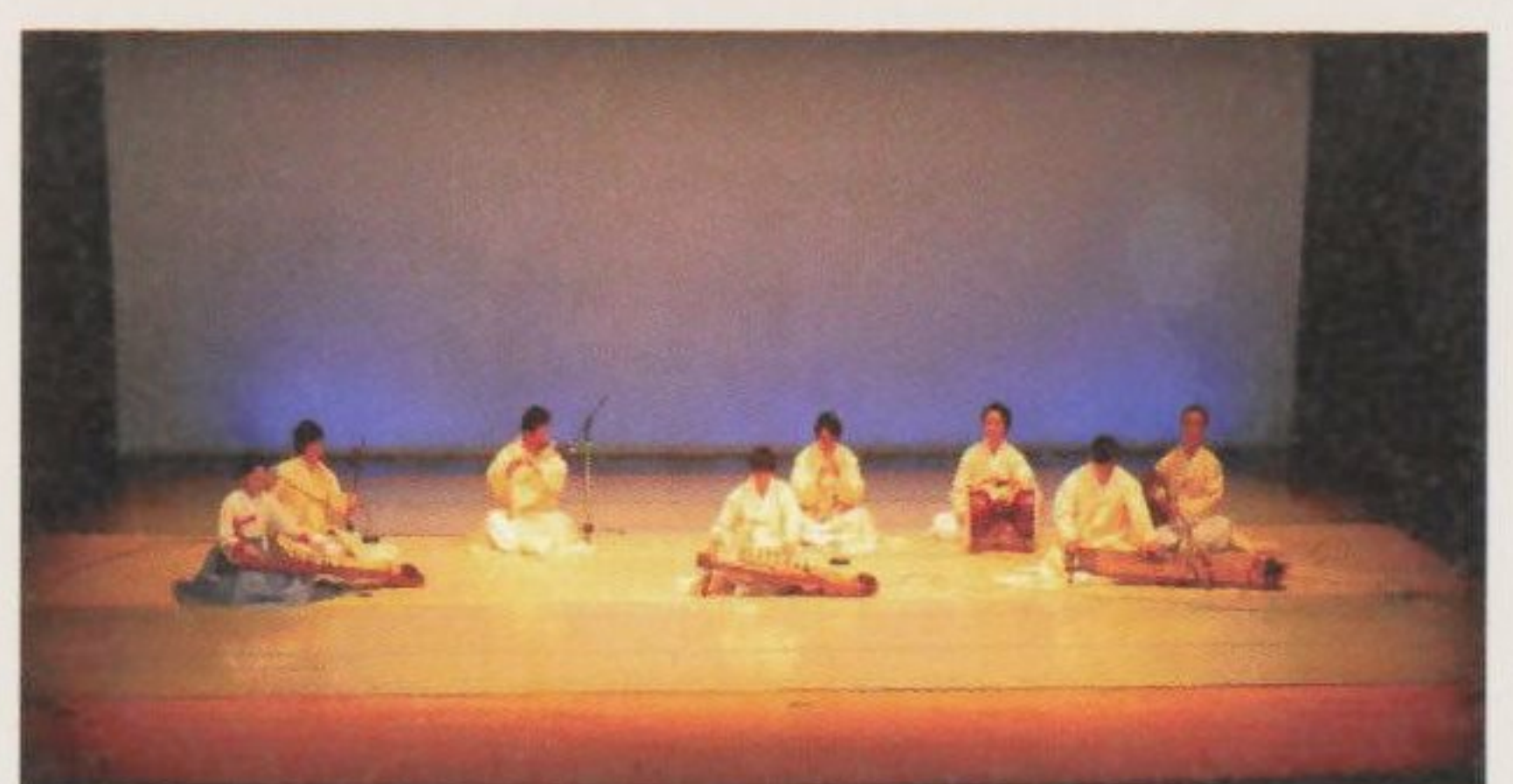
프로그램
 흑인영가/Swing Low, Little David, Play on your harp, Were you there?, Deep River
 오페라 합창/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 오페라 '세르세' 중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Ombra mai fu)',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그대는 아는가 사랑의 괴로움(Voi Che Sapete)' 등 수곡

• 지휘/박광하 • 반주/이승윤, 이경미



12월 27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해령(집박/채수만 · 대금/한영길, 손한별, 강영진 · 피리/진형준, 박영은, 정주아 · 해금/방병원, 윤해승, 김소현 · 아쟁/박일 · 장구/이장우 · 좌고/이경희)
 박종선류 아쟁산조(아쟁/최영훈 · 장구/박재현)
 시나위(대금/손한별 · 피리/정주아 · 해금/김소현 · 아쟁/박일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강상호 · 장구/전학수 · 징/박재현)
 판소리(소리/정선희 · 고수/송강수)
 사물놀이(꽝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징/이경희 · 북/박재현)



음악

제5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음악회 '어머니...나의 어머니'

일 시 | 12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신정순 010-4434-6605



부부성악가인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가 함께하는 부부음악회 다섯 번째 무대.

신정순은 동의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고봉수는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 조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머니'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가곡과 가요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부산여성그레고리오성가단(지휘 최유정), 테너 류신기, 바리톤 고승현
• 피아노/권선경, 김아영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2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백재진 890-1318, 512-4295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비루투오조 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백재진은 그동안 수차례

독주회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코리아시포니에타와의 협연을 비롯 중국 천진교향악단,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부산 국제마루음악제, 예술의전당 Nomos Trio 초청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8번
비탈리/샤콘느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 피아노/서혜리

아모로제성악연구회 제5회
정기연주회 'O Holy Night'

일 시 | 12월 2일 화요일 오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모로제성악연구회 010-3868-2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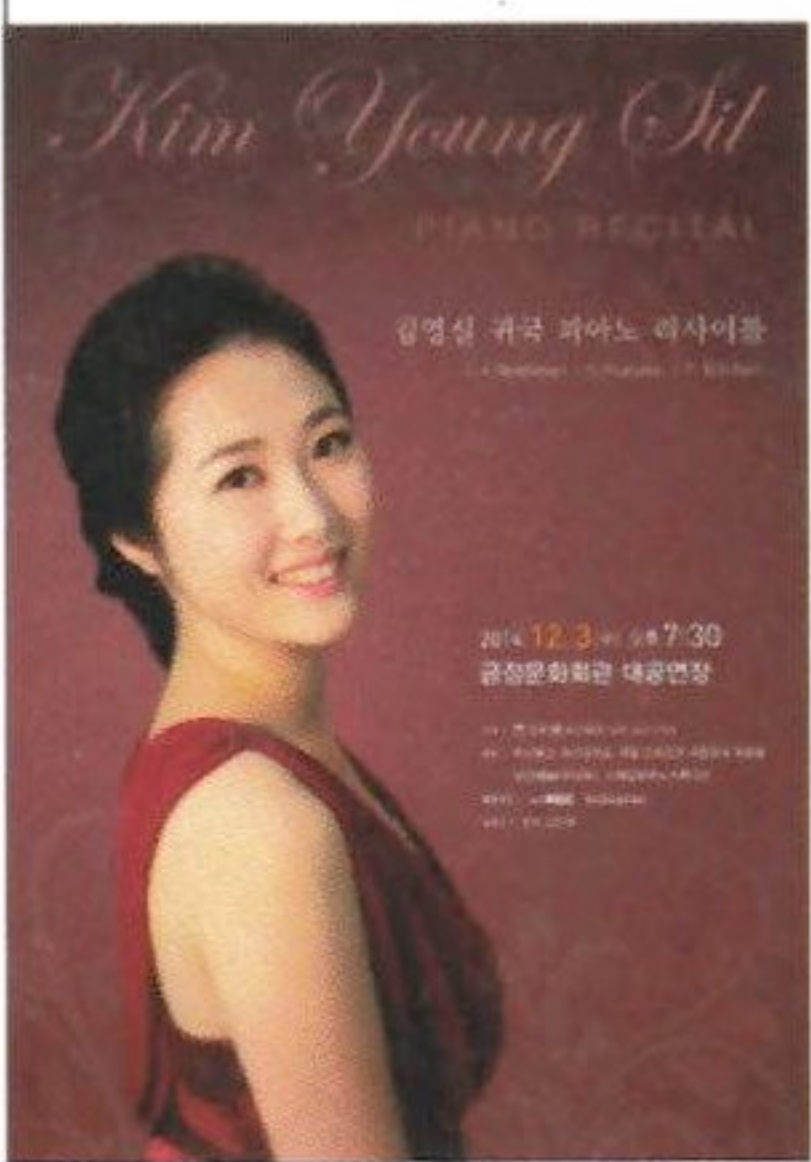
동서대학교 정태미 교수와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아모로제성악연구회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2년 3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기획,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하고 있는 아모로제성악연구회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국내외 성가곡과 오페라 합창, 오라토리오, 성탄곡 등 송년무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정태미, 조선미, 이현정, 구민영, 이지은, 황현정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 테너/이홍득
• 첼로/최지현
• 바리톤/윤오건
• 피아노/이소영, 김란

김영실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2월 3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탁월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김영실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영실은 그동안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세종문화회관), 이원문화회관, 피아노문헌연구회(서울 모차르트홀),

Philharmonies Orchester Plauen Zwickau, 부산시립교향악단, Carl Maria von Weber Museum, Cosel palais Dresden 등 11차례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김영실은 현재 부산아카데미 연구회, 부산듀오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31-2 '템페스트'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7번 작품 83
슈베르트/소나타 D.960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24일, 31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3일 현대음악앙상블 Nouvelle Vague 창단연주회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바이올리니스트 홍은지, 비올리스트 김민경, 첼리스트 현리사, 피아니스트 진승민, 윤민영으로 구성된 현대음악앙상블 Nouvelle Vague의 창단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사티, 슈니트케, 메시앙 등 현대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10일 아미치 세펠레 오페라 갈라 '라 보엠'
부산, 경남지역 성악가들이 관객과 보다 친근하게 만나고 호흡하기 위해 창단된 아미치 세펠레가 들려주는 오페라 갈라무대 '라 보엠'.
• 출연/왕기현, 이은미, 이철성, 한우인, 조현수, 김지영, 지광윤, 이기윤

17일 벨칸토의 밤
벨칸토의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의 주요 작품들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경희, 장은영, 왕기현, 김정아, 김지혜, 김아름
• 테너/이철성, 양승엽, 허동권
• 바리톤/정승화, 조현수, 김기환

농암 정우수의 一路

일 시 | 12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우수 242-3100, 010-3867-7198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 상쇠 및 풀이 예능보유자인 정우수의 2014년 무대 '一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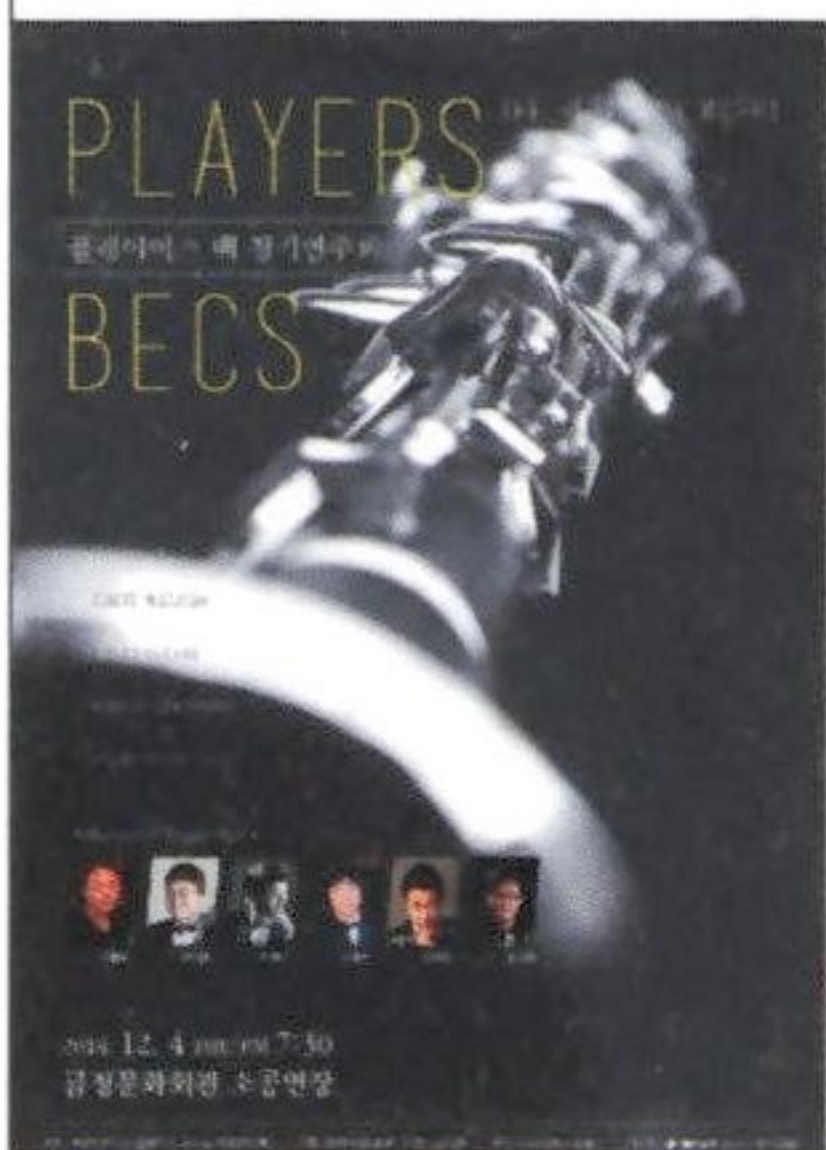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풍물을 익혀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북·장구 예능보유자를 거쳐 2011년 이후 고분도리걸립 예능보유자로 활동해온 정우수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고분도리걸립 풍물굿 중 제를 지내는 굿판을 제외한 마당놀이를 중심으로 상쇠 놀음과 열두발 상모놀이, 들벅구, 설장구, 상모놀이 등 개인 놀이를 연희한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서구 서대신동 일대의 옛 지명인 고분도리 지역에서 행해진 걸립으로, 정초에 나쁜 일은 물리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행해지는 풍물굿이다.

|프로그램|
성주풀이, 삼도 사물놀이, 부산 아미북춤, 고분도리걸립 판굿 등

플레이어스 벡(Players Becs)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플레이어스 벡 010-8007-8087



국내외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경남, 경북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로 결성된 '플레이어스 벡(Players Becs)' 정기 연주회.

국내 유일의 클라리넷 솔리스트 단체인 '플레이어스 벡'은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독주, 듀오, 트리오, 콰르텟 등 편성에 구애 받지 않고 아름답고 화려한 클라리넷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플레이어스 벡(Players Becs)'의 'Bec'은 프랑스어로 클라리넷의 마우스피스를 뜻하는 말로, 클라리넷을 부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 연주/항남용, 권병욱, 장일훈, 유지훈, 정준화

故 박근기 선생님 추모 음악회

일 시 | 12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정민 010-8500-0094



부산한울림합창단과 동백합창단, 부산코러스합창단, 부일여성합창단, CEO중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부산합창음악을 이끌었던 **故 박근기** 선생 추모 음악회.

박근기 선생은 성지공고 음악교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부산어울림합창단 지휘를 마지막으로 지난 2013년 11월 27일 타계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근기 선생의 제자이자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황장수가 지휘하고 선생이 창단, 지휘했던 부산한울림합창단, 부산코러스합창단 등 7개 합창단 단원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고인을 추모하는 뜻깊은 무대를 펼친다.

- 지휘/황장수
- 사회/김영희
- 독창/소프라노 김정자, 테너 김정민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현악사중주와 플루트&기타의 만남

일 시 | 12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와 홍기정, 비올리스트 박소영, 첼리스트 우리라, 플루티스트 김영,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이 함께하는 현악사중주와 플루트&기타의 만남.

- |프로그램|
- 어메이징 그레이스
- 하이든/십자가상의 칠언 작품 51
- 모차르트/플루트 사중주 KV 285
- 보케리니/기타를 위한 5중주 제4번 '판당고'



Space UM '차가 있는 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25일 공연없음)
 스페이스 음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 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4일 트리오 에피모와 함께하는 Salon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원과 피아니스트 이경은, 첼리스트 이현지로 구성된 트리오 에피모의 무대.

11일 블루앙상블 송년음악회 'Adios! 2014'

클래식 전공자로 구성된 퓨전 현악앙상블 '블루앙상블'의 송년무대.

- 연주/바이올린 박광식, 서은아, 콘트라베이스 윤민우, 피아노 한경수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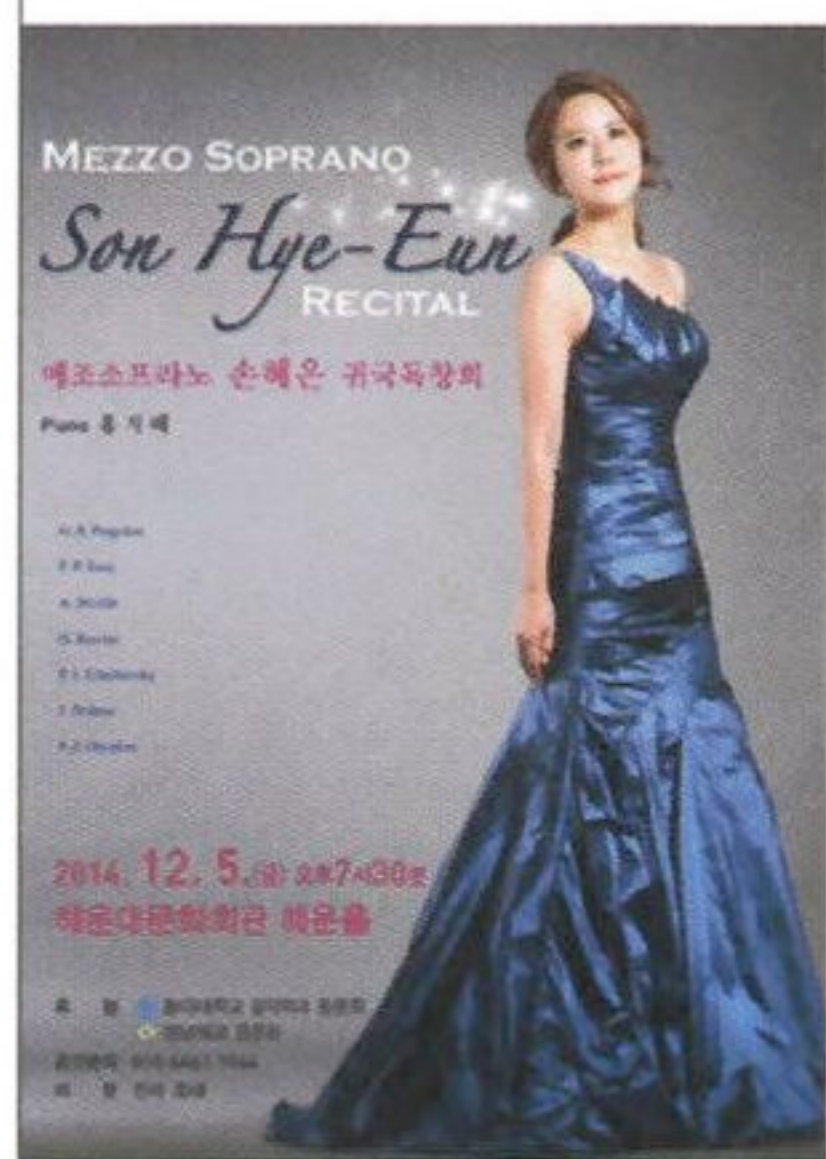
18일 재즈피아니스트 남경윤&Friends '크리스마스, 달콤한 재즈콘서트'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크로스오버연주상, 미국 디트로이트 최우수 음반상을 수상한 재즈피아니스트 남경윤과 보컬 이주미, 베이스리스트 하지메 나와, 재즈드러머 서미현, 색소포니스트 강덕호가 함께하는 재즈콘서트.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귀국독창회

일 시 | 12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손혜은 010-4461-1044



섬세한 표현력과 서정적인 음색을 지닌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귀국독창회.

동아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유학, 이탈리아 노바라 국립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밀라노 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후 귀국한 손혜은은 이번 무대에서 페르골레시, 토스티, 드보르작, 로시니 등 명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이탈리아로 유학, 이탈리아 노바라 국립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밀라노 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후 귀국한 손혜은은 이번 무대에서 페르골레시, 토스티, 드보르작, 로시니 등 명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 페르골레시/당신이 나를 사랑하여 한숨짓는다면
- 드보르작/집시의 노래 작품 55 중 '내 노래는 울려 퍼지고'
- 로시니/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중 '잔인한 운명여! 잔혹한 사랑여!'
- 차이코프스키/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등 수록

- 피아노 홍지혜

한겨울밤 콘서트

일 시 | 12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우리 시대의 영원한 테너' 엄정행과 경기명창 김영임이 함께하는 한겨울밤 콘서트.

호쾌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국가곡의 대중화를 이끈 엄정행은 지난 2009년 경희대 교수를 정년퇴임한 뒤 고향인 경남 양산에 엄정행 음악연구소를

개원,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1974년 음반 '회심곡'이 국악계 최초로 100만장 이상 팔리면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영임은 20여년간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20~30회 공연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한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중심으로 가야금 전공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이 함께 무대에 선다.

세종솔로이스츠 PASSION

일 시 |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최상의 연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가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PASSION'. 미국 CNN이 '세계 최고의 앙상블'이라고 극찬한 세종솔로이스츠는 미국 줄리어드 음대 교수이자 예술감독인 지휘자 강효와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8개국 출신의 젊고 유명한 연주자들로 구성된 연주단체로, 그동안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400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세계 주요 무대에 오르며 '한국'과 '세종'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왔다. 라틴의 열기와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발매 이후 높은 판매고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음반 'PASSION'에 수록된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비롯해 다양한 연주곡을 만날 수 있다.

김윤희, 유지훈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2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김윤희 010-8925-9838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석사과정,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출강중인 플루티스트 김윤희와 부산 물라디 클라리넷 컴퍼니 악장, 현대음악앙상블 누벨바그 리더로 활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의 듀오 무대. 맑고 청아한 플루트와 깊고 풍부한 클라리넷 선율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에서 초연되는 교내송 '테크노 퍼레이드', 드뷔시 '목신의 오후' 등이 연주된다.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장일범의 영화 속의 음악시리즈 7 영화 속의 사랑(Love Actually)

일 시 |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영화 속 음악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폭넓은 클래식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2014년 마지막 무대. 해박한 지식과 재미있는 해설로 사랑받고 있는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함께 떠나는 영화 속 음악 여행 일곱 번째 무대로,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위솔로이스츠'가 영화 '불멸의 사랑'을 비롯 로맨틱코미디 '메리에겐 뭘가 특별한 것이 있다',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 등 로맨틱 영화들의 감동적인 명장면을 연주로 들려준다.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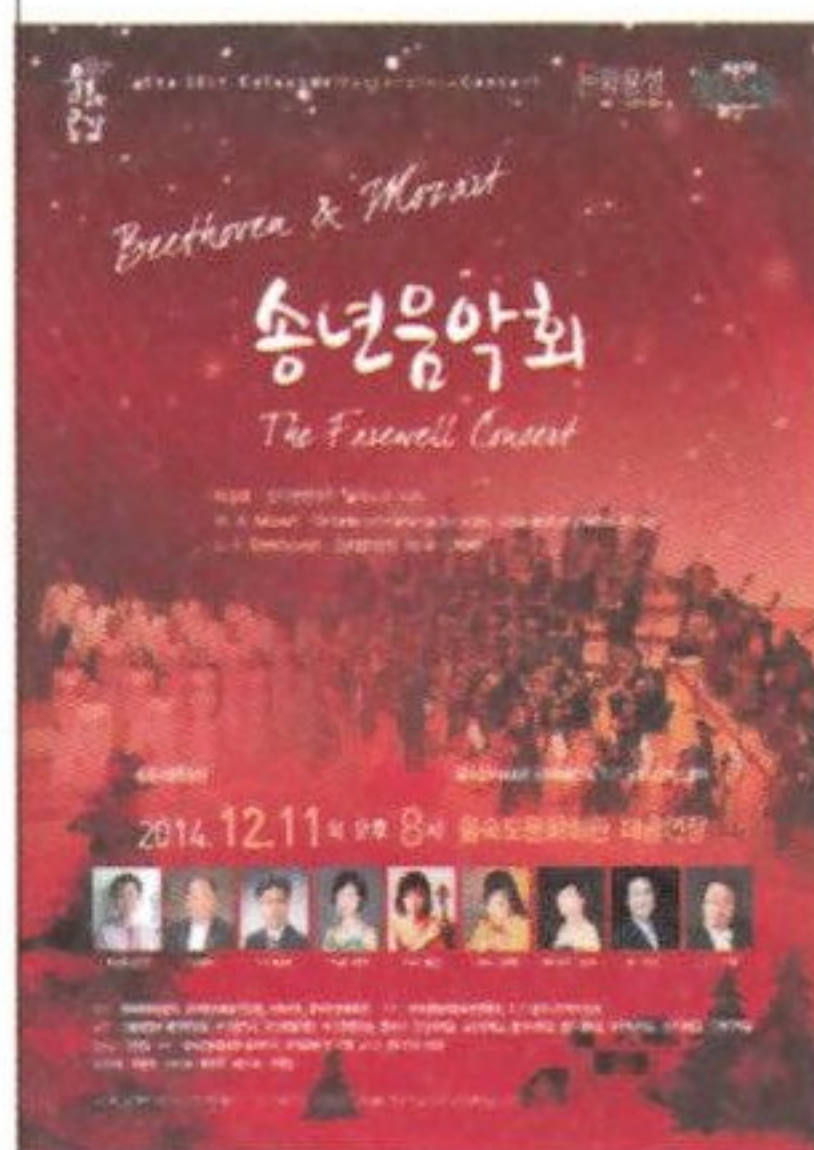
저물어가는 2014년 동래문화회관과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결성 후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시작으로 오페라 아리아, 영화 주제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오보에/강인호
- 테너/장진규
- 소프라노/고예정



제38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송년음악회 '베토벤 & 모차르트'

일 시 |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을숙도문화회관 상주예술단체인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와 김해시립합창단이 출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 백승태의 창작곡 '을숙도의 노래'와 송년에 어울리는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2014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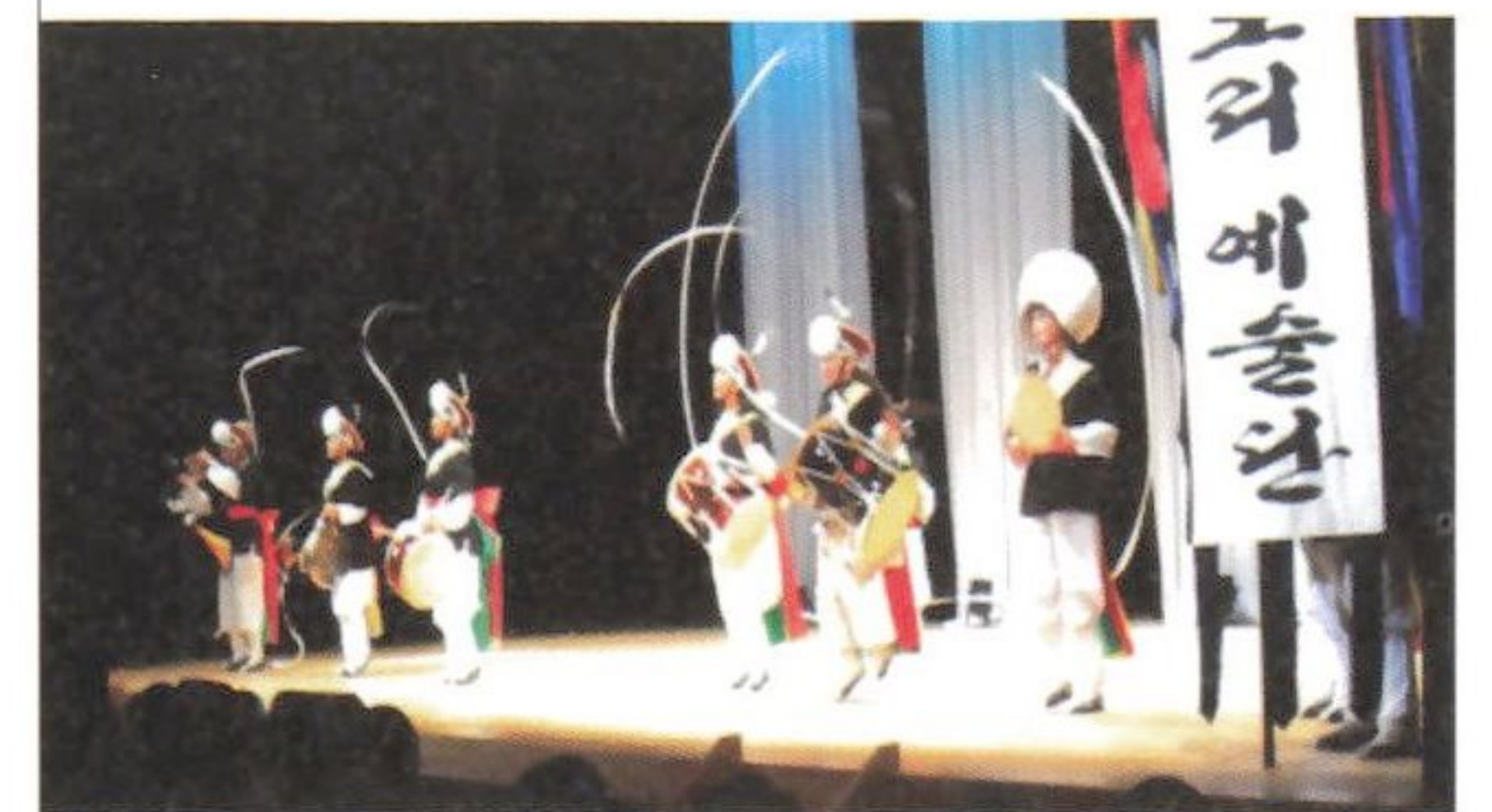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이효상
- 작곡/백승태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김해시립합창단
- 출연/바이올린 조현미, 비올라 김은진, 소프라노 김경희, 메조소프라노 김라희,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정대

회오리예술단 '회오리바람'

일 시 |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해선 010-2330-0174

지난 2005년 3월,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국악 모듬복과 수료생들로 중심으로 창단한 회오리예술단의 네 번째 정기공연. 국악은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멋과 흥을 알려온 회오리예술단은 이번 무대에서 우리 가락의 멋진 소리를 회오리바람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구성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김한동(지도교수), 김용선(단장), 한해선(조교), 서미자, 김종선, 최진숙, 강혜림, 한정유, 정무진
- 객원출연/김선영(부산여자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나영(중요무형문화재57호 경기민요 전수자)
- 사회자/이창규



Program Guide >>

Space UM 토요 특별공연

일 시 | 13일(토), 20일(토) 오후 7:30

스페이스 음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

13일 재즈보컬 백흥선 '백스그루브'와 동아대 실용음악학과 친구들의 음악나눔 릴레이 자선콘서트



재즈보컬리스트 백흥선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 결성된 부산의 재즈그룹 백스그루브와 그가 가르치고 있는 동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버스킹밴드 '쭈쭈단호박', '반건조밴드'가 펼치는 자선콘서트.

콘서트에 앞서 2시부터는 스페이스 음 야외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20일 동의대학교 재즈앙상블 & 탁경주 트리오 'Jazz Extravaganza'

최근 'Jazz Guitar Classics' 음반을 통해 국내 재즈음악계 및 재즈기타씬을 뜨겁게 달구었던 탁경주 트리오와 재즈기타리스트 탁경주가 가르치고 있는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동의대학교 재즈앙상블이 함께하는 무대.

THE HA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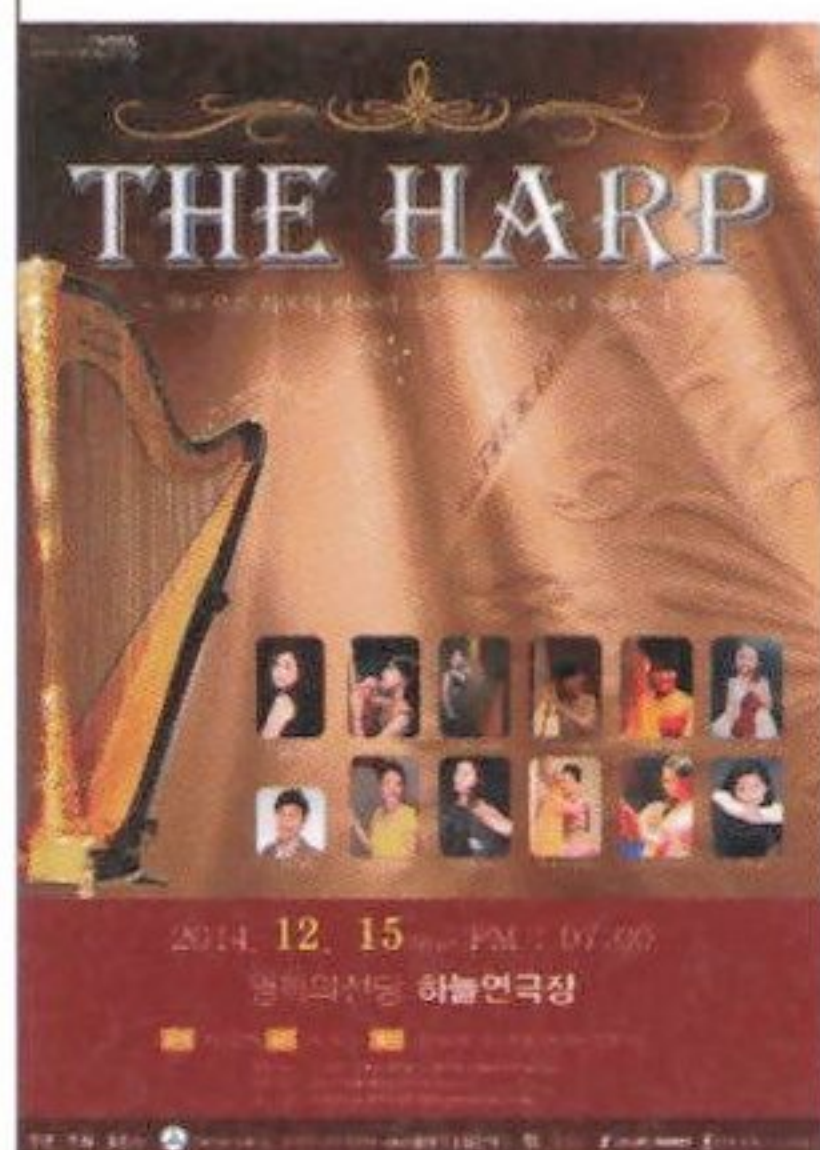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 양자영 010-7224-8006

...



'하프는 귀족악기'라는 편견을 깨고 보다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 'THE HARP'.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이지만 독립악기로서 접할 기회가 흔치 않고 고가의 악기라는 인식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아

온 하프를 보다 친숙하고 대중적인 악기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하피스트들을 초청,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랜드 하프에서 작은 켈틱 하프까지 다양한 악기와 연주로 하프가 가진 감미로운 선율의 매력을 선사한다.

- 총괄기획/양자영
- 해설/김현욱(아나운서)
- 출연/양자영, 박라나, 한혜주, 이기화, 안승현, 김지인, 이주영, 한채민, 김채하
- 찬조출연/김가현(바이올린), 김지후(하프)

경성대학교 예술경영전공 기획공연

'당신의 청바지'

일 시 |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배아름 010-4817-9645

...

경성대학교 예술경영전공 재학생들이 기획 제작한 첫번째 공연으로, '청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지금까지의 비슷한 형식의 연주회에서 벗어나 장르를 불문, 더 넓고 다양한 연주를 청춘 사연과 함께하는 색다른 형식의 연주회를 펼친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작곡가 김성현의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피아노

일 시 |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계명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작곡가 김성현의 이야기가 있는 해설음악회로, 잘 알려진 동요나 민요를 클래식 피아노곡으로 새롭게 편곡, 그 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주를 들려준다.

제31회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50% 할인)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부산이 낳은 최고의 소프라노 김유섬과 테너 김경의 무대로 마련되는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2014년 송년무대.

동양인 최초로 독일 본국립오페라단 정식 주역가수로 활동하며 화제를 모았던 김유섬은 한국인의 콩쿠르 수상이 드물었던 시절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에서 연속 2회 1등상을 수상하며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 특별출연/테너 석동호



클라리넷 듀오앙상블 'Les Deux(레두)' 연주회

일 시 |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이원기 010-8280-9229

...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 물라디 클라리넷 컴퍼니 리더로 활동중인 이원기와 부산 물라디 클라리넷 컴퍼니 악장, 현대음악앙상블 누벨바그 리더로 활동중인 유지훈으로 결성된 클라리넷 듀오앙상블 'Les Deux(레두)'의 첫 번째 연주회.

프랑스어로 '2인조'라는 뜻을 가진 클라리넷 듀오앙상블 '레두'는 이번 무대에서 폰키엘리 '2대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디베르멘토', 폴랑 '2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소나타'와 작곡가 황선영의 위촉곡을 들려준다.



장사익 소리판 '짚레꽃'

일 시 | 12월 19일(금) 오후 7:3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의 | (주)KBS비즈니스 620-7181

...

독특한 창법과 감성으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소리꾼 장사익의 소리판 '짚레꽃' 부산공연.

45세의 나이에 데뷔한 늦깎이 뮤지션 장사익은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세계와 한 서린 절창으로 청중들의 가슴을 후려치는 진정한 소리꾼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이 있는 제10회 부산예술중학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2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객민정 010-3069-9777

...

부산예술중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결성된 부산 예술중학교 어머니합창단의 정기연주회.

그림 전시회와 합창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무대로, 부산예술중학교 어머니들의 열정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 지휘/채범석
- 반주/김선희

프로그램
가이드

**플루티스트 김현정 독주회
크로스오버 음악의 향연**

일 시 | 12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우리아트 920-9545

...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수잔 밀란이 격찬한 매력적인 플루티스트 김현정 독주회.

영국 런던음악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왕립협회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김현정은 런던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가졌으며 Susan

Milan, William Bennett, Margaret Campbell 등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하며 음악의 폭을 넓혀왔다.

London Ealing Flute Academy 단원으로 수차례 실내악 무대에 오른 김현정은 현재 플루트 소장, BKM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석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 찬조출연/가야금 하지희, 피아노 김병기, 클라리넷 장일훈, 첼로 김기도, 비올라 이상환
- 해설/박진홍

**웅산, 서범석, 오정해 with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겨울 콘서트**

일 시 |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인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가 소중한 가족, 연인, 친구들을 위해 마련한 송년무대 '겨울 콘서트'.

장르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음색으로 아시아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불리는 재즈 디바 웅산, 묵직하고

선 굵은 연기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안정적이고 탄탄한 가창력으로 믿고 보는 뮤지컬 배우 서범석,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오정해 등 세 명의 디바가 한자리에 모여 송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일 시 |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커피 제공)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



금정문화회관이 매월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2014년 마지막 무대.

감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완벽한 테크닉과 과장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깊이 있는 클래식 연주와 해설로 진행되는 '피

아니스트 조재혁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연주자, 해설가, 방송인, 그리고 대학교수로 폭넓은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재혁은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고정게스트로 출연, 라이브 해설 연주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을 위해, 음악에 의해 살면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조재혁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관객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음악풍경 토크콘서트
나를 적시고 간 노래들 - 최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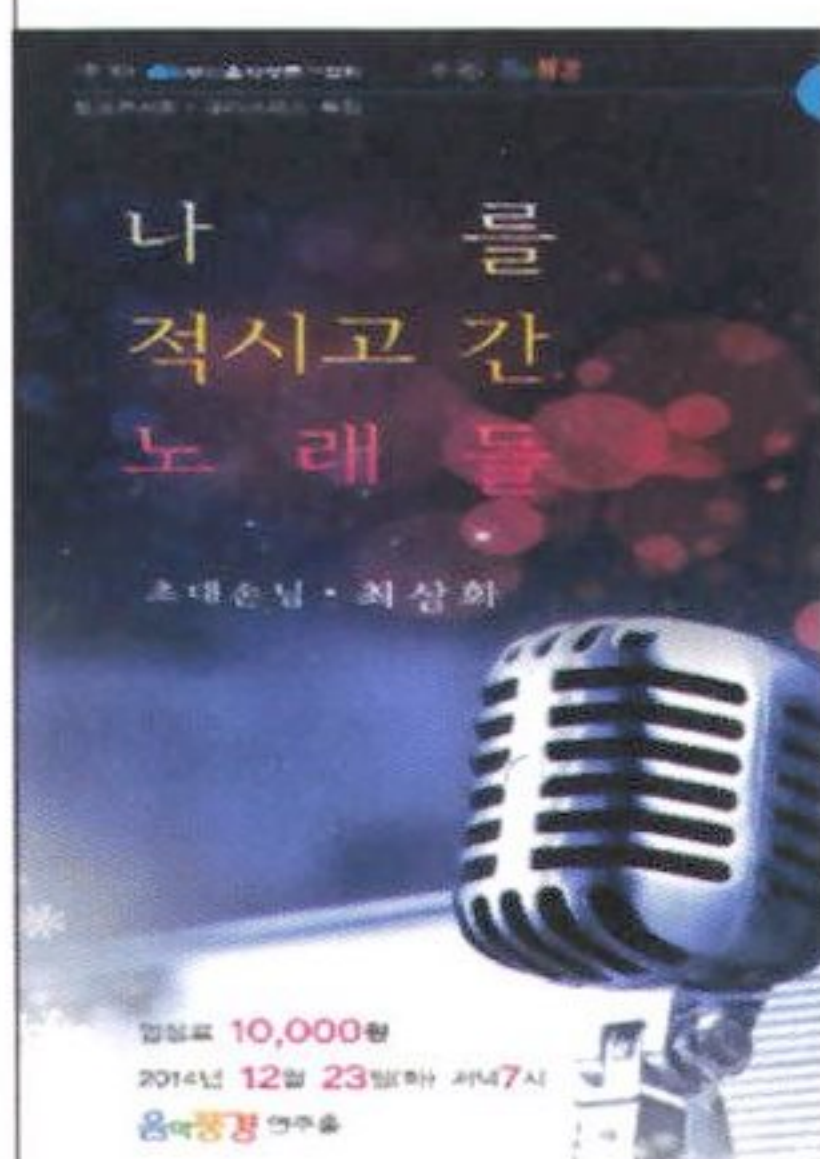
일 시 |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7:0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



지역사회 명망있는 인사를 초청, 그들의 삶의 위안과 감동을 안겨준 음악을 사연과 함께 들어보는 토크콘서트 '나를 적시고 간 노래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음악협회 회장을 지내고 현재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작곡가 최삼화를 초청, 그가 엄선한 자작곡을 영상과 연주로 들려준다.

어본다.

|프로그램|

선용 시에 의한 3편의 노래 '바람이 오는길', '한림가는 길', '그리움 눈물되어', 한하운 시에 의한 2편의 가곡 '보리피리, 파랑새', 2개의 목관악기를 위한 폴라주

- 진행/김창욱(음악평론가)
- 연주/테너 서명보, 피아니스트 김성희

**브라운 피아노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브라운 뮤직 인스티튜트 010-3592-5697

...

임수창(경희대 3학년), 김효조(부산대 2학년), 서예림(세종대 1학년), 천세은(부산예고 1년) 등 차세대 피아니스트들이 마련하는 무대.

|프로그램|

브람스/파가니니변주곡 2권

그리그/소나타 작품 7

베토벤/소나타 제28번

쇼팽/연습곡 작품 10 제4번 등 수곡

글로벌 신예음악회

일 시 | 1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글로벌콩쿠르 장학재단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프로그램|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차세대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글로벌 신인음악회.

**제18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대상 수상자 초청음악회
최현석 바이올린 콘서트**

일 시 |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장학재단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연주 실력으로 제18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현석 바이올린 독주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콩쿠르 장학재단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온 글로벌 행복음악회는 2014년 마지막 무대에서 관객과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Program Guide >>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조수미 송년 빅 콘서트 'Winter Fantasy'

일 시 | 12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B석 7만 7천원
 문 의 | 유니버설 라이브 02-3785-3905

지휘자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하는 2014 송년 콘서트 'Winter Fantasy'. 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 김주현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ACP(Asian Classical Players)의 연주로 깊은 감동을 주는 클래식에서부터 올 한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테마까지 '겨울'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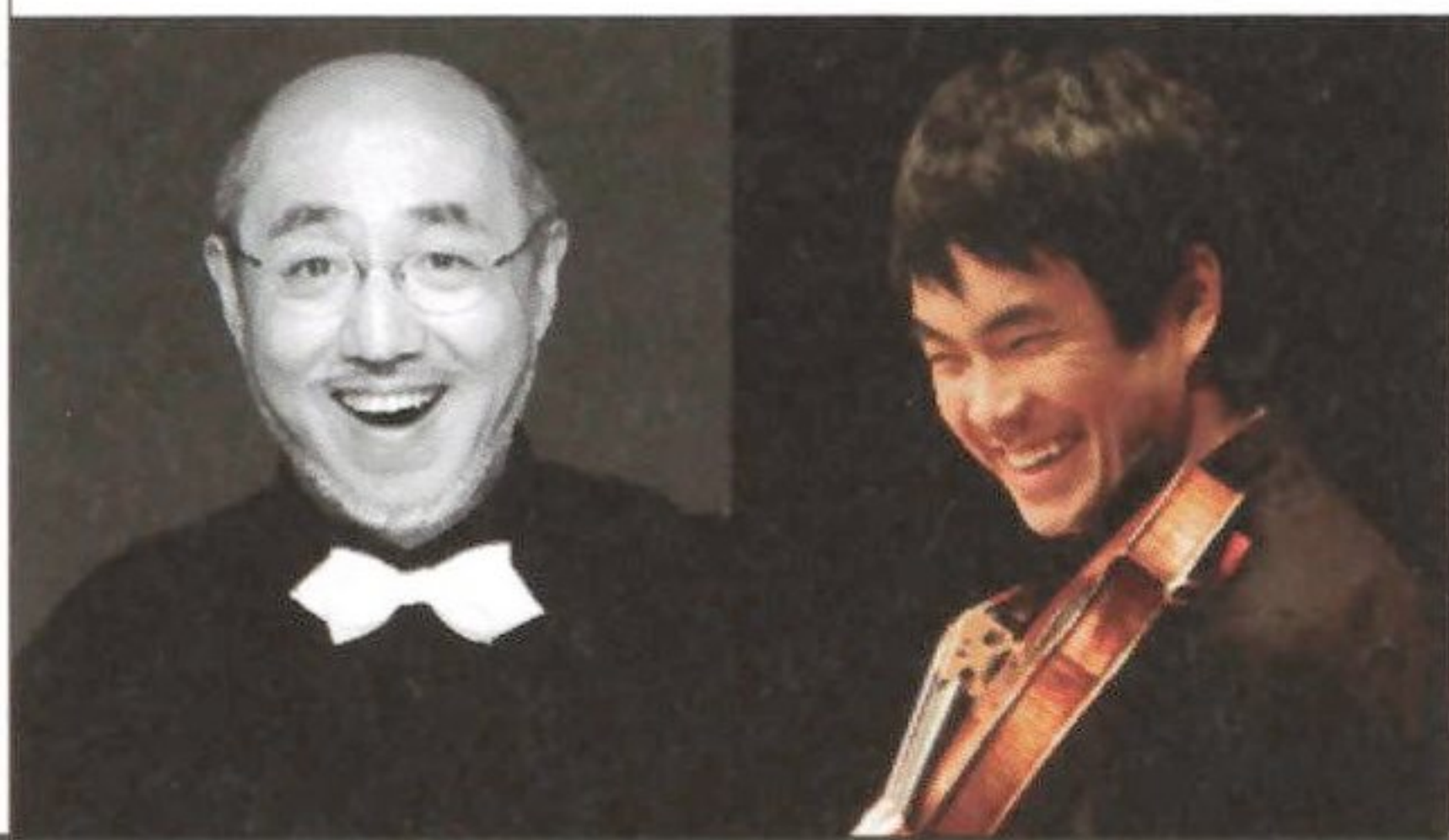
- 특별출연/뮤지컬 배우 윤영석



2014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일 시 |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한국에서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와 한국 최고의 클래식 스타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보컬 앙상블 로티니와 한국의 차세대 아티스트 10인에 선정된 지휘자 아드리엘 김이 이끄는 디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2014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로 한국 관객을 사로잡아온 유키 구라모토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가져온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산무대로, 올해는 더욱더 막강한 출연진으로 2014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조예린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음대 학, 석사 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현재 뉴잉글랜드 콘서트바토리 연주자과정을 밟고 있는 첼리스트 조예린 독주회. 미국 Lennox International Young Artist Competition, Pasadena Showcase Instrumental Competition, USC Thornton Solo Bach Strings Competition, 영국 Texaco Young Musician of Wales에서 Top Prize를 수상한 조예린은 그동안 영국 London Royal Albert Hall, 폴란드 Warsaw Philharmonic Hall, 미국 LA Disney Hall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미국 Culver City Symphony, 영국 Cardiff Symphony Orchestra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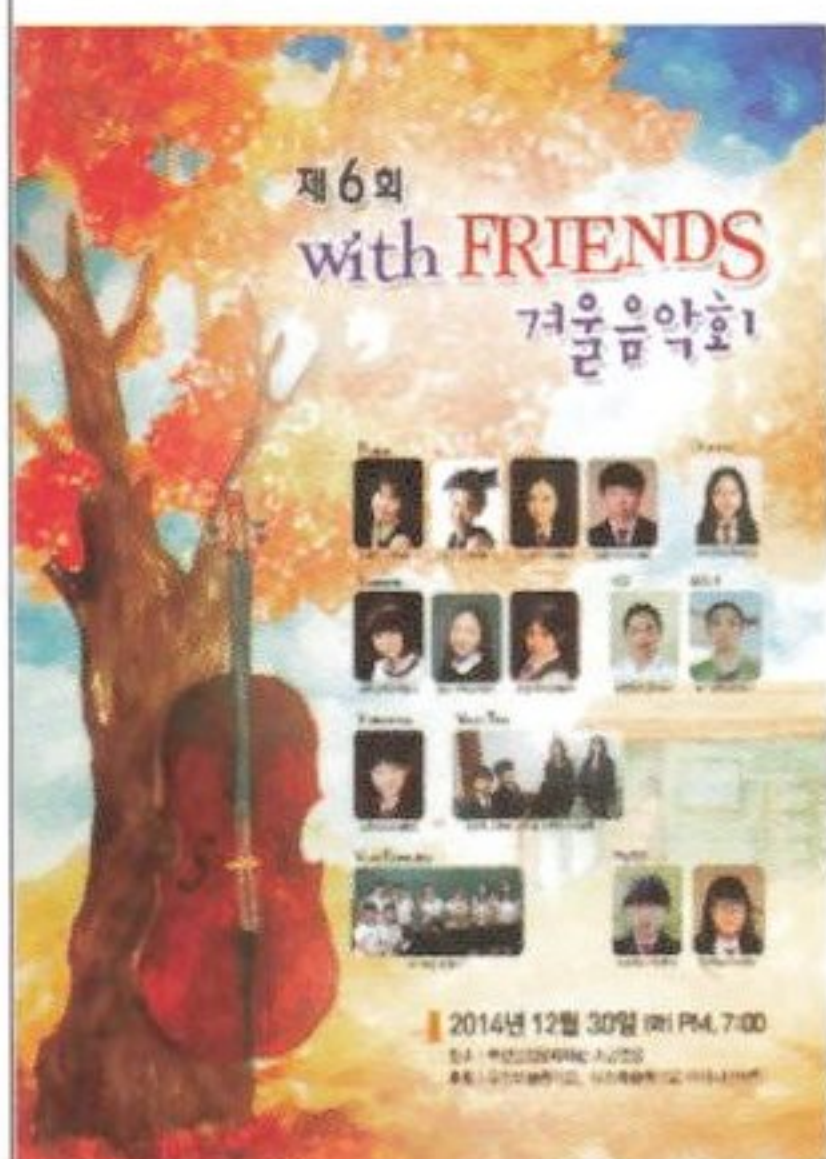


제6회 with FRIENDS 겨울음악회

일 시 |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박민정 010-3069-9777

부산예술중학교 재학생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 마련하는 with FRIENDS의 여섯 번째 무대. with FRIENDS 음악회는 1, 2회 연주회 당시 천마 재할원 친구들을 초대한 데 이어 3회 연주회부터 유니세프 아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매해 따뜻한 사랑의 음악회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피아노/전혜인(1학년), 이연수(1학년), 김수민(2학년), 윤승주(2학년)
- 클라리넷/박지원(1학년) • 첼로/조효원(2학년)
- 소프라노/김효원(2학년), 김규리(2학년), 손안지(2학년)
- 대금/김한별(2학년) • 판소리/김소민(2학년)
- 보컬트리오/김지민, 손민훈, 이주희, 김민규(1학년)
- 보이스앙상블/부산예중합창단
- 그림찬조/임세영(2학년), 정원정(1학년)



연극

코미디극 러브 인 매직

일 시 | 4월 30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5:00
 경성대 신나는 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경성대 신나는 극장 1588-5567

올해 4월 모교인 경성대학교 인근에 전용소극장인 '신나는 극장'의 문을 연 '허둥9단' 개그맨 허동환이 선보이는 코미디극 '러브 앤 매직'. 허동환이 연출, 출연하는 '러브 인 매직'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옴니버스 형태의 빠른 진행으로 관객들과 함께 연기하는 쌍방향 공연이 특징이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두근거리는 사랑을 소재로, 포복절도 개그와 함께 환상적인 미술쇼가 펼쳐진다.



서스펜스 수사극 그놈을 잡아라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2015년 1월 4일(일)
 평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월요일 휴관)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에 스릴러 연극 붐을 일으킨 코믹 서스펜스 수사극으로, 웃음과 반전, 여운과 서스펜스가 함께 한다.

- 작·연출/정형석

명품 코믹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일 시 | 2014년 10월 23일(목)-2015년 1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2,900원, 주말 14,900원, 12/24일-25일 15,000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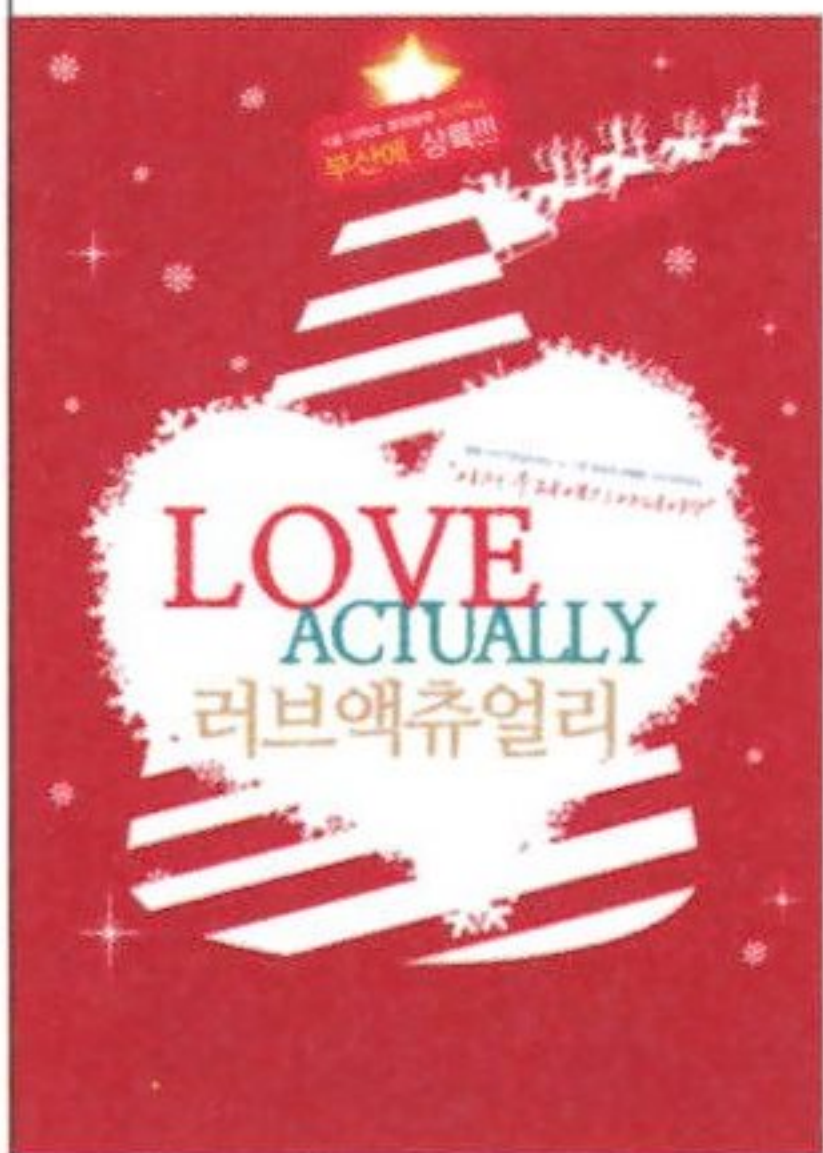
자살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이 존재한다는 기발한 연극적 상상에서 출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한다는 교훈을 던지는 블랙코미디극.

프로그램
가이드

연극 러브 액츄얼리

일 시 | 2014년 10월 30일(목)-2015년 1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3:00, 6:00(12/24일
오후 5:00, 7:30, 10:00, 12/25일 오후
2:30, 5:00, 7:30, 12/27일, 12/31일, 1/3일
오후 3:00, 1/1일 오후 7:30, 월요일 공연없음)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사랑을 꿈꾸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픈 모든 이들을 위한 연애지침서 '러브액츄얼리'.
따끈따끈한 연애 100일 커플에서 슬슬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 커플, 연인이기 보다는 이제는 가족같은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

하는 연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 공동연출/이성호, 박광복
- 각색/함승희
- 출연/정희동, 어단비, 안승찬, 최상우

연극 옥탑방 고양이

일 시 | 2014년 11월 6일(목)-2015년 1월 4일(일)
평일오후8:00, 주말오후4:00, 7:00(12/24-
25일, 12/31일오후4:00, 6:30, 9:00, 1/1
일오후4:00, 7:00, 월요일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88만원 세대의 아픔과 상처, 꿈에 대한 그들의 도전까지 알콩달콩한 로맨스 속에 고스란히 담아낸 리얼로맨스극 '옥탑방 고양이'.

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시즌 3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2015년 4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12/24일 오후 4:00, 7:00,
12/25일 오후 1:00, 4:00, 7:00, 월요일 공
연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아트레볼루션 010-9273-0711

말 잘 듣고 이쁜 큰 딸에서 구박덩어리로 전락한 초등학교 교사 노처녀 강희와 텔레파시 초능력자 인터넷 설비기사 힘찬의 따뜻한 환타지 로맨스극.

복합 버라이어티 코미디극 타이밍

일 시 | 11월 7일(금)-12월 3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28일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어부산 1600-0316



20년지기 불청객 친구들이 벌이는 황당 소동극 '타이밍'.
부잣집에 장가를 간 데릴사위 정민은 자신에게 싸늘한 아내를 위해 리마인드 프로포즈를 계획한다. 프로포즈 전날 고교동창 강건과 오호가 정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몰래

정민의 집으로 쳐들어오면서 세 남자의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한다.
연극 '타이밍'은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처럼 마냥 즐거우면서도 그 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복합 버라이어티 코미디극으로, 획일화된 코미디극의 형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웃음 포인트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맛있는 뮤지컬 사랑의 모히또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2015년 2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용천지탈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재개발로 모두가 떠나버린 동네에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카페사장 기원, 자신에게 사랑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마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원과 그의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사랑의 모히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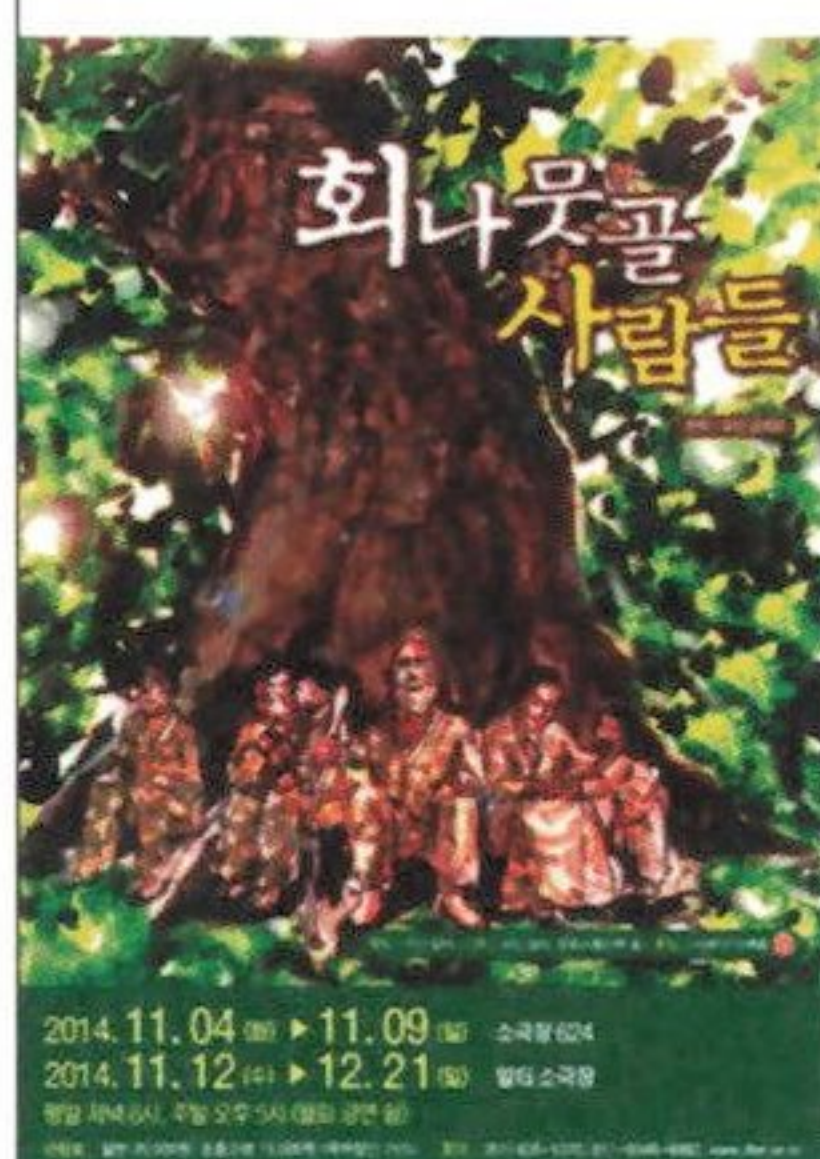
극 속에 등장하는 칵테일 '모히또'는 '마법을 걸다' '마법의 부적'이라는 뜻을 지닌 'Mojo'라는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말로,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로운 매개체로 그려진다.

- 작·연출/오세준
- 작곡/김수진

연극 회나무골 사람들

일 시 | 11월 12일(수)-12월 21일(일)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월-화요일 공연없음) **ilter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초중고생 1만 5천원
(예매시 25% 할인)
문 의 | ilter소극장 635-5370,
011-9346-8982, www.ilter.or.kr



한국 현대문학의 큰 봉우리이자 부산 문단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산 김정한 선생의 동명의 소설을 무대화한 연극 '회나무골 사람들'.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절, 300년이 넘는 회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는 회나무골을 배경으로, 당시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뇌, 분노와 희망을 한판 굶판으로 펼쳐낸다.

- 원작/김정한
- 연출·대본/김선관
- 출연/윤순심, 조기정, 박령순, 신현우, 김민지, 배진만, 하현관, 서원오
- 소리/양일동, 조소연
- 장구/장재희
- 대금·소금/김현일
- 해금/강민정

연극 라이어 그후 20년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2015년 1월 11
월(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7:00, 12/25일 오후 12:00, 2:30,
1/1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코미디 연극의 보증수표로 자리잡은 연극 '라이어' 시리즈 2탄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짓말과 대반전이 관객들에게 실재없는 웃음을 선사한다.

콘서트뮤지컬 언제나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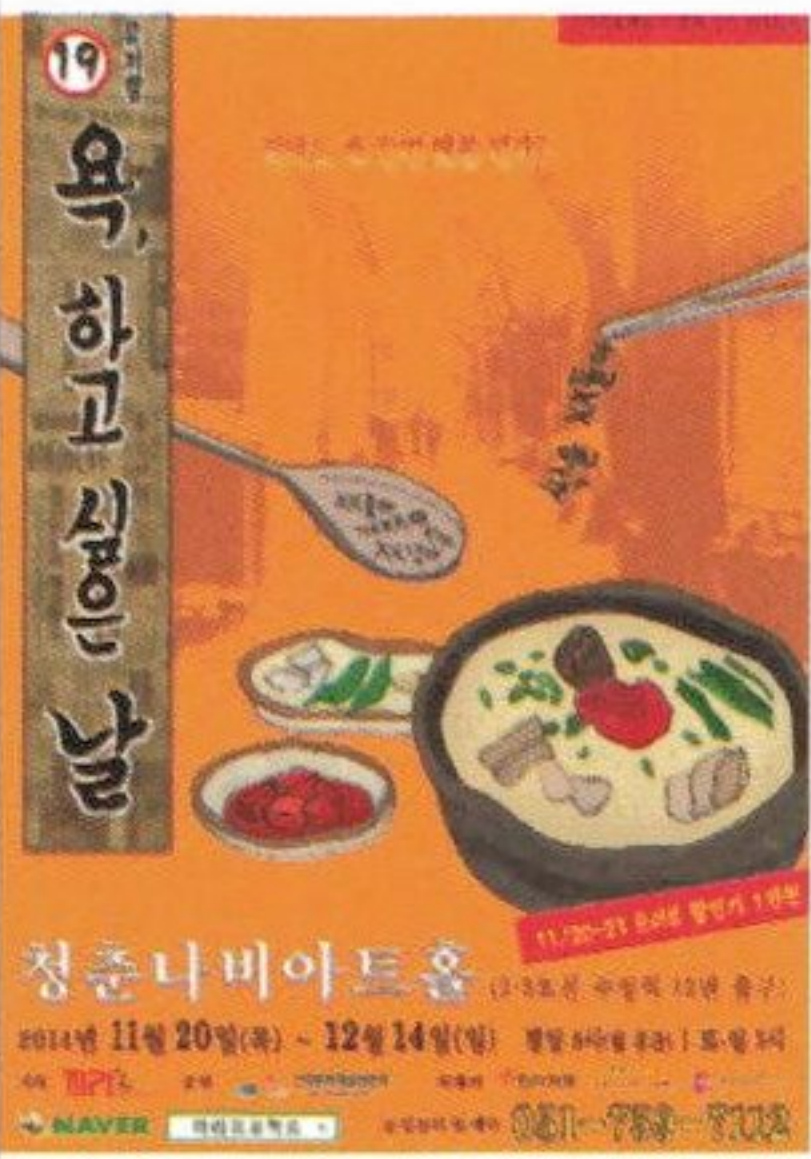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2015년 1월 25일
(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끼리프로젝트 세 번째 창작 레퍼토리 뮤지컬 **욕, 하고 싶은 날**

일 시 | 11월 20일(목)-12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일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끼리프로젝트 759-7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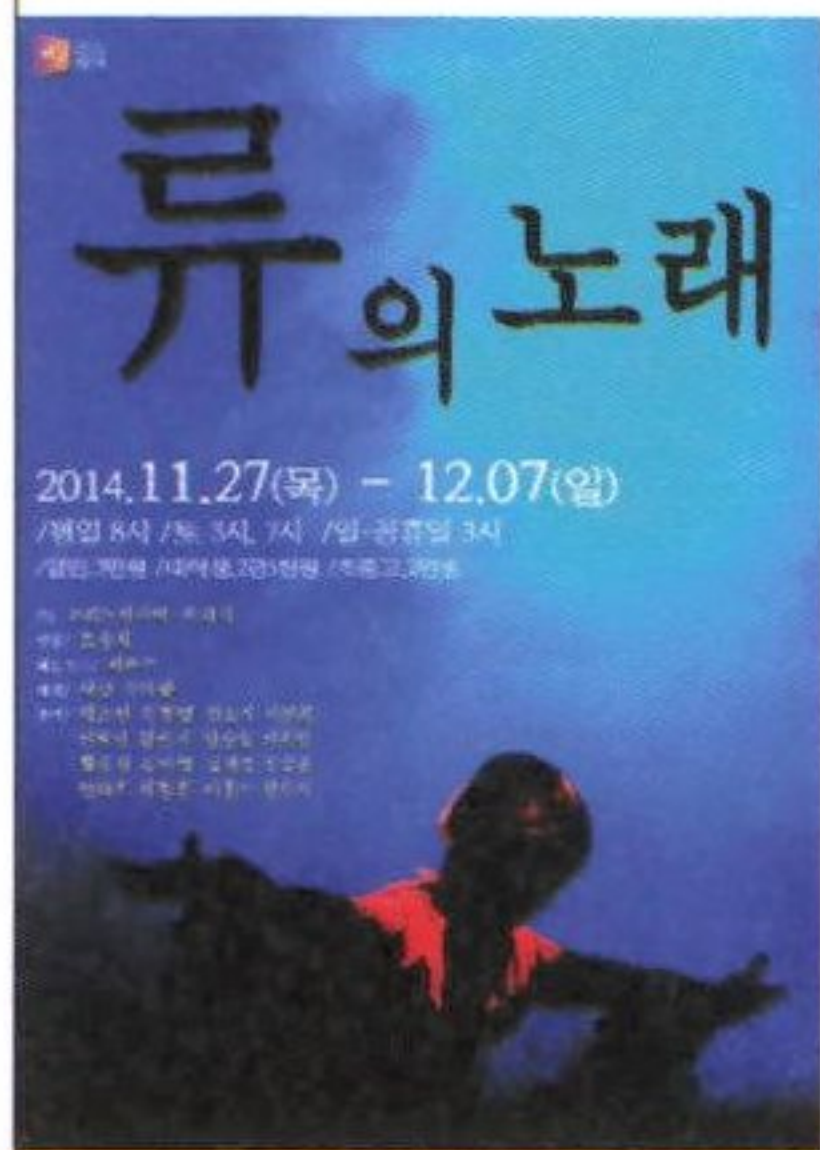
너무나 소심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 남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에 급급해 정작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등 그들 앞에 나타난 국밥집 할매의 시원한 욕 한마당 뮤지컬 '욕, 하고 싶은 날'.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할매는 일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욕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할매의 욕을 듣기 위해 국밥집을 찾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미처 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낸다.

- 작/오뚝이
- 음악/강중환
- 출연/홍선주, 오세윤, 안수빈, 이사라, 김관의, 박준수
- 연출/변진호
- 안무/서승현

연극 **류의 노래**

일 시 | 11월 27일(목)-12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초중고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미래 도시 거대문명사회 속에서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살아가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그린 '류의 노래'.

비록 삶의 밑바닥 인생들이지만 이웃이란 공동체의 식으로 묶여 있고, 사랑을 꿈꾸고, 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조직과 제도에 저항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류의 노래'는 가난을 풍요로운 웃음으로, 슬픔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도시 빈민들의 휴먼 스토리가 관객에게 웃음과 눈물을 전해준다.

- 작/고해노키야마 요히치
- 출연/박소연, 김철영, 강호석, 이건희, 이혜민, 김민지, 양승일, 이세인, 황유진, 김아영, 김세영, 신승훈, 안태후, 이광훈, 이흥주, 현슬기
- 연출/조승희

뮤지컬 **그리스**

일 시 | 12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7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지난 1972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38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 '그리스' 부산공연.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만한 10대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그리스'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진솔한 스토리와 화려한 퍼포먼스, 흥겨운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Summer Nights', 'Those magic changes' 등 뮤지컬 넘버는 1978년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턴 존 주연의 영화 흥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광고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두연극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NO.3 2인극 시리즈 NO.2 **동물원 이야기**

일 시 | 12월 5일(금)-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7:00(일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예매시 25% 할인)
문 의 | 액터스소극장 611-6616

지역 소극장연극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부두연극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2인극 시리즈 두 번째 무대.

2인극 시리즈 '아니 왜 이러세요?' '쥐사냥'에 이은 연출가 이성규의 고정 레퍼토리인 '동물원 이야기'는 유명한 현대 미국의 대표 극작가인 에드워드 올비의 작품으로, 현대인의 좌절과 소외감, 고독, 의사소통의 불가능을 그리고 있다.

지난 1988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갑내기 배우 오영섭, 송준승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전위무대 제107회 정기공연 **위켄드 코메디**

일 시 | 12월 9일(화)-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전위무대 582-2026



여름휴가 펜션에서 부딪힌 50대 중년과 20대 젊은 커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해프닝 '위켄드 코메디'.

중계업소의 착오로 별장이 이중으로 계약되면서 두 쌍의 부부 사이에 소유권을 두고 대립이 시작된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성격, 세대 차이를 벌어지는 충돌 속에서 두 부부는 서로의 모습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참사랑과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

연극 '위켄드 코메디'는 세대차이가 빚어내는 해프닝을 통해 인생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생활 속의 웃음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 작/잔느 샘 버브릭
- 연출/전승환
- 출연/권철, 이민영, 길수경, 백현규, 서희정
- 역/장세종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일 시 |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1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혼자 잘나서 잘사는 줄 알던 못된 딸과 이세상에서 제일 보람있는 일이 딸을 낳은 것이라는 친정엄마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친정엄마와 2박 3일'.

국민배우 강부자와 섬세한 감성의 배우 전미선이 객석을 울리는 애잔하고 가슴 찡한 열연을 펼친다.

2014 개그홀릭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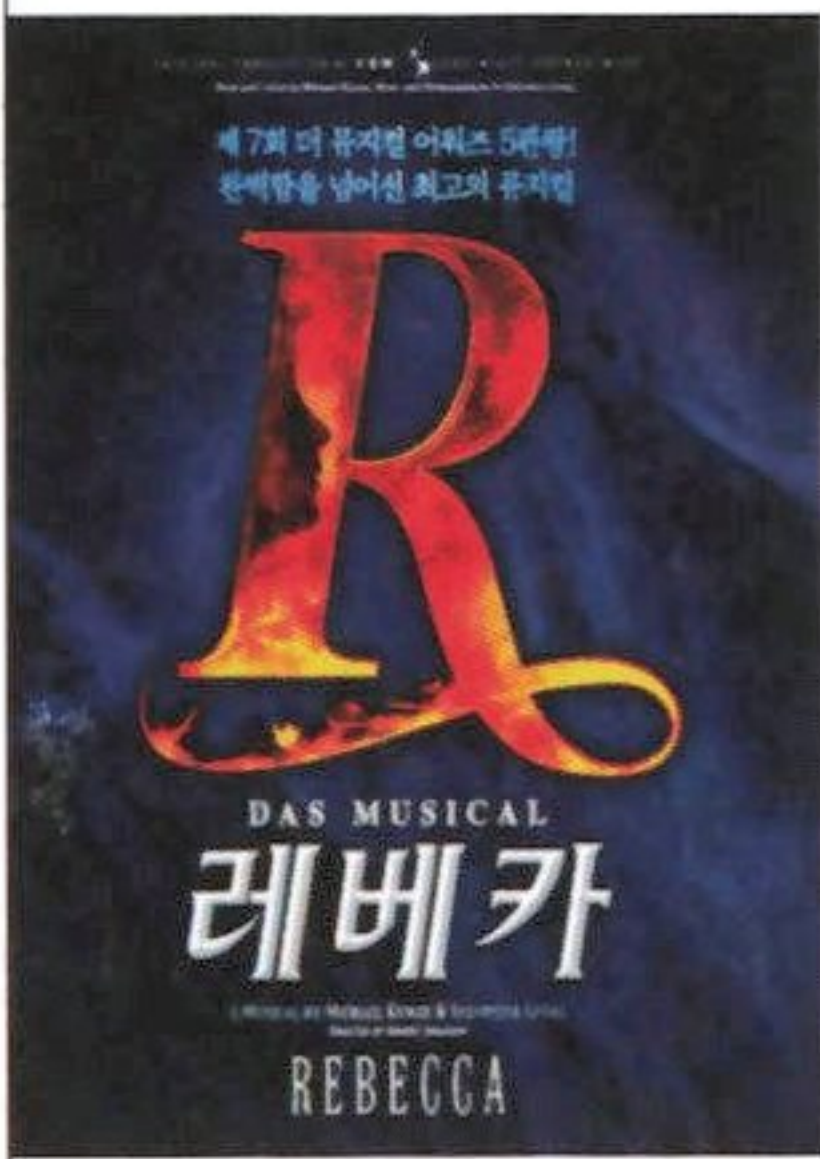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 부산홀
입장료 | VIP석 8만 8천원, R석 7만 7천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개그콘서트 사단이 제공하는 웃음핵폭탄 '개그홀릭 콘서트'.

프로그램
가이드

뮤지컬 **레베카**

일 시 |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20일-21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 의 | (주)공연마루 1588-0766



스릴러의 거장 히치콕 감독의 영화 중 유일하게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한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뮤지컬 '레베카'. 반전에 반전, 로맨스와 서스펜스가 결합된 완벽한 로맨틱 스릴러 뮤지컬로 호평받은 뮤지컬 '레베카'는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라이몬트 극장에서 초연된 후 3년 동안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 원작/대프니 듀 모리에 • 대본·가사/미하엘 쿤체
- 음악/실베스터 르베이 • 프로듀서/엄홍현
- 연출/로버트 요한슨
- 출연/민영기, 오만석, 엄기준, 신영숙, 리사, 임혜영, 오소연, 조휘, 박인배, 김희원 외

연극 **만화방 미숙이**

일 시 |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20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지난 2007년 대구에서 제작된 창작뮤지컬로, 대한민국연극대상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하며 지역 뮤지컬로서는 최초로 서울 대학로에서 장기공연했던 뮤지컬 '만화방 미숙이'를 연극으로 제작한 무대. 잊혀져 가는 추억의 장소 만화방을 배경으로, 만화방 식구들의 가족애를 통해 삭막해져만 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그려낸 '만화방 미숙이'는 코믹한 캐릭터들과 만화방이라는 추억 가득한 공간이 합쳐지면서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준다.

- 작/이성자
- 연출, 각색/신준영
- 출연/이관영, 남기봉, 조주경, 김미현, 박현숙, 윤선미, 윤미하, 우혜영, 김태형 외



연극 **빙어리 여인-양의 거처**

일 시 |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20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신명천지
입장료 | 예매 1만 5천원, 학생 1만원
문 의 | 연극놀이터, 썬 518-1375
www.facebook.com/theatershi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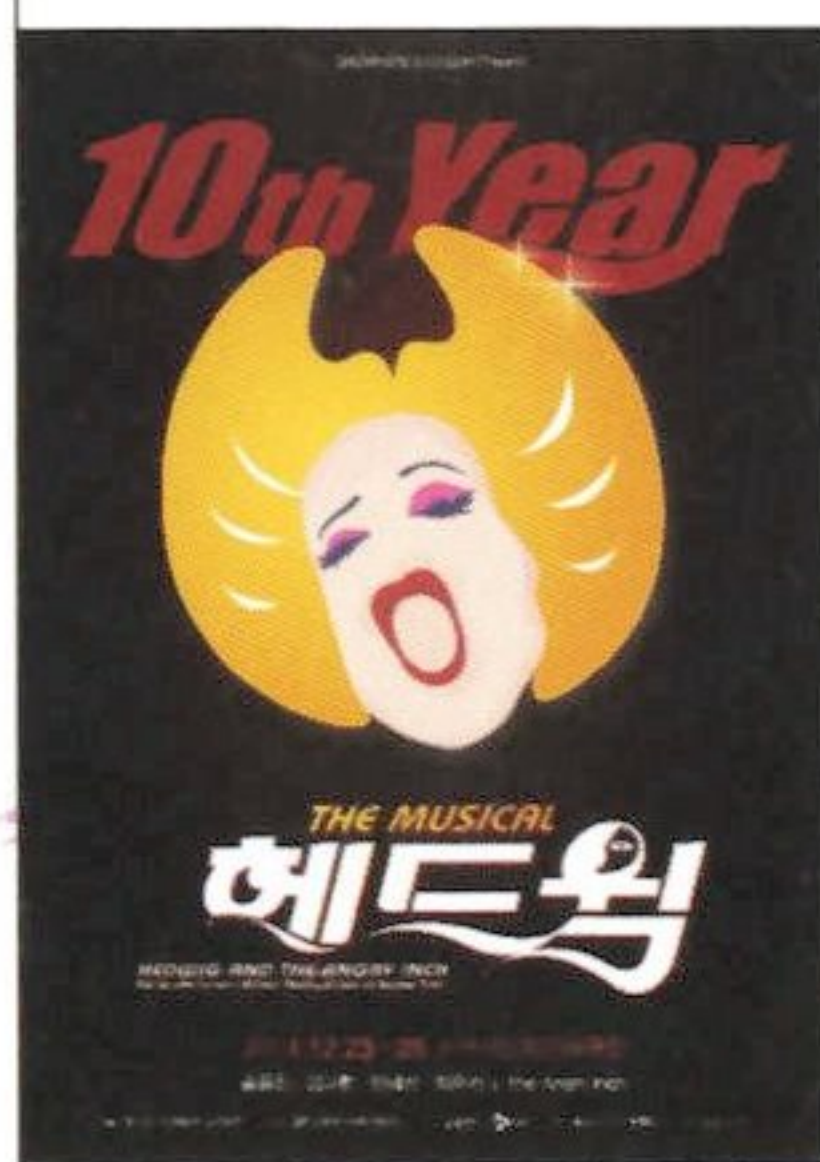
다른 언어의 만남, 한·일 합동공동으로 무대에 오르는 연극 '빙어리 여인-양의 거처'. 잘 다듬어진 언어로 공간에 시를 그리듯, 극을 구축하고 한국어나 영어 등을 섞은 다문화적인 극세계를 보여온 기시다 리오의 원작을 공동구성한 이번 작품은 기시다 리오의 원작에 그려져 있는 세대, 그리고 남녀 사이의 '언어의 엇갈림'을 더욱 발전시켜 한국어와 일본어라는 언어 그 자체의 차이까지 시야를 넓혀본다.

- 연출/오하시 히로시(大橋 宏)
- 출연/사토 테루(佐藤 照), 와타나베 미호(渡部 美保), 백대현, 홍승이
- 첼로/이루가마와(人間川正美)



뮤지컬 **헤드윅 10주년 기념 부산공연**

일 시 |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8:00, 24일 수요일
오후 5:30, 9:00, 25일 목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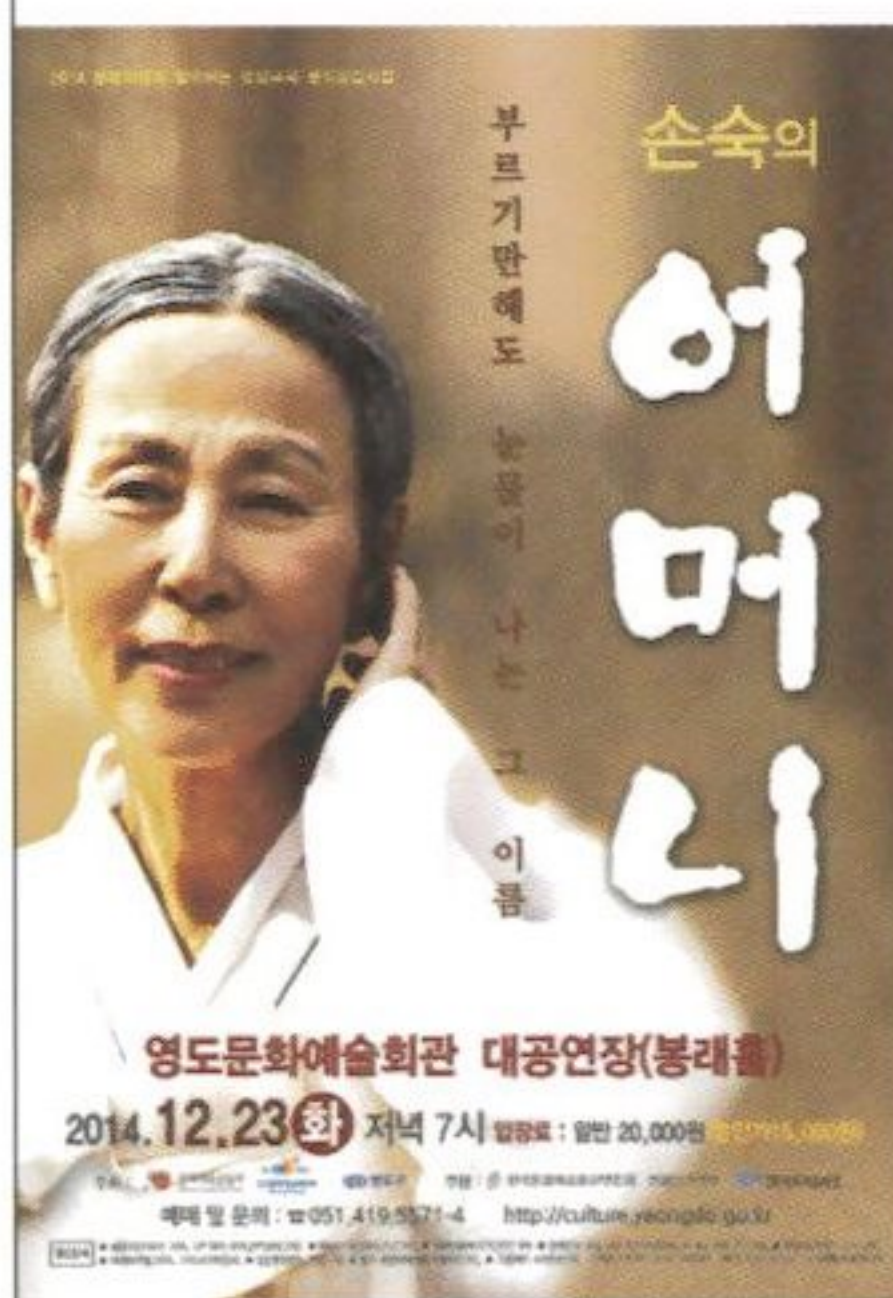


2005년 4월 한국 초연 이래 통산 1,400여회 공연을 통해 브로드웨이 원작을 능가하는 세계 최다 공연, 최고 누적 관객 기록을 세운 뮤지컬 '헤드윅' 10주년 기념 공연. 동독 출신의 실패한 트랜스젠더 록가수의 이야기를 그린 금세기 최고의 스타

일리쉬 뮤지컬 '헤드윅'은 1998년 뉴욕에서 초연된 후 파격적인 비주얼과 심장을 멎게 하는 강렬한 퍼포먼스, 역동적인 락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2005년 초연부터 역대 가장 많은 시즌에 참여하며 카리스마와 록스피릿 넘치는 헤드윅을 선보여온 송용진과 역대 가장 미모가 출중한 헤드윅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김다현이 10주년 기념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연극 **손숙의 어머니**

일 시 |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일제 강점기와 전쟁 속, 고난의 시절을 억척스럽게 살아낸 우리시대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낸 '손숙의 어머니'.

연출가 이윤택이 그의 실제 어머니를 모티브로 그려낸 '어머니'는 지난 1999년 정동극장 초연 당시 문화 계릴라 이윤택과 지성파 배우 손숙의 만남으로 주목받았으며 2000년, 2001년 예술의전당 공연에서는 전회 매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로 연기인생 51주년을 맞은 배우 손숙이 모성애 하나로 살아온 삶에 자식의 죽음까지 감내해야 했던 강인하고 모진 우리네 어머니를 가슴 절절하게 그려낸다.

- 작·연출/이윤택

로맨틱 힐링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일 시 |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5:00, 8:00, 25일
오후 2:00, 5:00, 8:00, 26일 오후
8:00, 27일 오후 4:00, 7:00, 28일 오후
2:00,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4,800원, 주말 17,800원, 12/24일-25일 R석 20,000원, S석 17,500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1980년대 대중가요로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가수 송창식의 동명의 가요를 창작뮤지컬로 제작한 '담배가게 아가씨'.

말동네 구멍가게로 유나부녀가 이사오자 사건사고 없이 조용하던 동네는 유나의 외모로 시끌벅적하고, 유나는 동네 모든 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유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동네 청년의 고군분투기가 유쾌한 웃음속에 펼쳐진다.

Program Guide >>

어린이 창작뮤지컬 **프린세스 마리**

일 시 | 12월 24일-25일 수-목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동화 속 공주 스토리의 유쾌한 뒤집기 어린이 창작 뮤지컬 '프린세스 마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등 동화 속 세 공주가 펼쳐는 평범한 소녀 마리의 공주 만들기 프로젝트와 요정에게 잡혀간 엄마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신나는 모험이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 속에 펼쳐진다.

코믹컬 **드림걸즈 시즌3-부산**

일 시 |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중학생 이하 관람불가)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개그와 음악, 다양한 퍼포먼스 등 기존 개그쇼의 틀을 깨며 화제를 모은 신개념 멀티쇼로 대세 개그우먼 이국주, 박나래, 장도연과 신예 장윤희가 출연, 거침없는 입담과 다채로운 소로 재미를 선사한다.

영화의전당 윈터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일 시 |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8:00, 27일 토요일
오후 2: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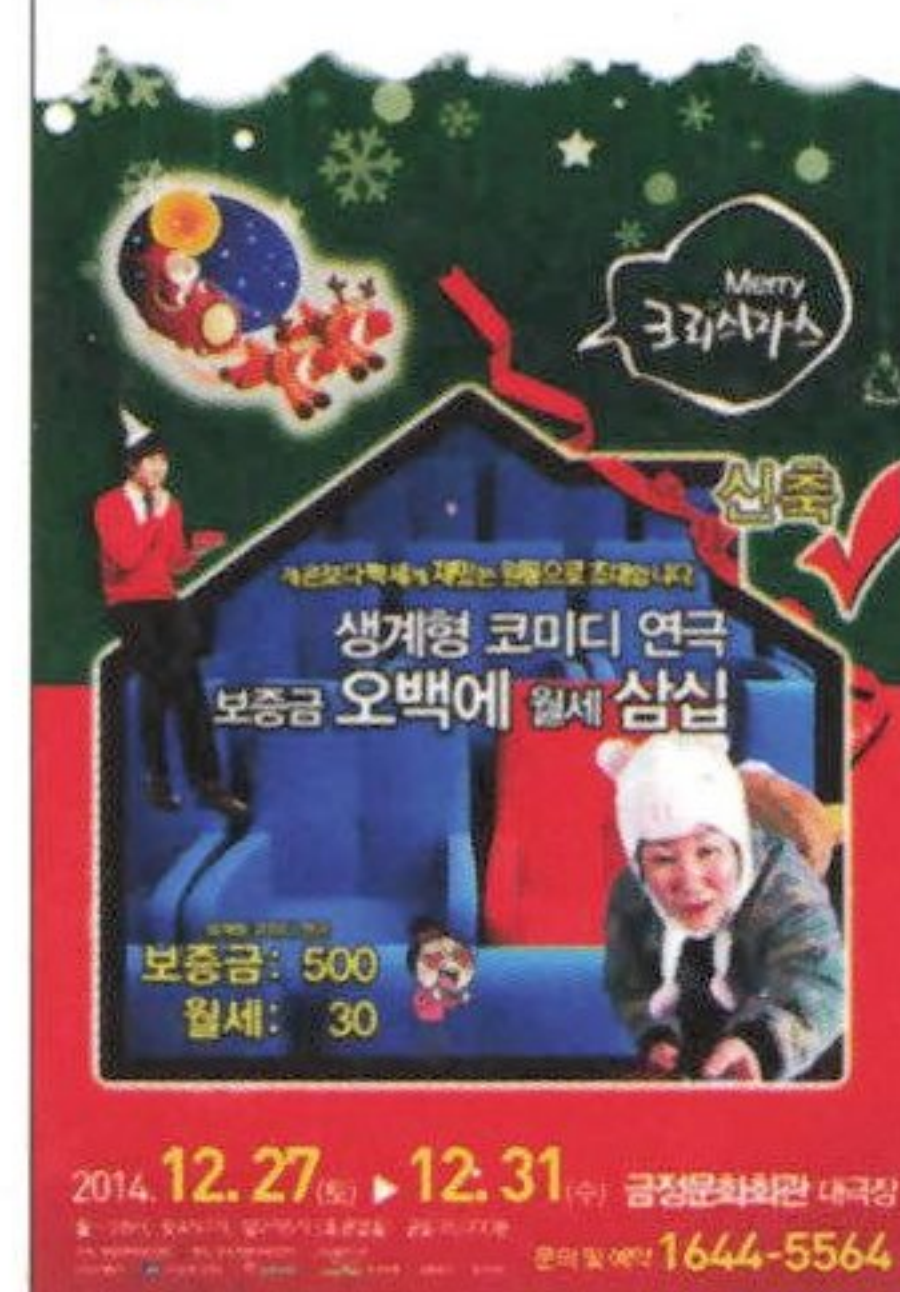


1965년 줄리 앤드류스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족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오스트리아 자연을 배경으로 폰 트랩가의 일곱 아이들을 돌보게 된 청원수녀 마리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운드 오브 뮤직'은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등 귀가에 맴도는 명곡들의 향연과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이 선사하는 따뜻한 감동으로 전세계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가수 박지윤과 뮤지컬 배우 최윤정이 주인공 마리아 역을, 선 굵은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 유태웅과 뮤지컬 배우 김형목이 폰 트랩 대령역을 맡아 열연한다.

출연/박지윤, 최윤정, 유태웅, 김형목, 양희경, 민경옥 외

생계형 코믹 청춘연극 **오백에 삼십**

일 시 | 12월 27일(금)-3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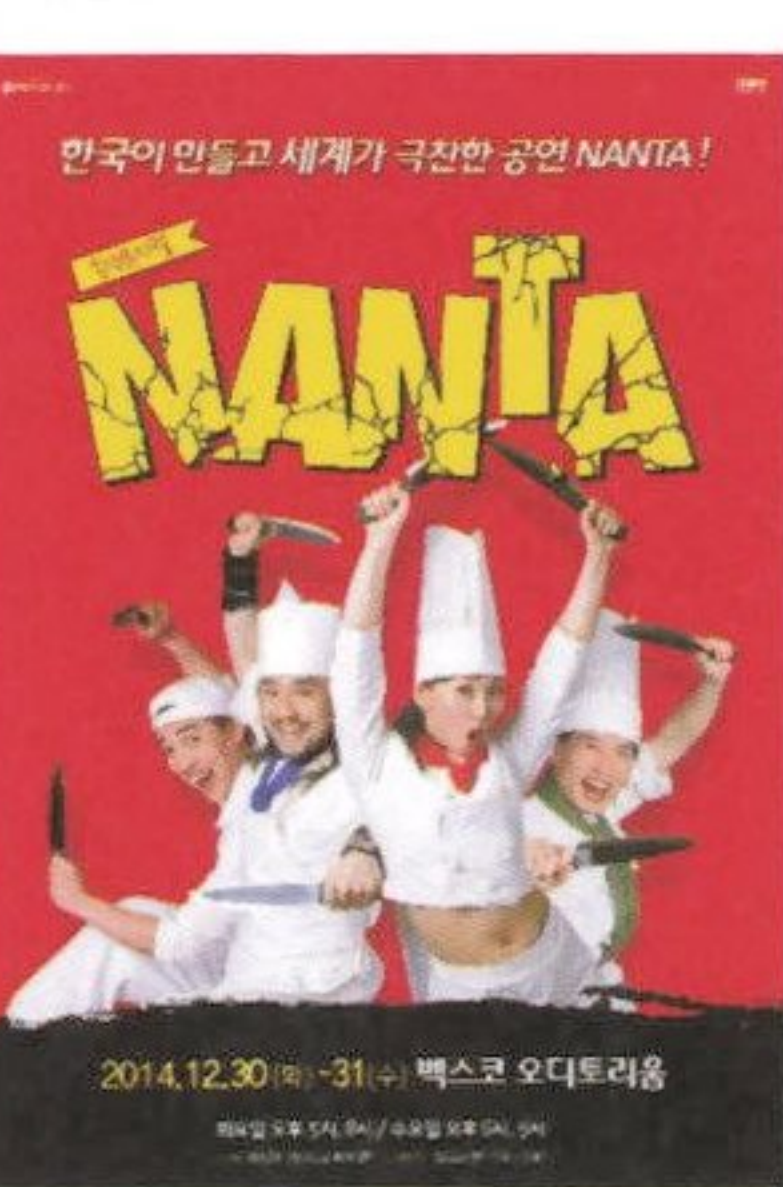
지방에 올라와 처음 서울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인들에게, 부푼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딛는 사회인들에게 어딘가 익숙하고 설레는 단어, 보증금 오백에 월세 삼십... 돈도 없고 빚도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극 '오백에 삼십'.

경상도에서 올라온 포장마차 주인, 불같은 사랑에 빠진 베트남 아가씨, 뺨질이 고시생과 백치미 공주 병 환자 등 개성만점 등장인물들이 살고있는 독자 원룸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 작, 연출/박진영
- 출연/하성훈, 남경화, 함석환, 한상숙, 신민규

송년뮤지컬 **난타(NANTA) 부산공연**

일 시 |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5:00, 8:00, 31일
수요일 오후 5:00, 9: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강렬한 비트와 풍성한 사운드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난타 퍼포먼스 '난타' 부산공연.

1997년 10월 초연 후, 매 공연마다 매진행렬을 계속하고 있는 난타는 한국 전통의 풍악과 현대의 화려한 공연양식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2009 최우수도시프로그램상을 수상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1999년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으며 해외 무대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난타는 2004년 2월, 아시아공연물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진출, 한국 공연계의 큰 획을 그기도 했다. 이번 송년무대에서는 음악공연에서 미술쇼, 코믹 드라마에서 서커스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구성으로, 관객과 배우가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무용

영화의전당 윈터 페스티벌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13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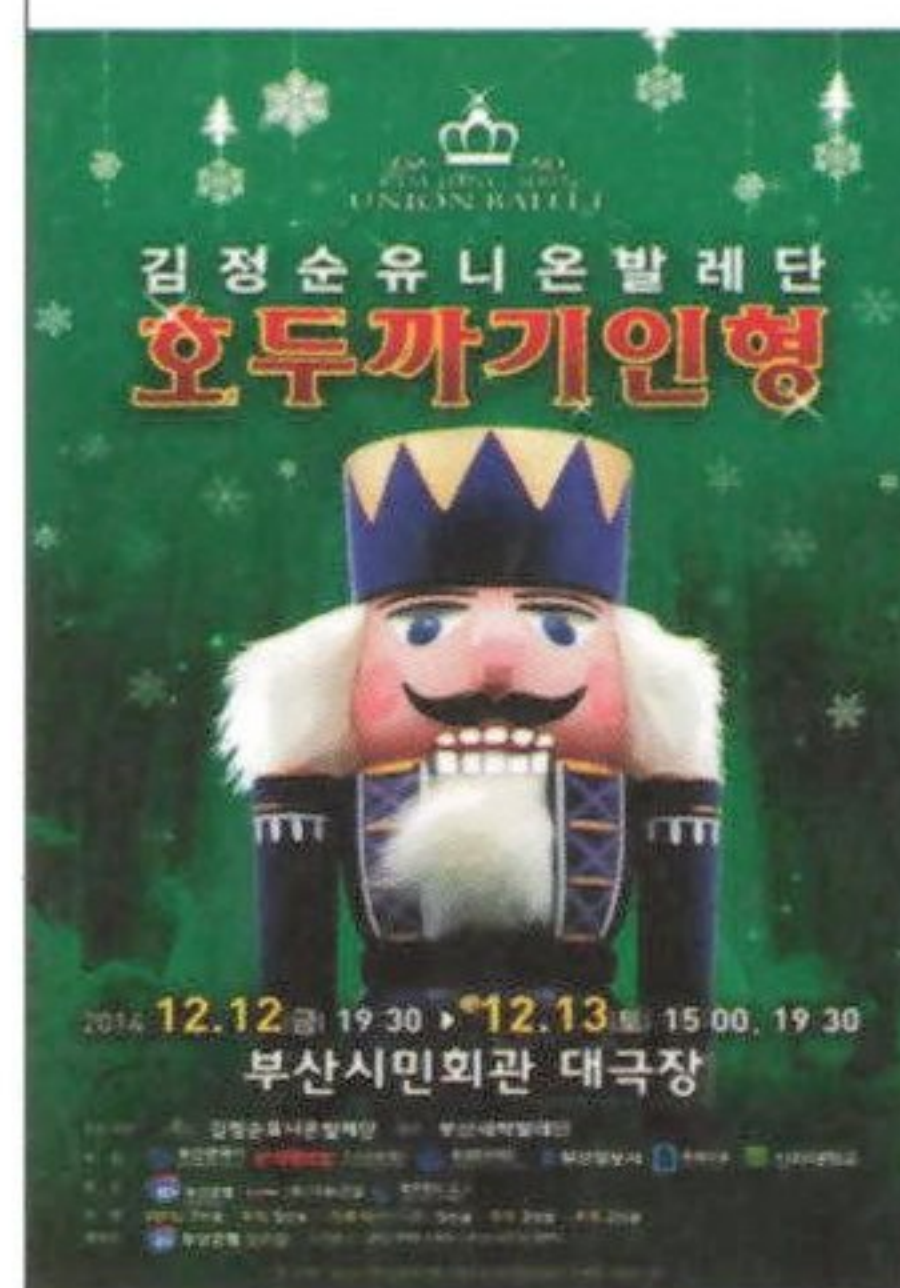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공연의 대명사, 국립발레단 송년발레 '호두까기 인형'.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로 통하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와 러시아 무용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탄생시킨 고전발레의 대표작으로, 1892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끌었던 '살아있는 신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 버전인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지난 2000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처음 공연한 이래 13년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김정순유니온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R석 5만원, 가족석(4인기준)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김정순유니온발레단
999-5301, 010-4574-9991



가족과 함께하는 최고의 연말선물 김정순유니온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2막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호두까기 인형을 성탄 선물로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과자의 나라를 여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중국의 라이징 스타 발레리나 기소리, 발레리노 원안포,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시니어 부문 1위 발레리나 정재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마스코트 발레리노 안재용, 이승민과 미술사 이강기가 출연, 어린이에게는 환상적인 꿈을, 어른에게는 잃었던 감성을 되찾아 준다.

콘서트

박상민 콘서트

일 시 | 12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7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설운도 콘서트 '다함께 차차차'

일 시 |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4만원, 2층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2014 김범수 겨울라잇쇼
BEFORE & AFTER - 부산**

일 시 |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8:00, 25일 목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A석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2014 바이브 X 포맨 부산 콘서트
발라드림**

일 시 |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8:00
백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VIP석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11
만원, A석 9만 9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
원 R, S, A석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박효신 15주년 기념 라이브 투어
HAPPY TOGETHER**

일 시 |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8: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VVIP석 14만 3천원, VIP석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 YB & 바비킴 콘서트
동.시.상.영(冬詩相靚)**

일 시 |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00 백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B석 7만 7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2014년 스윗소로우 겨울 콘서트
HAPPY END**

일 시 |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2014 엠씨더맥스 콘서트
겨울나기(Wintering...)**

일 시 | 12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김장훈 전국투어 '국가대표' in 부산

일 시 | 12월 30일-31일 화-수요일 오후 8: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
천원, A석 6만 6천, B석 5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 1566-5490

전시

진저 디자인전 숲속의 무도회展

일 시 | 11월 3일(월)-12월 7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사진미디어 공간 '포톤' 봉선화 꽃물 들 때

일 시 | 11월 7일(금)-12월 9일(화)
예술지구_p ADP1관
문 의 | 예술지구_p 070-4322-3113

• 작가/차지현, 홍성담, 안해룡, 신동필, 한재호,
허경미

안두진 개인전 '어떤 돌'

일 시 | 11월 14일(금)-12월 14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 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2014 정윤선 개인전 '다른나라에서'

일 시 | 11월 15일(토)-12월 11일(목)
오픈스페이스 배
문 의 |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미디어극장(Welcome to Media
Space) 2011-2013. II**

일 시 | 11월 21일(금)-12월 14일(일)
영화의전당 비프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작가/육근병, 김창겸, 김희선, 김해민, 김병호 외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A옥션이 함께하는
온라인 미술품 경매展**

일 시 | 11월 25(화)-12월 8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창작공간소울 3기
'시간을 쌓다 - Time Accumulation'
조경난 개인展**

일 시 | 11월 27일(목)-12월 26일(금)
창작공간 SOUL 제 1, 2 전사실
문 의 | 창작공간 SOUL(581-5647)

안재국展 '일탈의 상상들'

일 시 | 12월 1일(월)-12월 12일(금)
스페이스 움 3층 특별전시관
문 의 | 스페이스 움

이능호 도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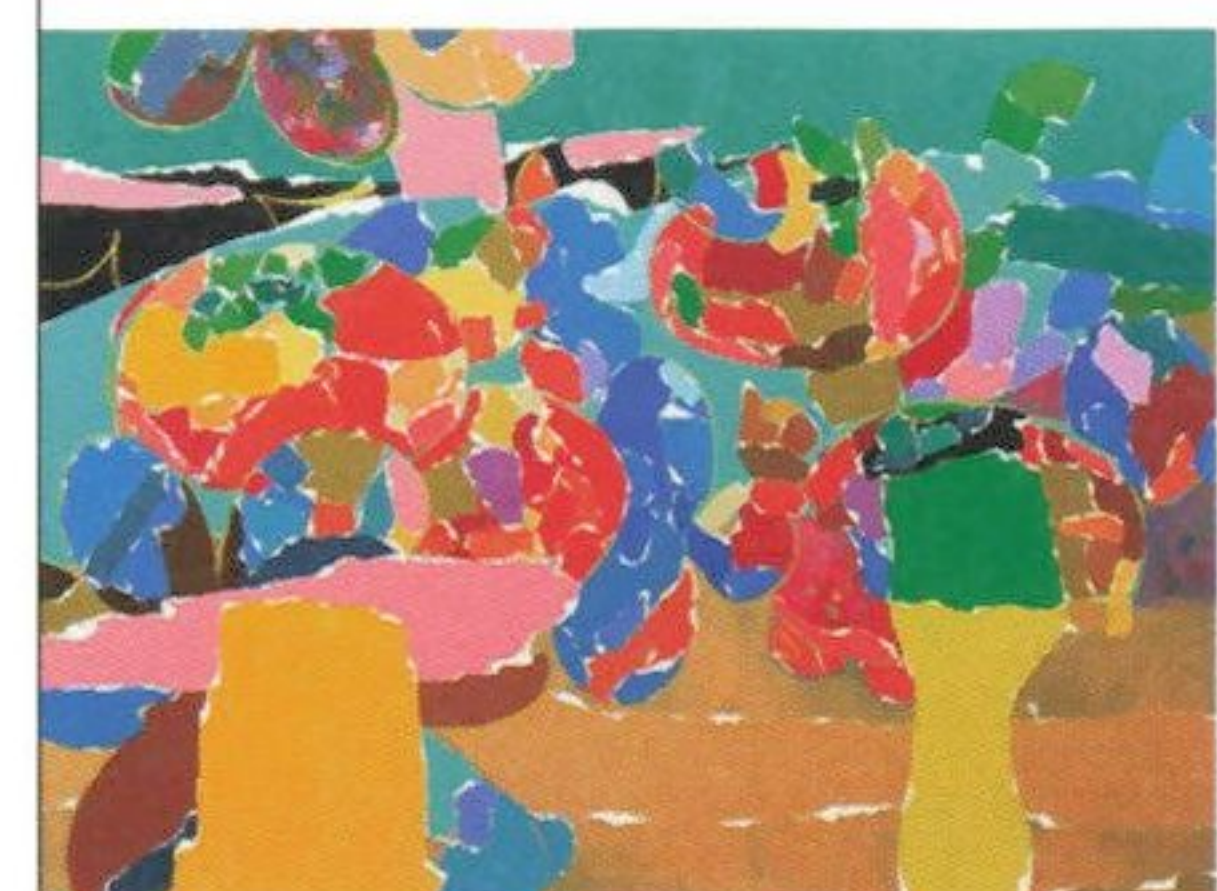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일(월)-12월 30일(화)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
목물레와 가스가마를 이용, 전통방식과 현대적인 방
식을 조화시켜 작품활동을 펼쳐온 이능호 작품전.

**순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폴리처상 사진전**

일 시 | 12월 5일(금)-2015년 2월 22일(일)
KNN 월석아트홀
문 의 | 서병연 010-4840-8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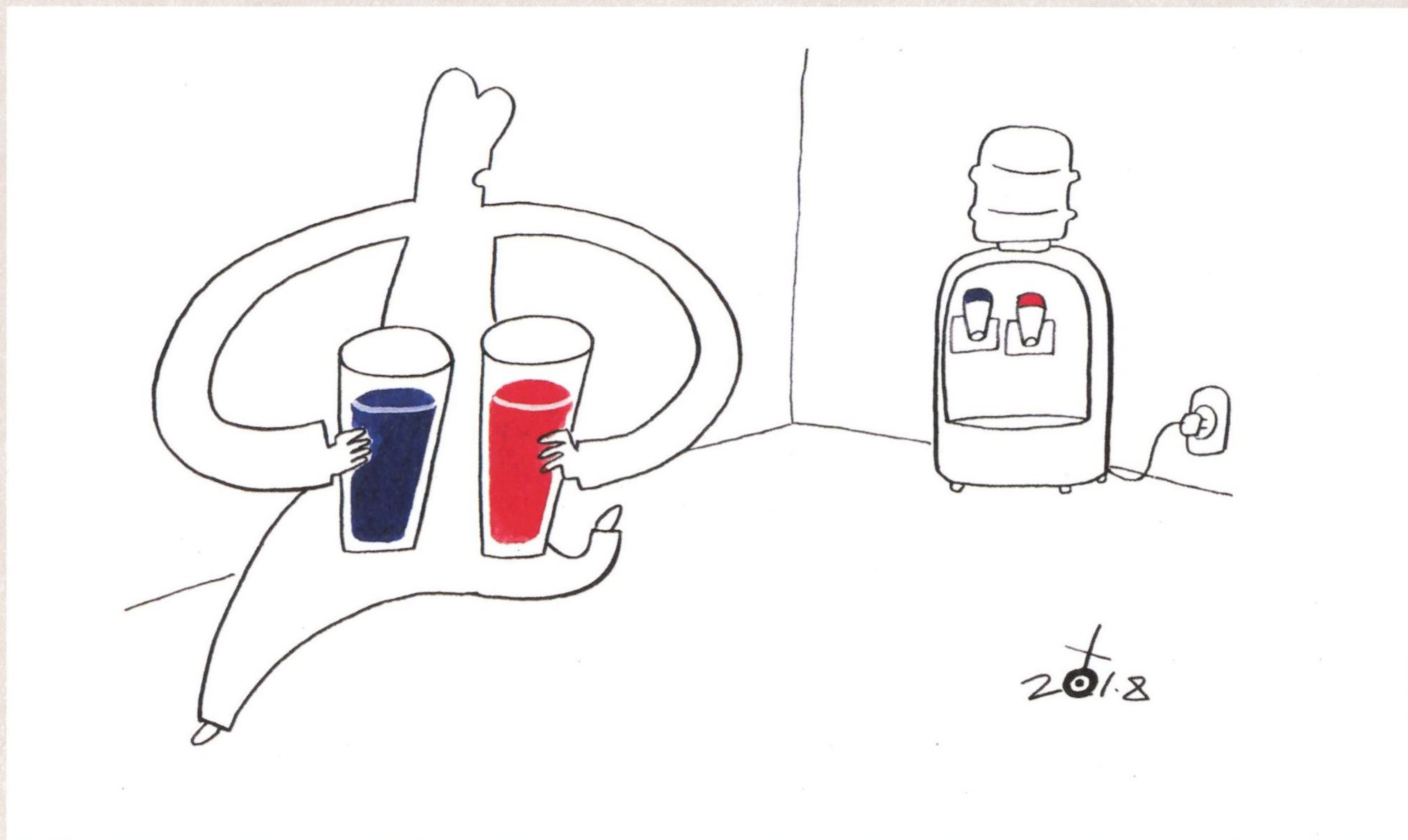
구유경 초대전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2015년 1월 4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624-0933



냉은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냉온탕을 넘나든다. 어떤 때는 뜨거운 삶을 맛보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차가운 운명과도 조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삶은 단단해 진다.





New Album... GM뮤직 제공



❖ 파가니니 여섯 개의 소나타, 변주 소나타, 네 개의 연습곡

스테파노 델레 도네(바이올린), 다미아노 풀리티(기타), 시슬리(비올라), 세바스티아니(첼로)

▶ '바이올린 카프리스'를 예견하는 '네 개의 연습곡' 등 세계최초 녹음

아직도 녹음되지 않은 파가니니의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 바로 이 음반에서 세계 최초로 녹음된 파가니니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여섯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파가니니의 제자인 시보리에게 헌정된 곡으로, 파가니니 특유의 밝고 유쾌한 선율로 가득하다. 느린 악장과 왈츠의 두 악장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독특하다. '변주 소나타'도 바이올린 솔로의 맹활약을 들을 수 있으며, 실내악 반주가 풍부하여 바이올린의 화려함이 더욱 돋보인다. '네 개의 무반주 연습곡'은 유명한 '바이올린 카프리스'를 예견하는 작품으로, 역시 세계 최초 녹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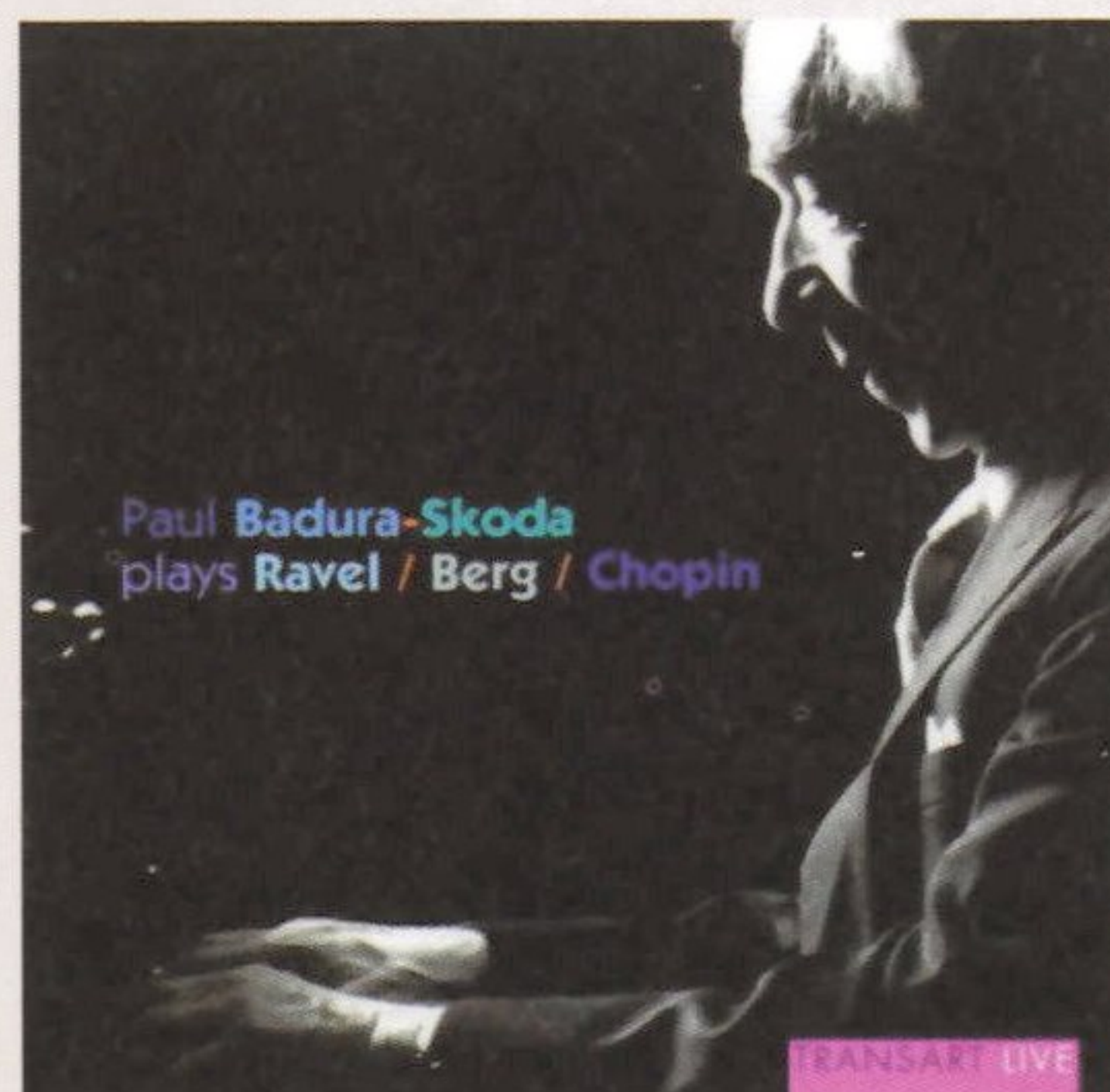


❖ 푸르트벵글러 베토벤 교향곡 제9번

Elisabeth Schwarzkopf(S), Elisa Cavelti(alto), Ernst Haefliger(T), Otto Edelmann(Bs)
Wihelm Furtwängler(cond), Philharmonia Orchestra, Luzerner Festwochenchor

▶ 60년의 시간을 초월한 위대한 예술혼의 부활!

푸르트벵글러는 생전에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을 100번 넘게 연주하였다. 1954년 8월 타계 3개월 전에 루체른에서 가진 이 작품 마지막 연주는 그가 남긴 궁극의 베토벤 교향곡 9번으로 손꼽힌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성악진, 슈바르츠코프, 카벨티, 헤플리거, 에델만 등 화려한 성악진이 참여한 전설적인 연주로 유명하다. SRF(스위스 방송국)에 보관되어 있던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를 사용하여 SACD로 마스터링되었다. 그간 왜곡되어 있던 피치를 최초 녹음 상태에 맞게 세세히 수정한 결과, 연주시간의 변화 뿐 아니라 푸르트벵글러가 본래 의도했던 음악적 표현을 재현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앨범은 기존의 모든 음반을 넘어서 푸르트벵글러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의 대표반으로 자리할 것이다.



❖ 바두라-스코다가 연주하는 라벨, 베르그, 쇼팽

Paul Badura-Skoda(piano)

라벨/유희, 밤의 가스파르, 토카다

알반 베르크/소나타

쇼팽/녹턴, 연습곡 op.10 No.1,2,10,11,12 등

▶ 외르크 데무스, 프리드리히 굴다와 더불어 빈 피아노 3총사로 불리우는 파울 바두라-스코다의 연주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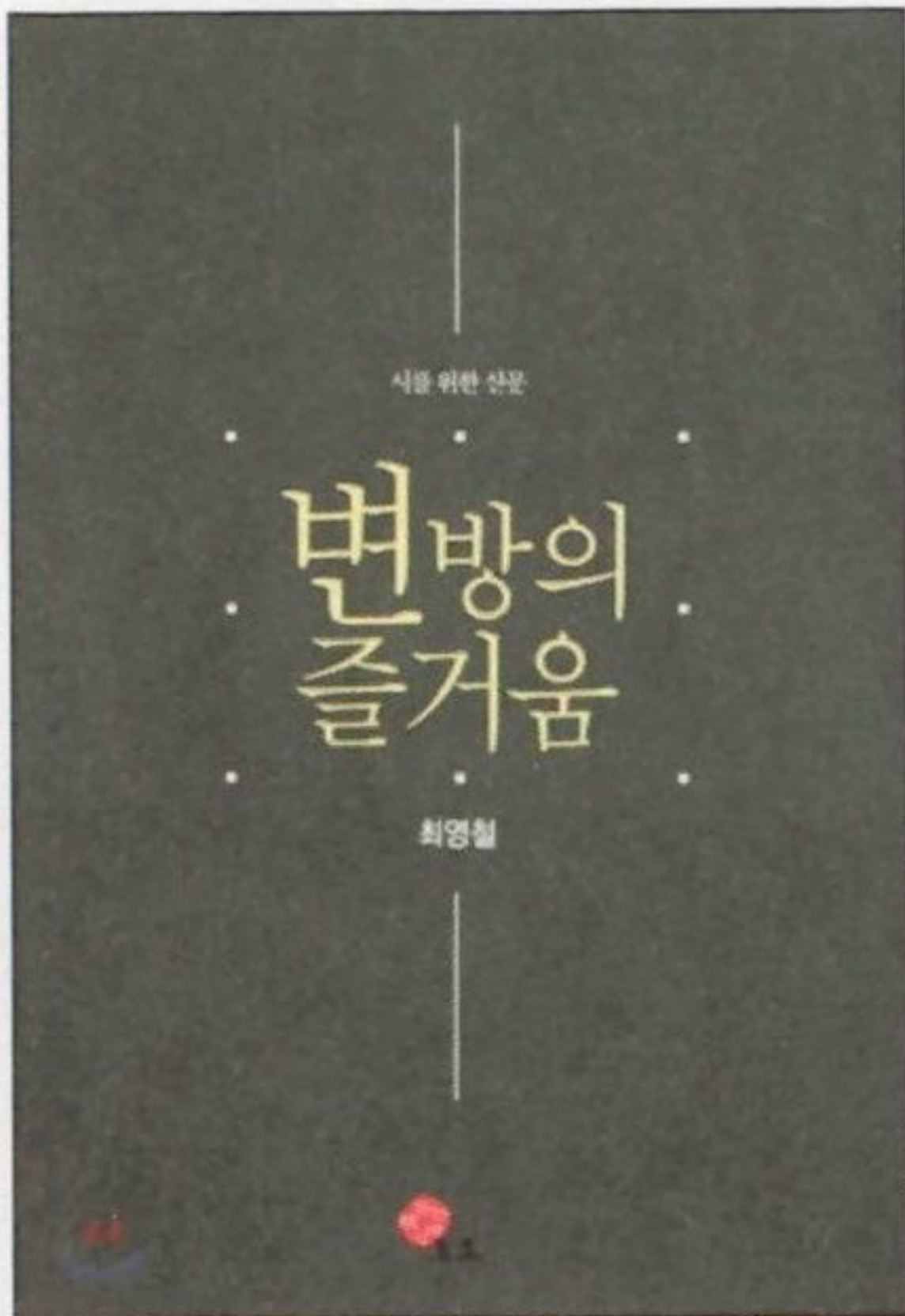
1965-1983년 사이에 있었던 그의 콘서트 중에서 바두라-스코다가 직접 선정한 베스트 연주를 모았다. 바두라-스코다는 오스트리아 빈 태생으로 에드윈 피셔, 알프레드 코르토를 사사하였으며, 연구와 저술에도 업적을 남기고 있는 학구적 연주가이다. 빈 출신답게 현란한 테크닉이나 스케일보다, 감미로운 감각으로 서정적 우아함을 완성하는 스타일이다. 이 앨범에는 그의 장기인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이외에 서정적 피아니즘이 빛을 발하는 라벨, 쇼팽과 베르크의 연주가 담겨 있다.



❖ 변방의 즐거움

최영철 지음 / 도요 / 222p / 1만 3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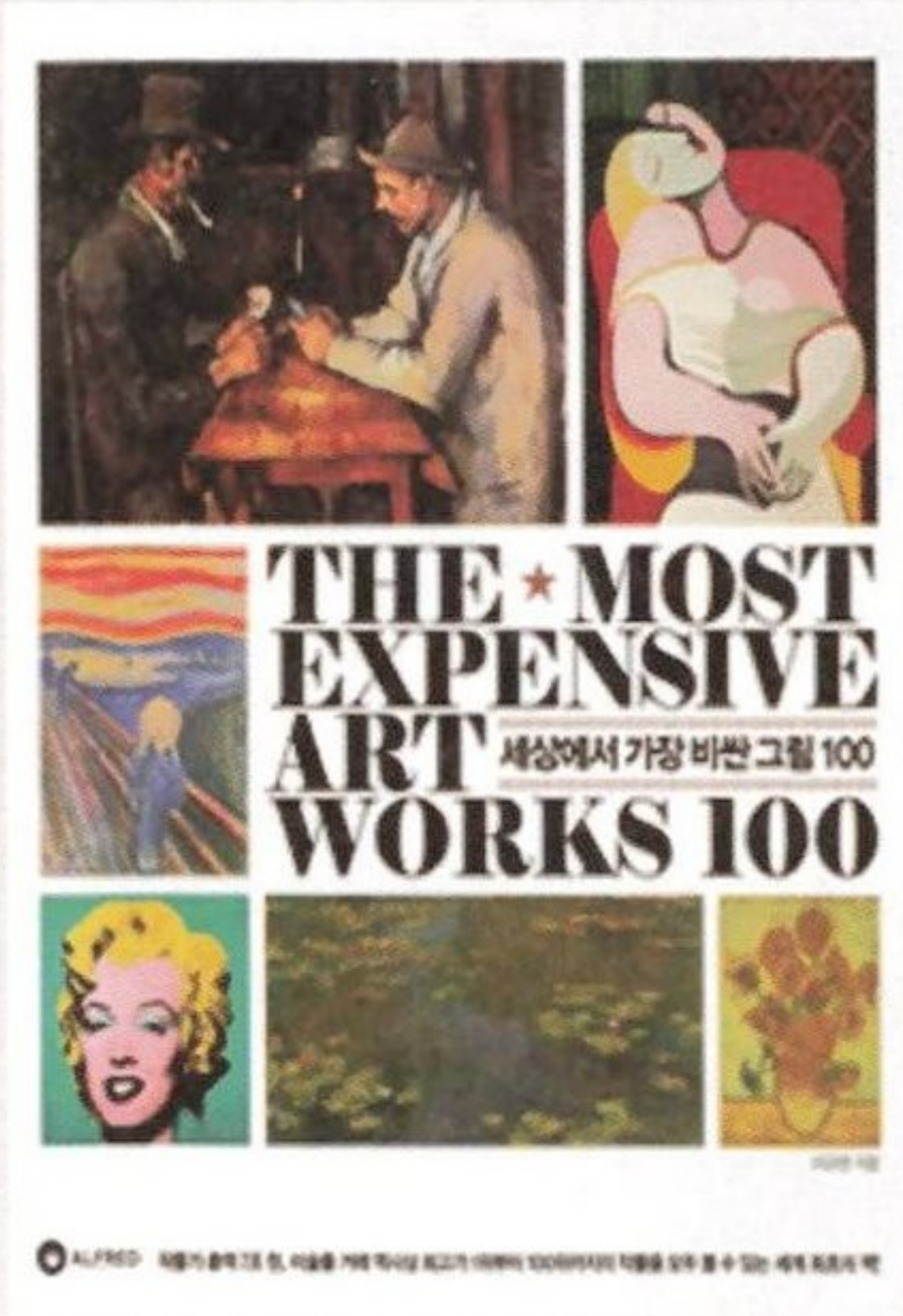
“중심에서 유통되는 표준의 언어와 세계인식이 인위적으로 걸러지고 규정된 것인데 반해 변방의 그것들은 자연발생으로 터져 나온 낱것들이다. 그것들은 한 사회가 규정한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 그것에 딴지를 걸 어 중심의 언어와 세계인식이 가진 허위를 까발리고 넘어선다.” 최영철 시인의 산문집 <변방의 즐거움>에 실린 글이다. 이 책은 최 시인이 시를 써온 지 30여년 만에 시를 위한 산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그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2년 여 지낸 시간 말고는 줄곧 부산에서 살다가, 2010년부터 김해 생림면 도요마을에서 시를 쓰고 있다. 책에 쓴 그대로 그는 줄곧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살아왔다. ‘시를 위한 산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서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는지, 그의 시세계는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최 시인은 “변방을 자처하는 시인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돈이 망쳐버린 세상은 이렇게 돈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치유해 갈 것이다. 21세기의 거대한 욕망들과 맞서 버틸 수 있는 힘도 변방에 사는 자의 이런 우직한 희망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다.



❖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100

이규현 지음 / 알프레드 / 560p / 5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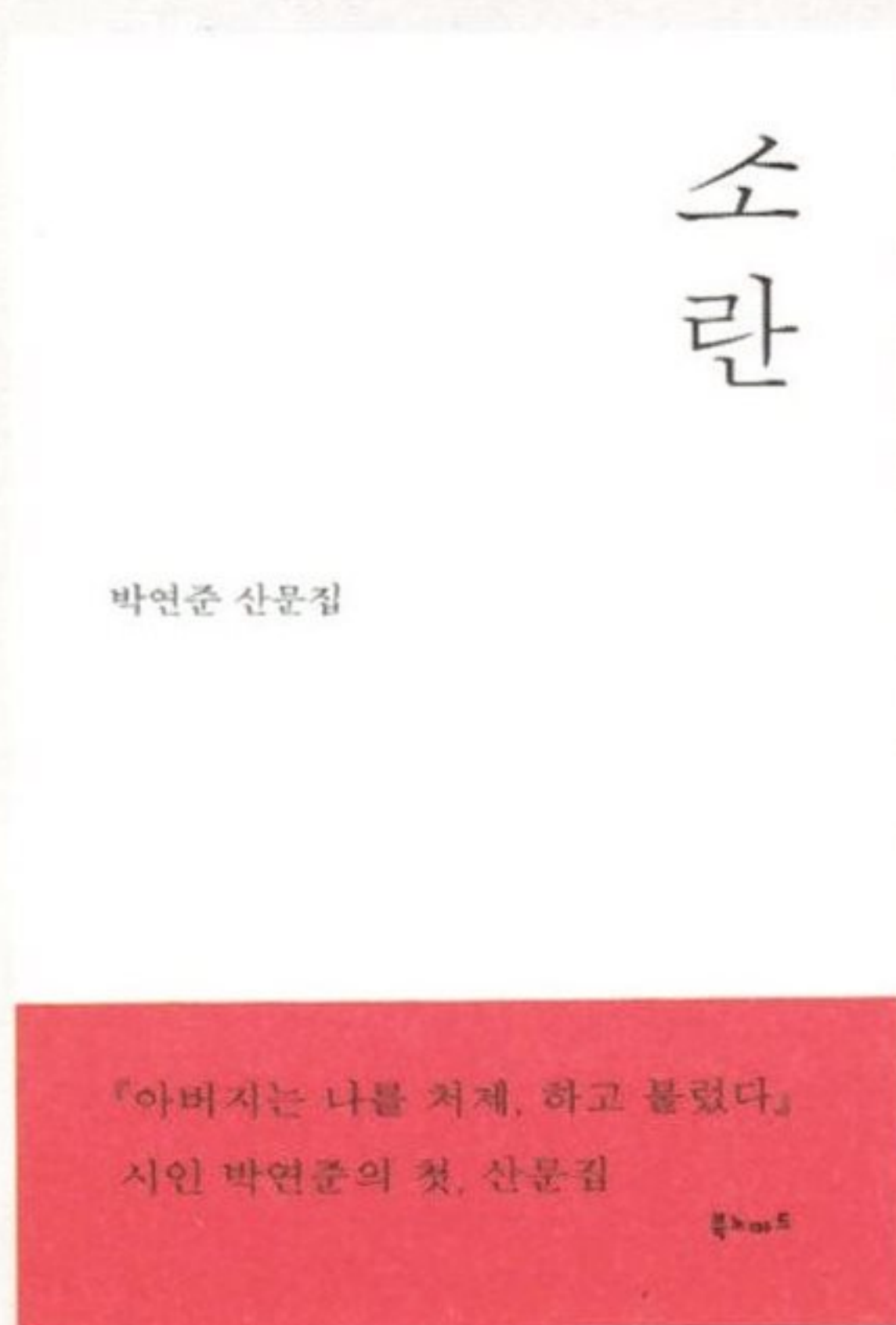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무엇일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일까. 아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니,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거래 가격이 알려진 미술 작품을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겨 정리하고, 각 작품의 예술사적 가치와 비싼 이유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책이 나왔다. 역사상 최고가 작품 100점을 모두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책이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세운 예술전문가 양성기관인 크리스티 에듀케이션의 베로니크 학장은 그림 100점의 사진을 모두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러나 100점의 사진은 이 책에 모두 수록됐다. 책에 실린 100점의 작품가 총액은 7조 원에 이른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1위에 오른 작품은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가 즐겨 그린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연작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이 소장한 작품으로 그리스의 선박 재벌 게오르 게 엠비리코스가 가지고 있다. 작품가 총액이 7조 원에 달하는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손에 들어가 더 이상 미술관에서도 볼 수 없는 작품들이다. 그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 소란

박연준 지음 / 북노마드 / 304p / 1만 2천 500원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잃고 잇는 일로 늘 소란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는 줄도 잇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사라지는 일’이란 대부분 볼륨이 낮아서, 그 작은 소란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인 박연준의 ‘첫’ 산문집은 바로 그 ‘소란’에 대한 이야기이다. 2004년 등단해 두 권의 시집을 냈던 박연준은 시인 특유의 호기심과 시각을 통해 세상을 보고, 오래 관찰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들을 발견하는데, 이 책 <소란>을 통해 유년의 한 시절과 이미 사라져버린 어제를 끄집어낸다. 끄집어내서는 껍데기 없이, 거짓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날 것’의 언어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것들과 마주하노라면, 읽는 이의 마음도 다시금 소란해진다. 이를테면 자신에게도 그런 ‘순간’과 ‘언어’들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려서 잊어버려서, 잃고 잇는 줄조차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것. 독자는 거울을 보거나 오래된 일기장 혹은 사진을 꺼내어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맨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소란스러운 발견은 삶을 다시 살아내게 만드는 밑알(소란)이 된다.



NEWS

❖ 12월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12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12월에는 1일 침례병원 환우들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하프&바이올린 듀오 음악회'를 시작으로 7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일정

- 12월 1일(월) 12:50 침례병원 로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하프&바이올린 듀오 음악회'(출연/교향악단)
- 12월 3일(수) 09:30 상수도사업본부10층 회의실 내사랑 부산공연 '상수도사업본부 정례조례'(출연/교향악단)
- 12월 4일(목) 16:00 동래문화회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초청공연'(출연/국악관현악단)
- 12월 11일(목) 10:10 해남초등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해남학교 초청연주회'(출연/무용단)
- 12월 12일(금) 10:30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내사랑부산공연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공연'(출연/교향악단)
- 12월 12일(금) 12:20 파라다이스호텔 내사랑부산공연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연'(출연/교향악단)
- 12월 12일(금) 13:30 파라다이스호텔 내사랑부산공연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연'(출연/무용단)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6)

❖ 부산시립무용단 무용교실



우리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제32기 어린이한국춤교실', '제43기 시민무용교실'

일정

- 강습일시 : 2015년 1월 12일(월)~15(목) 10:00 ~ 17:00
- 장 소 : 국제회의장
- 강습발표 : 2015년 1월 16일(금) 13:00~14:30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접수기간 : 12월 8일(월)~12월 11일(목) (4일간)

모집부문

제32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대 상 : 초등학교 어린이(각 반 20명 내외)
- 수 강 료 : 10,000원 ※전화 접수 가능

제43기 시민무용교실

- 대 상 : 일반 시민 및 교사 (각 반 30명 내외)
- 수 강 료 : 20,000원 ※방문 접수만 가능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014년 부산시립예술단 결원단원 추가 모집

▶▶ 모집부문·인원·전형과목

구분	모집부문 및 인원	전형과목
총계	2명	
교향악단 상임단원 (2명)	호른 수석 1명 (상임)	·자유곡 : 협주곡 (한 악장) ·지정곡 : 오케스트라 엑세르트 (원서접수시 배부) ※ 반주자 필히 대동
	클라리넷 수석 1명 (상임)	·자유곡 : 소나타 or 협주곡 빠른 악장 (한 악장) ·지정곡 : 오케스트라 엑세르트 (원서접수시 배부) Mozart / Clarinet Concerto in A, 2nd Mov. with cadenza. ※ 반주자 필히 대동

※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

공통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재남자의 경우, 외국인 제외)
- ▶ 해당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외국인도 접수 가능

【선발(모집)방법】

- ▶ 교향악단 : 상임단원 모집(기존 단원 지원가능)
- ▶ 수석단원 : 평균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 최고득점 자
- ▶ 점수산정 : 심사위원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취득 점수 산정
- ▶ 동점자 처리 : 1) 수석지휘자 점수 고득점자 2) 연장자 순으로 결정
- ※ 해당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실시
-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 결격사유 또는 퇴사, 계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결원일 경우에는 수석지휘자의 요청에 따라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평균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4. 11. 27(목) ~ 12. 5(금) 17:00까지
- ◇ 접수안내
- ▶ 공휴일·토·일요일은 제외, 지정곡 악보는 원서접수 후 배부
-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우편접수자는 지정곡 악보 반송용 봉투(우편첨부, 접수자 주소 기재) 동봉 사 지정곡 악보 발송 가능(접수 익일 발송)

◇ 접수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4)
(우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1
부산문화회관내 공연과(공연담당)

▶▶ 제출서류

◇ 응시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남자, 병적확인용), 최종학력증명서(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본 포함), 경력증명서(해당 자에 한함) 각 1부

▶▶ 세부 전형일정

구분	모집부문 및 인원	실기전형	합격자 통보	면접 전형	최종 발표
총계	2명(상임)	교향악단 연습실		1층 회의실	
교향악단	호른수석1	12.15(월) 13:30	12.16(화) 18:00	12.17(수) 15:00	12.18(목) 14:00
	클라리넷수석1	12.15(월) 15:30			

▶▶ 참고사항

- ◇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 보수 및 복무 등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동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정에 의함.
- ※ 외국인의 경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해 위촉 가능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합격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취소가 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 1차 합격자는 부산광역시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차 합격자(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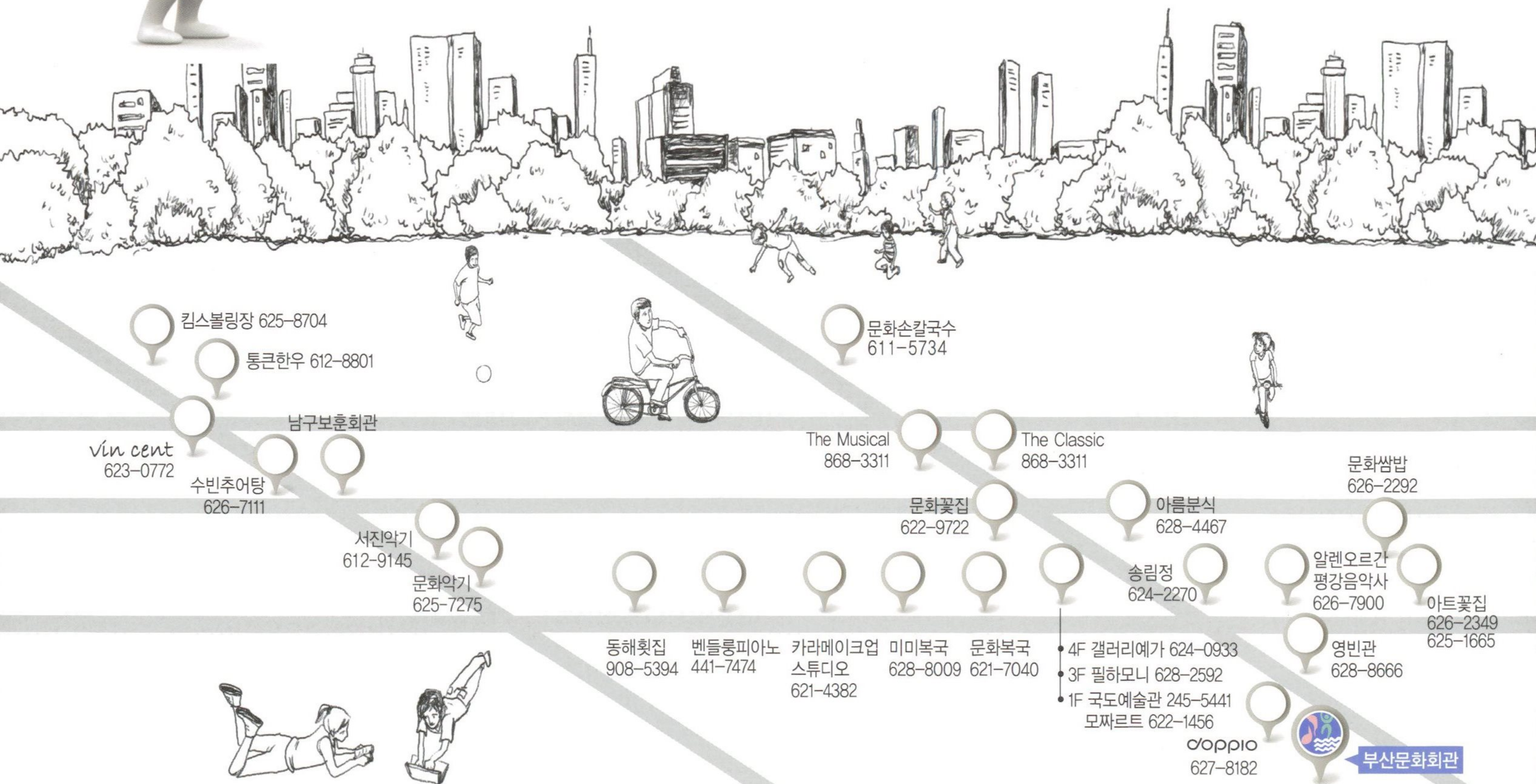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공고란 참조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 051-607-6044)
부산시립교향악단 (☎ 051-607-3111~5)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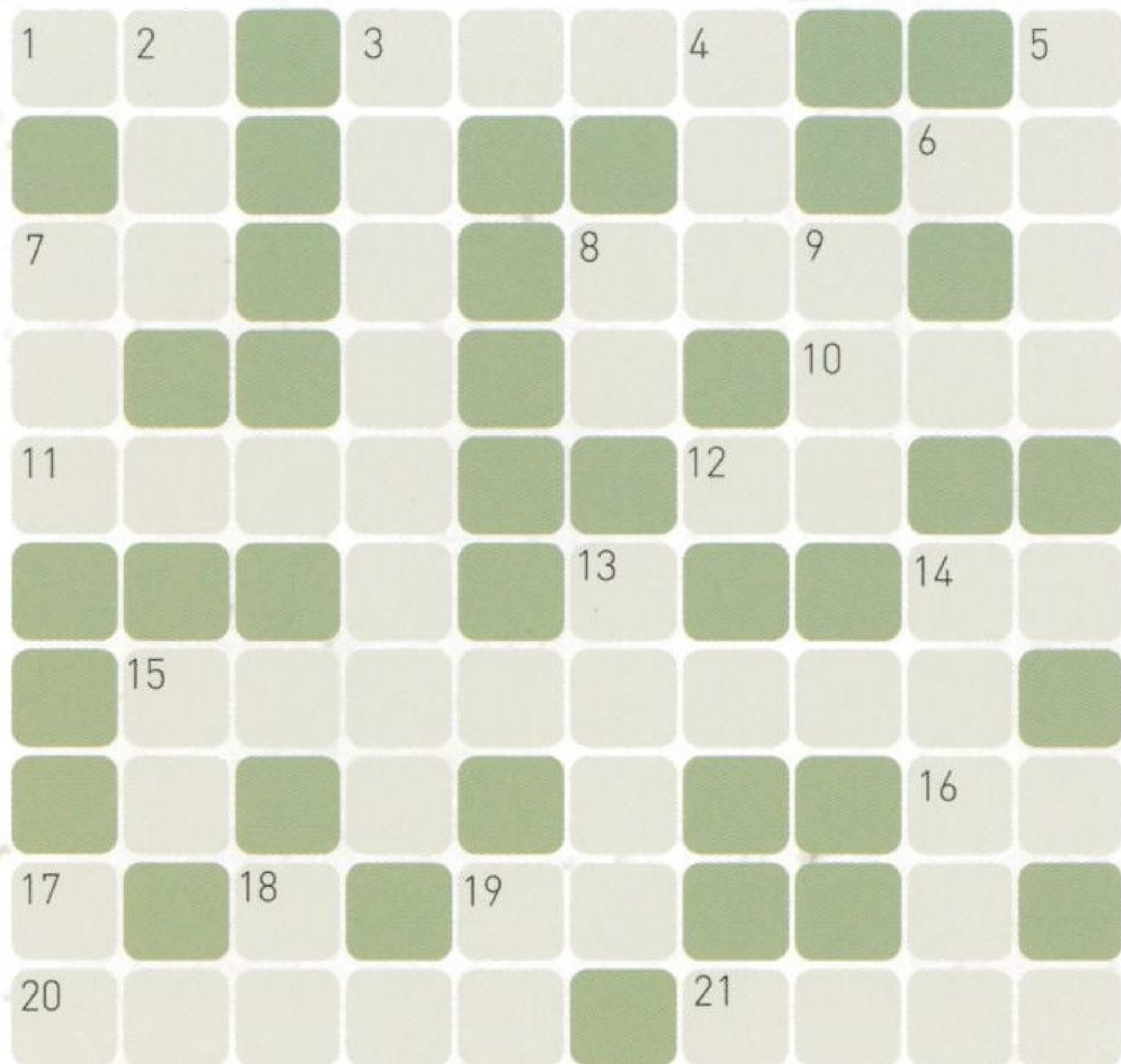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소란
박연준 지음

지난호 정답

토 스 카 파 사 과
트 트 라 우 마 장 비
드 라 쿨 라 스 윤 긴
빈 이 트 로 이 어
스 영 상 계
처 키 글 피 마 시 인
칠 장 카 사 블 랑 카
파 안 대 소 링 고 갱
브 금 공 부 년
베 르 디 걸 리 버 여 행 기

11월호
퍼즐 당첨자

가로열쇠

-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합창 형식을 도입한 첫 교향곡. 환희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연말 송년무대에서 자주 연주된다. 올해는 12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에서 만날 수 있다.
- 입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거나 들이마셔서 리드를 진동시켜 음을 내는 악기. 유명 연주자로 리 오스카, 토미 라일리, 지그문트 그로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독집 음반을 발표한 전재덕이 유명하다.
- 아메리카 서인도 제국의 부두고 주술사가 미술적인 방법으로 소생시킨 시체들을 일컫는 말. 영화 '레지던트 이블', '새벽의 저주', '28일후', '웍바디스', '나는 전설이다' 등은 이것을 소재로 하고 있다.
- 황태자, 태자 또는 왕세자를 일컫는 말로, 조선시대 왕세자의 거처가 경복궁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아시아 식민지의 거점이 되었으며 1948년 1월 4일 영국에서 독립하며 국호를 버마연방이라 하였다가 1988년 개칭했다. 원래 수도는 양곤이었으나 2006년 밀림지대인 핀야오로 옮기고 이름을 네피도로 바꿨다.
-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태어난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 '첼로의 구약성서'라 불리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어린 시절 악보가게에서 처음 발견, 12년 동안 연구와 연습 끝에 정식으로 녹음,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일화는 아주 유명하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 낮 열두 시.
- 여든여덟 살을 이르는 말.
-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과 더불어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곡. 프랑스 동화작가 샤를 페로의 '잠자는 공주'를 원작으로, 고전발레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리우스 피티파가 안무를 맡았다.
- 대량생산과 대량운송 등 산업혁명 시대를 연 증기기관을 발명한 스코틀랜드의 기계 제작자, 발명가.
- 성리학의 대가 이황 선생의 호.
- 러시아의 시인이자 노벨상 수상 작가인 보리스 푸스틴의 나고의 장편소설. 1905년 제1차 혁명과 1917년 10월 혁명을 배경으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지식인이 겪는 비참한 운명과 인간 비극을 묘사하고 있다. 1965년 데이비드 린 감독, 오마 샤리프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 세상일의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 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세로열쇠

- 사적 제123호. 조선시대 5대 궁궐 가운데 다른 궁궐은 모두 남향하고 있으나 이 궁궐만은 풍수지리설에 의해 동향하여 있다. 본래 태종이 아들 세종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면서 자신이 거처할 궁궐로 지은 수강궁(壽康宮) 자리에 성종이 건립한 별궁으로,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광해군이 다시 세웠다.
- 영국 작가 다이애나 윈 존스의 동화를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이 각색한 애니메이션으로, 19세기 말 유럽을 배경으로 모자상점에서 일하는 18세 소녀 소피가 우연히 왕실 마법사 하울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모험담을 그린 작품이다.
- 오스트리아의 지휘자. 나치 독일의 협력자였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필, 빈 필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였으며, 수많은 레코딩으로 20세기 가장 유명한 음악가로 기억되고 있다.
-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대표적인 2차원 도형으로, 종이 띠를 절반 만큼 비틀어 끝을 붙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 중국 항저우의 대표적인 돼지 찜 요리로, 시인 소동파가 이곳에서 벼슬을 할 때 처음 요리법이 개발되었다고 하여 부처진 이름이다.
- 윤태호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로, 바둑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이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1987년 442년의 포르투갈 식민통치의 종영을 알리며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며 홍콩과 마찬가지로 1국 2체제의 적용을 받는 특별행정구.
-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圓光法師)가 실생활의 윤리로서 제시한 5가지 교훈.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전해온 전래 동화로,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는 외로운 아수와 아름다운 벨의 사랑을 그린 작품.
- 조선시대 누에를 사육하던 곳으로, 지금도 서울에 지명으로 남아있다.
- 세계 최초의 롤 필름 개발을 필두로 사진기와 인화지 등 수많은 사진 관련 제품을 쏟아내면서 100여 년 동안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지만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제때 간파하지 못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던 미국 기업.
- 하동 최첨판덕의 몰락과 재기과정의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 글을 쓸때 여러번 생각하여 잘 어울리게 다듬고 고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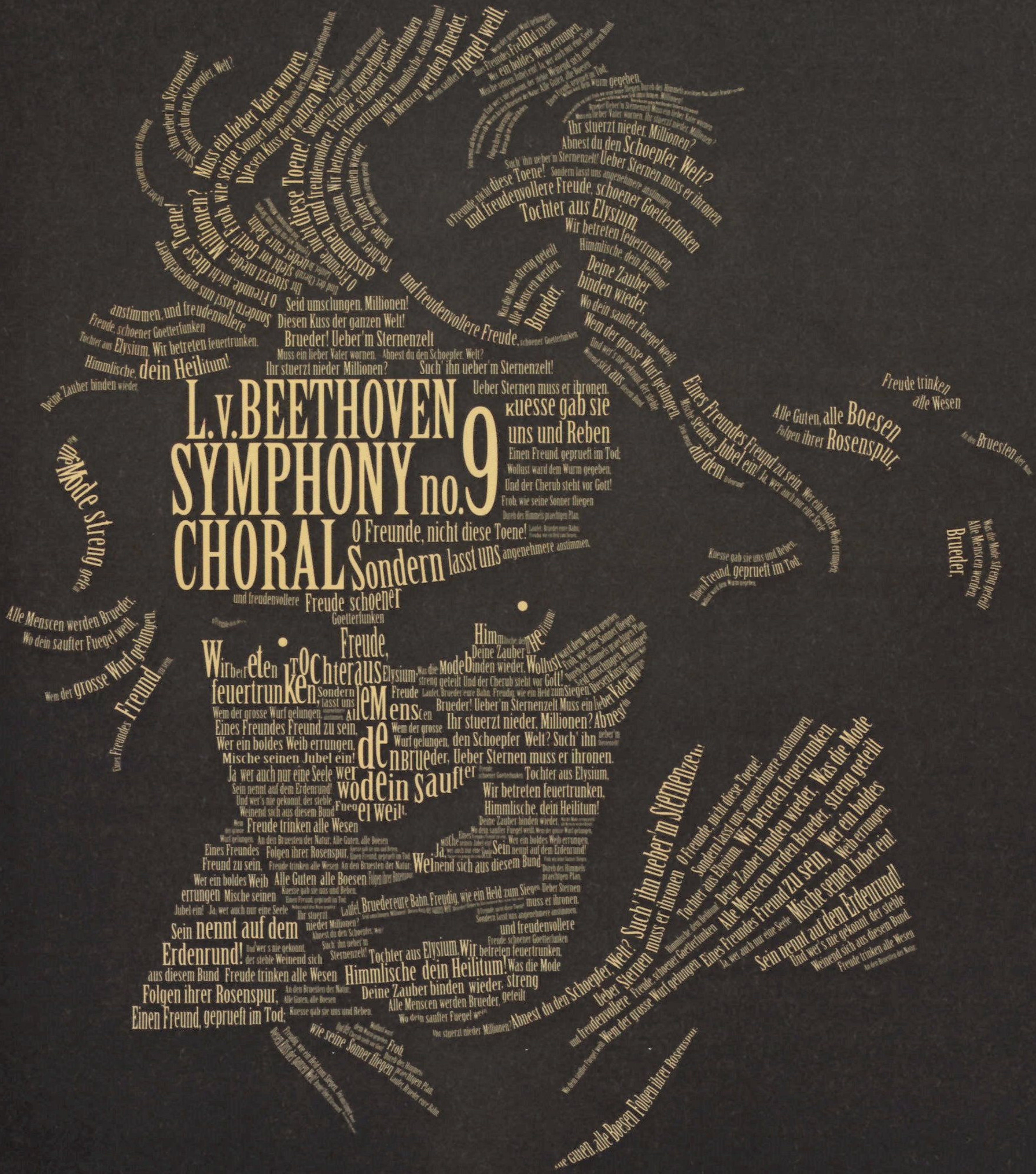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명진(부산진구 범전로)
윤경선(수영구 광남로)
이은미(해운대구 장산로)
차민주(금정구 금단로)
한영숙(동래구 총렬대로)

도서
여행자
김동윤(남구 유엔로)
김정은(해운대구 선수촌로)
이문주(사상구 백양대로)
정선애(수영구 수영성로)
최용준(서구 구덕로)

큰집
식사권
김동욱(북구 만덕대로)
김형진(남구 유엔로)
문진희(부산진구 가야대로)
정미애(해운대구 대천로)
한 협(남구 용소로)

조은극장
곽윤희(사하구 사리로)
권유미(해운대구 해운대로)
공보경(북구 화명신도시로)
이윤영(해운대구 우동2로)
정준희(동래구 북천로)

부산 MBC 창사 55주년 기념
2014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L.v.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L.v.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 지휘 리 신차오 ◆ 소프라노 이윤경 ◆ 메조소프라노 르네 레이피어 ◆ 테너 정상혁 ◆ 베이스 리 아오 ◆
- 부산시립교향악단 ◆ 부산시립합창단 ◆ 김해시립합창단 ◆ 안동시립합창단 ◆

2014.12.18(목) - 19(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주관 부산문화회관

협찬 **seun** 세운철강 주1대인플러스건설 **포스**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 051-607-6058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Georg Friedrich Händel MESSIAH

Highlights



지휘 전상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창작곡 시리즈 VI - 김동수(가천대학교수)

• 주는 그리스도 • 알렐루야

기장군해송여성합창단 지휘 권영기

• 님의 노래 • 각설이 타령 • 아름다운 강산

부산시립합창단 남성합창 지휘 전상철

• 사냥꾼의 합창 • 병사들의 합창
• 여자보다 귀한것 없네-뮤지컬 영화 '남태평양' OST

헨델 '메시아'

• 서곡 • 주의 영광 • 깨끗케 하시리라
•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
• 머리 들라 문들아 • 할렐루야 • 죽임 당하신 어린양 • 아멘



작곡가 김동수
(가천대학교수)



지휘 권영기



특별출연 기장군해송여성합창단



특별출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출연 부산시립합창단

2014. 12.27(토) 17:00 입장료 1,000원

부산문화회관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풀리처상사진전

THE PULITZER PRIZE PHOTOGRAPHS

2014. 12. 05 (금) ▶ 2015. 2. 22 (일) | KNN 월석아트홀



Capture the Moment

순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본 전시는 워싱턴 소재의 언론박물관 뉴지엄(NEWSEUM)과 뉴욕비즈니스 오브 엔터테인먼트(BUSINESS OF ENTERTAINMENT)의 큐레이터 시마 루빈(CYMAR RUBIN)에 의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최/주관 **KNN**

협력 **NEWSSEUM**

협찬 **BS 부산은행**

부산도시가스 | **SK E&S**

문의 1577-7600

후원 **NEXV** (재)넥센월석문화재단 **NEXV** 넥센타이어 **NEXV** 주식회사넥센 예매 **INTERPARK** 티켓 1544-1555

www.pulitzerprize.co.kr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서스펜스 수사국 '그놈을 잡아라'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러브애틀러'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60% Discount
코미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주말 50% 할인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육탄방 괴영이'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요금수취인
 후남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6호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인평화로7번길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CULTURAL SCHEDULE

2014
 Decemberr **12**

1	19:30 부산윈드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공연 중극장 부산윈드오케스트라(010-3376-2246)	16	19:30 2014 부산실러스트앙상블 대극장 부산일보(461-4436) 19:30 국악그룹 '도시락' 모던것이 음악이다 중극장 19:30 2014 해설이 있는 우리음악이야기 소극장
2	19:3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풍류 10기 소극장 19:30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17	19:30 2014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대극장 19:30 제8회 남부산 농협 청솔 합창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19:30 2014 조희정의 춤-추제 소극장
3	19:30 제6회 이상장 클래스 색소폰 발표회 중극장	18-19	19:30 2014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대극장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4	10:15 깨물로의 피노키오 여행 소극장 11:20 균일 1만원/단체 5천원/키즈셈(070-8281-6593)	18	19:30 제116회 MBC목요음악회 아지무소페라단과 함께하는 명작 오페라 갈라콘서트 중극장 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20:00 2014 조희정의 춤-추제소극장
4	11:00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 중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	19	19:00 Greetings from Rocio 소극장 010-7709-2850
5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솔로페라단&로마오페라극장 오페라 '토스카' 대극장 20만원·18만원·13만원 ·8만원·5만원·3만원/솔로페라단(1544-9373) 19:30 제11회 글로리아이어 가족음악회 소극장	20	19:30 그랜드오페라단 올댓 푸치니 올댓 오페라 갈라콘서트 대극장 그랜드 오페라단(853-2341) 16:00 토요일실무대-앙상블 마즈 소극장 무료
6	19:30 솔로페라단&로마오페라극장 오페라 '토스카' 대극장 18:00 인코리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인코리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627-8088) 16:00 토요일실무대-부산시립무용단 소극장	21	18:00 블레이크 첫 내한공연 대극장 지니퀸텐츠(02-568-8831) 19:30 소녀들의 피리아 이야기 소극장 여은혜(010-7197-8515)
7	17:00 솔로페라단&로마오페라극장 오페라 '토스카' 대극장 19:30 'Affogato처럼...' 중극장 엘셈(010-6426-0968)	22	18:30 사랑송&시극 소극장 김규용(010-9305-1472)
8	19:30 제40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19:30 BOCOnians Winter Concert 소극장	23	19:30 부산시립국악원학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국악원학단(607-3123) 19:30 김미란 무용단 '메멘토모리' 소극장
9	11:00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대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9:30 진소영 작곡발표회 중극장 진소영(010-3024-7877) 19:00 미림비의 향연 소극장 초대/이경준(010-4141-4669)	23-24	19:30 부산시립극단 '화가 이종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10	10:30 부산시립무용단 사랑나눔 송년공연 대극장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9:30 바이올리니스트 김성빈의 플러스 콘서트 중극장 19:30 연말사랑 나눔콘서트 소극장	24	19:30 신영옥의 Mystique 대극장 온지프렌즈(02-2038-2267)
12	19:30 부산문화회관 '앙상블 클라비어' 부산연주회 대극장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9:30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단 허달소 제4회 정기공연 중극장 초대/육영주(010-4670-7904) 19:30 산·바다·해 창단 11주년 기념공연 소극장	25	15:00 부산시립극단 '화가 이종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16:00 Tea Story in Busan 소극장
13	17:00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대극장 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7:00 목련합창단&마린콰이어 Join Concert 중극장 16:00 토요일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소극장	26	19:30 예그리나 합창단 창단 연주회 대극장 예그리나 합창단(010-8536-1148) 19:30 부산시립극단 '화가 이종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19:30 AEOB 송년음악회 소극장
14	17:00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앙상블의 밤 중극장 동아대학교 음악학과(010-2333-2544)	27	17:00 부산시립청소년소녀합창단 제143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부산시립청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15:00 부산시립극단 '화가 이종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16:00 토요일실무대-부산시립국악원학단 소극장
15	19:30 제35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대극장 균일 2만원/ J.K.O(010-3863-3087) 19:30 행복나눔 송년음악회 중극장 19:30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 제19회 정기연주회 소극장	28	19:30 뉴아시아오페라단 송년연 밤 대극장 5만원·3만원·2만원/뉴아시아오페라단(1600-6867) 17:00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소극장 박강우(010-2553-0737)
		29	19:3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4 송년음악회 대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30	16:30 남산놀이마당 부산이야기 '금장산 고당할미전' 19:30 중극장 균일 1만원/남산놀이마당(516-4434)
		31	22:30 부산문화회관 2014 재이음악회 대극장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연극·음악·공연·전시
 2014. 11. 6(목)~2015. 1. 4(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료,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시간 추가출판문의
 입장권: 공연 3만원
 장 소: BS부산은행주조은행 1관
 문의 및 예매: BS부산은행주조은행 1588-2757

연극·음악·공연·전시
 2014. 10. 23(목)~2015. 1. 4(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료,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시간 추가출판문의
 입장권: 공연 3만원
 장 소: 조복우산가온아트홀 1관
 문의 및 예매: SM기획 1600-1602

연극·레노베이션홀리
 2014. 10. 30(목)~2015. 1. 4(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료,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시간 추가출판문의
 입장권: 공연 3만원
 장 소: BS부산은행주조은행 스타홀
 문의 및 예매: BS부산은행주조은행 1588-2757

서스펜스 수사극 '그놈을 잡아라'
 2014. 9. 18(목)~2015. 1. 4(일) 평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
 (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료,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시간 추가출판문의
 입장권: 공연 3만원
 장 소: BS부산은행주조은행 2관
 문의 및 예매: BS부산은행주조은행 1588-2757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안 가림벨딩 2층
 051)626-2692

하나는가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벨리 210층
 051)747-8244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안 가림벨딩 1층
 051)622-1456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CULTURAL SCHEDULE

2014
 Decemberr **12**

1	19:30 The Regular Concert of Busan Wind Orchestra Medium Theater (010-3376-2246)	16	19:30 2014 Busan Soloist Ensemble Grand Theater 19:30 Korea Music Group Dosirak Medium Theater 19:30 Korea Music Story Concert Small Theater
2	19:30 The Special Performance of B.M.D.C 'Pungryu' Small Theater 3,000/B.M.D.C(607-3131~2) 19:30 Mirusaem Chior Concert Medium Theater	17	19:30 2014 New Year's Eve Concert Grand Theater 19:30 Cheongsol Choir Concert Medium Theater 19:30 2014 Dance of the Jo huijeong Small Theater
3	19:30 Lee Seungjang Class Concert Medium Theater	18-19	19:30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Culrural Center 'Beethoven Symphony No.9' Grand Theater
4	10:15 Carlo Pinocchio trips 11:20 Small Theater 10,000/Kids Sam(070-8281-6593)	18	19:30 1164th MBC Thursday Concert 'Opera Gala Concert with Agimus Opera' Medium Theater 20:00 2014 Dance of the Jo huijeong Small Theater
4	11:00 Busan Metropolitan Chorus 'Special Concert for Youth' Medium Theater 2,000/B.M.C(607-3141)	19	19:00 Greetings from Rocio Small Theater
5	19:30 Sol Opera & Teatro dell'Opera di Roma 'Tosca' Grand Theater 200,000/180,000/130,000/80,000/50,000/30,000/Sol Opera Company(1544-9373) 19:30 Glory Choir Family Concert Small Theater	20	19:30 Grandopera 'All That Puccini All That Opera Gala Concert' Grand Theater Grandopera(853-2341)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6	19:30 Sol Opera & Teatro dell'Opera di Roma 'Tosca' Grand Theater 18:00 The 20th Regular Concert of Inkorean Academic Orchestra Medium Theater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21	18:00 Blake Busan Concert Grand Theater 19:30 Piri Story of Girls Small Theater
7	17:00 Sol Opera & Teatro dell'Opera di Roma 'Tosca' Grand Theater 19:30 'Like Affogato...' Medium Theater	22	18:30 Poetry&Poem drama Small Theater
8	19:30 The 40th Regular Concert of Busan Symphony Orchestra Medium Theater 19:30 BOCOnians Winter Concert Small Theater	23	19:30 The 176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Grand Theater 19:30 Kim Miran Dance Company 'Memento mori' Small
9	11:0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Special Performances for Youth' Grand Theater 19:30 Jin Soyeong Composition Conference Medium 19:00 Marimba Festival Small Theater	23-24	19:30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Medium Theater B.M.T.C(607-3151)
10	10:3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New Year's Eve concert together with disabled' Grand Theater 19:30 Geum Seongbin Plus Concert Medium Theater 19:30 Charity Concert Small Theater	24	19:30 Soprano Shin Youngok Recitals Grand Theater
12	19:30 Busan Culrural Center Special Concert 'Ensemble Kla_vier' Grand Theater B.C.C(607-6058) 19:30 Busan Women's Cultural Center 'The 4th Regular Performance of Pungmul Arts Corps' Medium Theater 19:30 'San·Bada·Hae' Concert Small Theater	25	15:00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Medium Theater 16:00 Tea Story in Busan Small Theater
13	17:00 Busan Culrural Center Special 'Concert Czech Boys Choir Boni Pueri' Grand Theater 17:00 Mokryeon Choir & Marin Choir Join Concert Medium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26	19:30 Founded Concert of Yegeurina Choir Grand Theater Yegeurina Choir(010-8536-1148) 19:30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Medium Theater 19:30 AEOB New Year's Eve concert Small Theater
14	17:00 Dong-A 'Night of The Piano Ensemble' Medium Theater	27	17:00 The 143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ir Grand Theater 15:00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Medium Theater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15	19:30 U.K.O Orchestra 'Concert of Love for Incurable Children' Grand Theater U.K.O Orchestra(607-3116) 19:30 New Year's Eve Concert Medium Theater 19:30 The 19th Regular Concert of Busan Clarinet Quartet Small Theater(010-7543-0883)	28	19:30 The Last Propose Grand Theater New Asia opera(1600-6867) 17:00 The 9th Regular Concert of Busan Doctors Clarinet Ensemble Small Theater
		29	19:30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Grand Theater
		30	16:30 Pungmulpae Namsannorimadang Busan Story Medium Theater 19:30 Pungmulpae Namsannorimadang(516-4434)
		31	22:30 Busan Culrural Center '2014 New Year's Eve Concert' Grand Theater 30,000/20,000/10,000/B.C.C(607-6057)

요금수취인
 후남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1. ~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66호

1월 테마여행 신청

테마여행지 추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어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비엔나-베를린 브라스 퀸텟 부산연주회

베를린필하모니와 비엔나필하모니의 수석관악주자로 결성된

비엔나-베를린 브라스 퀸텟 (Wien-Berlin Brass Quintet) 국내 첫 콘서트

2015. 1. 17(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5 신년음악회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Strauss Festival Orchester Wien)

30년 전통의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첫 부산공연

2015. 1. 20(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Conductor & Violin 페터 구트
- Soprano 김은경(백석대학교 교수)



2014

제야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EW YEAR'S EVE CONCERT

사회 김정아

2014. **12. 31** (수) 오후 10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주현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신동원
바이올린	박지윤
로비콘서트	레인메이커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문의 607-6057 공연과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ticketlink** 1588-7890
협찬 롯데건설  (구. 부산경남경마공원)

